

YONSEI ALLWAYS⁺



연세인이 들려주는 전공이야기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YONSEI All-Ways⁺

연세인이 들려 주는 전공이야기



YONSEI All-Ways⁺는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6 자기이해와 전공선택

10 미니인터뷰

12 인터뷰

20 문과대학

- 22 국어국문학과
- 24 중어중문학과
- 26 영어영문학과
- 28 독어독문학과
- 30 불어불문학과
- 32 노어노문학과
- 34 사학과
- 36 철학과
- 38 문헌정보학과
- 40 심리학과

42 상경대학

- 44 경제학전공
- 46 응용통계학과

48 경영대학

- 50 경영학과

52 이과대학

- 54 수학과
- 56 물리학과
- 58 화학과
- 60 지구시스템학과
- 62 천문우주학과
- 64 대기과학과

66 공과대학

- 68 화공생명공학전공
- 70 전기전자공학전공
- 72 건축공학과
- 74 도시공학과
- 76 토목·환경공학전공
- 78 기계공학전공
- 80 신소재공학전공
- 82 산업공학과
- 84 컴퓨터과학과
- 86 IT융합공학전공



88.....**생명시스템대학**

- 90 시스템생물학과
- 92 생화학과
- 94 생명공학과

96.....**신과대학**

- 98 신학과

100.....**사회과학대학**

- 102 정치외교학과
- 104 행정학과
- 106 사회복지학과
- 108 사회학과
- 110 문화인류학과
- 112 신문방송학전공

114.....**음악대학**

- 116 교회음악과
- 118 성악과
- 120 피아노과
- 122 관현악과
- 124 작곡과

126.....**생활과학대학**

- 128 의류환경학과
- 130 식품영양학과
- 132 실내건축학과
- 134 아동·가족학과
- 136 생활디자인학과

138.....**교육과학대학**

- 140 교육학전공
- 142 체육교육학과
- 144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46.....**간호대학**

- 148 간호학과

150.....**언더우드국제대학**

- 152 언더우드국제대학
- 154 언더우드계열
- 157 융합인문사회계열
- 159 융합과학공학계열

160.....**글로벌인재학부**

- 162 글로벌인재학부

164.....**의과대학**

- 166 의학과

168.....**치과대학**

- 170 치의학과

172.....**약학대학**

- 174 약학과

176.....**RC프로그램 소개**

180.....**학사제도**

184.....**학사제도**

YONSEI ALL-WAYS+

주체성을 통한 진로 선택

최석원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전공, 13학번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친구들에게 ‘너는 무슨 과에 가고 싶어?’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변 대부분의 친구들은 의학과, 화공생명공학과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의학과는 취업 걱정이 없고 안정적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었고, 화공생명공학과는 의·치 계열을 제외하고 이과에서 가장 높은 입시 결과를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동기들이나 선배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신소재공학대에 지원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점수에 맞춰 지원했다’, ‘이름이 멋있어 보여서 지원했다’ 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망하는 학과니까,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서 그 학과를 추천하시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 타인의 판단이 그들의 판단이 됐으며, 타인의 결정이 그들의 결정이 된 걸까요? 물론 타인의 판단이나 결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나 결정을 자아에 대한 고찰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까르페 디엠(Carpe Diem)

‘죽은 시인의 사회’ 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학생들을 명문 대학교에 진학 시키기 위해 엄격한 규율로 통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변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학생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에게 ‘넌 무엇을 해야 한다. 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라며 학생들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을 말해줍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명문대 진학만을 요구하는 주변 인들에 반기를 들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도전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라는 시간을 즐기려는 학생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되기도 하고, 그들을 응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화 속의 학생들처럼, 주변 사람들이 주입하는 사고에 갇히지 말고 스스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주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모를 미래에 맞게 될 성공은, 어찌 보면 지금 소중히 보낸 시간에 대한 보답일 수 있습니다.

‘나’와 대화하자

저는 고등학생일 때에는 단순히 화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화공생명공학과를 지망했습니다.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도,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학과에 대한 탐색 없이 단순히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어느 학과를 나와서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꿈’ 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목적지를 잃은 배는 표류하기 마련이듯 저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지 못했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고3 때 대입에 실패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바로 재수를 결정하지 말고, 일단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가보고 그 다음에 진로를 다시 선택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막상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다 보면 제게 그 학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학과에 진학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목표로 삼을 학과를 정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학교의 학과를 나열해 놓고, 포탈 사이



트에서 하나하나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를 사람들의 출처 없는 글이 난무했고, 전공과 관련된 글보다는 입시에 관련된 글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학과 소개 글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쓰여있거나, 전문적이어서 어렵거나, 모호한 장점을 써두어 참고하기엔 한계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저 스스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모르다 보니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 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평소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동차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유명 스포츠카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 자동차의 외관이 단순히 철강이 아닌 탄소 섬유로 이뤄져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차체를 구성하면 철강으로 구성한 것보다 더 가볍고, 더 단단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소재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더 좋은 소재를 연구하여 개발하는 분야로, 신소재공학과에서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신소재공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했던 처음과는 달리 신소재공학과 홈페이지에서 기초 학문, 배우는 과목, 졸업 후 진로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알아본 결과, 신소재공학과는 저라는 사람에게 꼭 맞는 학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해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저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평소에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좋고, 진로에 관한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도 좋습니다. 의학 드라마를 보고 의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꼈다면, 의사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세요. 혹은 인증된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여 진로 검사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찾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으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진중한 고민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자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정한 목표가 명확하다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로부터 우리나라는 열정은 우리를 노력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늦은 때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늦었다고 생각된다면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어떻게 보면 응원의 메시지로 들리기도 하는 문장입니다. 개그맨 박명수씨는 이 문장에 상반된 어록을 남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늦은 때이다’ 라고 말입니다. ‘늦었으니 포기하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웃으며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문장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좌절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 늦은 것은 없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공부하는 것이 늦었거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자신이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늦었어’, ‘나는 남들보다 뒤쳐졌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열정도 식게 되고, 노력의 정도 또한 감퇴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가 있다면, 절대 늦지 않았으니 일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죽기 전까지 죽은 것이 아니도록

‘사람은 25세에 죽지만, 75세에 땅에 묻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꿈이나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25세, 즉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비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매우 불행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전공을 선택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 주체성을 갖고 탐구하여 진로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셨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에게 부끄러짐 않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쓰는 연필은 흑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흑연이라는 검은 색의 물질은 매우 평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의 험난한 환경을 견뎌내면 흑연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답게 빛나는 값비싼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감히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평범한 흑연 가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로 바뀔 수 있는, 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목표와 꿈이 생겼다면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을 알며, 그에 따른 명확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갈고 닦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미니인터뷰

Mini Interview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수업시간
이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학교에 다닐 때 대입에 반영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나누어서, 반영되지 않는 과목은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며 소홀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고 각종 활동을 하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듣지 않던 과목의 내용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들어둘 걸', '더 관심을 가질 걸' 하며 후회 할 때가 참 많아요. 반면 '이런 게 언제 쓰일까?'라고 느끼면서도 공부 해주었던 부분들이 예상 밖의 참 큰 도움이 될 때도 많답니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 자기 전공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전공수업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쌓아두었던 다양한 과목의 소양들을 자신의 전공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활용하느냐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대학생활을 하며 참 많이 느낍니다.

지금 수업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길 바라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작곡과
| 권찬영(08학번)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보장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잠을 자지 못하면 공부효율이 200% 떨어집니다. 졸리면 공부가 안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무리해서 공부하는 것은 가장 피하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전 항상 12시~1시에 자서 6~7시에 기상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한 적은 거의 없어요. 깨어 있을 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날 수업에 피해가 갑니다. 고3 시기에도 이것만은 꼭 지켰습니다.

둘째는 마음을 급하게~

이건 특히 고 1, 2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간혹 고 1, 2학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다가 고3이 되면 몸도 마음도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 1, 2학년때는 적당한 내신관리와 언·수·외 중심의 기초다지기가 중요합니다. 기초도 없는 학생들이 급한 마음에 높은 수준의 문제를 시작하면 공부에 싫증이 날 수 있습니다. 심화단계는 고3때 해도 충분합니다. 1, 2학년때 제대로 된 기초를 다져놓는다면 고 3때 미친듯이 공부하지 않고, 공부시간만 약간 늘려도 무난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환경학과
| 박지원(10학번)



수험생때 썼던 저의 시간 관리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시작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 해서 학교에 가는 주중에는 공부하는 패턴이 이어지는데 일요일에는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세우고, 일요일에는 공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무슨 공부를 할지 구체적으로 적고, 실천했으면 표시를 해 두었지요. 그렇게 6일을 보내고 6일 동안 다 하지 못한 공부를 일요일에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주중 계획을 잘 실천해서 일요일에 할 것이 별로 없다면 자유시간으로 썼지요. 대신 토요일까지의 계획은 좀 딱딱하게 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일 동안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기간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쓴 방법이에요. 학교에 가지 않는 일요일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차라리 쉬고 싶었는데, 저는 이 시간 관리법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일요일에도 공부 했지만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이 좋다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국어국문학과
| 소지현(10학번)

적극적인 봉사활동도 권하고 싶어요

대학에서는 대개 봉사활동이 의무가 아니고 성적에도 반영 되지 않아서 활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대학에서의 봉사활동은 자원봉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보람차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자원봉사를 찾아서 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것이 대학에서도 이어질 수 있으니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에서 '봉사활동' 혹은 '자원봉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문우주학과
| 구한울(09학번)

'입사가 끝이다'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 지원해야 할까?' 아니면, '하고 싶은 분야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할까?'라고 생각해오. 하지만 대학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뿐 어떤 것도 학생에게 정해주거나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네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대학을 와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테니까요.

경제학과
| 박지원(10학번)



언더우드국제대학

세계 명문대학의 학부교육 철학에 기초한
엘리트 교육환경을 제공

Q HASS계열과 ISE계열은 신설학부라서 지원자 모두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서 지원하면서 고민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예영
(HASS계열 사회정의리더십
14학번)

예영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우리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의 HASS계열 세부 전공 설명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창의적으로 과목들을 융합시킨 점은 물론, 제가 고등학교 내내 꼭 공부하고 싶었던 융합프로그램이 연세대학교에 새로 개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배우고자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명확했기 때문에 전공을 보고 이 계열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설학부라는 점과 전공별이 아닌 계열별 진행되는 입시전형으로 인해 모집단위의 규모나 세부전공의 커리큘럼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학 내에 기존의 전공들과는 차별화되고, 새롭게 부상하는 니즈를 충족시키는 전공들로 이루어진 유망한 신설학부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원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녀보니 배우는 내용도 새롭고 유익하고, 융합사회과학부 내 전공들이 각각 특색이 뚜렷하며 학부 내에서는 복수전공이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면에서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승우
(ISE계열 바이오융합
14학번)

승우 저도 처음에는 ISE 계열이 신설학부라 선배도 없고 학부에 대해 따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단지 입학요강과 학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가이드만 보고 지원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걱정이 살짝 들긴 했지만, 언더우드국제대학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Bio융합학과 진로안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보가 일단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과 꼭 맞을 것 같아서 지원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은 당시 제 생각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춰 앞으로는 국제적인 마인드와 능숙한 언어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제가 외국 유학경험도 없이 순수 국내파 일반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언더우드국제대학에서 진행되는 모든 영어로 하는 강의를 과연 잘 따라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 당시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조금 힘들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어로 수업을 듣다보니 이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이 잘 돼 지금은 아주 잘 따라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내파 학생일지라도 성실한 학생이라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세부 전공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2학년을 올라가면서 그 전공을 선택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영__저의 전공은 사회정의리더십학과입니다. 처음 제 전공을 소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생소해 다시 물어봅니다. 신기하고 새로운 이름과는 달리 이 전공은 1920년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유명한 융합프로그램인 PPE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사회의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지도하려면 상호보완적인 학문 분야 간의 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철학, 정치학, 경제학 및 사회학을 함께 배우는 전공입니다.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인 이해를 통해 피상적인 지식수준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인문학적 연결고리를 찾고 깊고 다층적인 고민을 하는, 더욱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 전공을 공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1학년 동안 전공과목들을 들어보니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제가 기대했던 내용을 진지하고 흥미롭게 가르쳐 주셔서 2학년이 되면서 주저하지 않고 이 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전공의 교수님들께서는 모두 로스쿨을 나오셔서 인문학 및 사회과학 관련 강의는 물론 법에 특화된 강의도 제공해주십니다.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정치, 국제기구, NGO 등 다양한 진로의 길이 있는데 저는 이 학문의 취지와 내용이 정말 매력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이나 비교문학과문화(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를 복수전공하여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융합적인 지식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국제시대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승우__입학 할 때는 융합과학공학부로 입학을 하였고, 2학년인 지금 저의 세부전공은 바이오 융합전공입니다. 바이오 융합과는 제약, 생명공학, 화장품과 같은 생명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 탐색, 2학년에서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 기초과목을 수강하고, 3학년부터는 전공에 관련한 심화 프로그램 및 과학 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과목을 수강하고 4학년에는 독자적인 연구 능력이 가능하도록 교과 과목이 구성되어 있어서 21세기 바이오 시대의 고품화 사회에서 부딪히게 될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배우고 연구하며 생명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명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인물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전공으로 공부하여 신약 개발에 대한 학문을 깊이 쌓고 연구하여 앞으로 부딪히며 풀어나가야 할 신약 부분의 미제와 난제들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여 세계보건기구나 생명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이 과를 선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양 교과를 우선 수강한 뒤 전공에 진입하지만, ISE계열은 1학년부터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 과학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타 학과 대비 전공 기반을 일찍 닦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학과에 비해 전공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융합과 학공학부로 입학 하여서 2학년 때부터 3개과인 바이오융합, 나노과학, 에너지융합으로 세분화 되는데, 자신이 선택한 과에서 공부하다가 뭔가 본인과 맞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다시 다른 과로 전공을 바꿀 수 있고, 또 2개과를 복수전공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Q 더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영__언더우드국제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있지만 영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언어를 공부할 용기가 있고 영어로 꼭 대학교육을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서 영어를 쓰는 데 불편함이 없지만 국내에서 대부분의 학창생활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영어로만 공부한다는 것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은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영어로 많은 양의 독서를 할 자신이 있고, 영어로 의사소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영어실력은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오면 금방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국내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진학해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__원서를 넣을 때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여러분! 저도 국내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입니다. 자신이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거나 외국에서 꼭 공부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공부를 하다보면 자연계열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 갈 수 있고 영어로 모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꼭 유학을 하지 않더라도 외국유학 온 것처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융합공학부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혁신적인
르네상스 공학자 양성

Q 글로벌융합공학부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나 프로젝트를 소개해주시길 수 있습니까?



박찬영
(글로벌융합공학부 13학번)

권미령
(글로벌융합공학부 13학번)

찬영 3학년인 저는 지난 한 학기동안 통섭연구를 통해 지도교수님 아래에서 '음악 스트리밍 데이터 로그 분석을 통한 음악 청취자들의 독특한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 해외 학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 이름이 1저자로 들어가 있는 완성된 논문을 볼 때의 뿌듯함과 더불어 연구 과정 자체에서 큰 재미를 느낄 때, 제 진로와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령 글로벌융합공학부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개별연구와 통섭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구는 1,2학년 학생들이 매 학마다 학부 내에 있는 연구실에 소속되어서 연구를 해보는 것으로 소속된 대학원 선배들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주제를 세워 연구를 해봄으로써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건희 교수님 지도하에 통섭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강아지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제입니다. 글로벌융합공학부에 특성을 살려 컴퓨터 공학, 전자공학 등의 지식을 다시 재정비해 나갈 수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융합공학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교수님과의 토론의 장이 항상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쭙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오피스를 찾아가서 교수님을 직접 뵈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타 대학, 타과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성화 저는 1, 2학년 때 학부수업을 들으면서 센서와 로봇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3학년인 지금은 관심 분야에 맞춰서 지도 교수님과 함께 'UWB 레이더를 활용한 드론의 장애물 인지 및 회피'라는 주제로 통섭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대학에 입학한 후 가장 몰두했던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성화
(글로벌융합공학부 13학번)

찬영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즐길 수 있는 여러 중앙동아리와 학회 활동들과 더불어 글로벌융합공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가지게 됩니다. 그 예로 앞서 설명 드렸던 여러 연구 집중 교육들과 ICT 포럼 기획 및 참여, 해외 학회 탐방, 창업 지원 프로그램등 정말 다수의 유익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에 다녀온 핀란드 알토 대학 연수입니다. 저는 학과의 지원으로 동기 모두와 함께 알토 대학의 디자인 팩토리 Summer School에 참여하여 국



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 친구들과 함께 이때까지 배워왔던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해본 경험은 아직까지도 정말 즐겁고 유익했던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성화 2학년 때는 '상상설계'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기존의 프로젝트 수업들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상상설계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필요한 공부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야외 스포츠 활동과 스마트 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합쳐보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팀원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센서 조작법, 마이크로 콘트롤러 프로그래밍, 앱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했는데, 팀원들끼리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를 꼭 실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결국엔 십시일반으로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완성을 한 것만으로도 좋은데, 상까지 받으니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Q 졸업 후 어떤 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찬영 저는 현재 3학년으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의 진로 계획으로는 연구 활동의 연장선으로 동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에는 뛰어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사회를 위해 사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미령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는 개별연구와 통섭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바탕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하시는 교수님 지도하에 대학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보다 더 융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연구를 하며 글로벌융합공학부만의 메리트에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실력을 쌓고 싶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좋은 점은 교수님들 전공 분야가 공과대학 전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다양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 항상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공과대학원생들과는 다른 커리큘럼과 연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창의성이 필요

한 새로운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ETR에 있는 융합기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구글, 네이버 또는 카카오와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제가 아는 지식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성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센서와 컴퓨터 공학입니다. 이것들과 관련이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우선 찾고 싶습니다. 그 후엔 연구원이 되어도 좋고, 창업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Q 더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찬영 저도 수험생 동생이 있어서 이번 수능을 생각하면 유난히 떨립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과정도 결과도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과 함께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잘 챙기시면 더욱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길을 찾는 행운이 따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령 마지막으로 글로벌융합공학부는 한 학년에 20명 남짓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남다른니다. 13학년 친구들과 매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데 매해 새로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예전 사진과 비교해 보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관찰할 때 정말 재미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융합공학부는 2학년 여름방학에 해외로 연수를 다녀오는데 13학번의 경우에는 핀란드 알토대학으로 한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알토대학에서 디자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많이 배웠고 뿐만 아니라 발표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와 같이 공학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 과정까지 즉, 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실제로 구현하고 다 만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유로운 학교 공간이 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글로벌융합공학부의 경우에도 그 부분에 영감을 받아 송도 국제캠퍼스 진리관C 2층을 새로 리모델링하여 일반적인 학교의 느낌은 벗어나 좀 더 창의적인 공간을 형성해두었습니다.

성화 공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우리 글로벌융합공학부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스무살, RC 안에서 꽃피우다

나는 18년 동안 광주에서 지냈다.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연세대학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느 새내기들과 비슷하게 나는 신촌에서의 젊음을 가장 기대했고, 그런 나에게 국제캠퍼스 1년은 조금은 아쉬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셨다. 우선 집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에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두 번째는 환경이었다. 국제캠퍼스에 부모님과 함께 간적이 있었는데 시설을 비롯한 국제캠퍼스만의 분위기에 완전 매료되었다. "14학년 전체가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을 생각하니 네가 너무 부럽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특히 도서관을 보시고는 축복받았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다.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내 의견도 조금씩 바뀌었다. 생각 해 보니 나에게 스무살은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광주에서 서울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여러 변화들이 섞이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런 시점에서 국제캠퍼스가 나에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들의 이야기도 한몫했다. 한 학기만 있었던 13학년 선배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송도에서의 일 년을 알차게 잘 보내라고 충고 해 주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설렘을 안고 2월 27일 국제캠퍼스로 떠났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12월 23일, 국제캠퍼스에서의 일년이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이었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국제캠퍼스의 가장 좋은 점은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학기 초,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밤늦게 전화 온 적이 많았다. 생활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타지에서 생활하는 나의 친구들의 경우 그 힘듦이 더했을 것이다. 물론 나의 환경도 그 친구들만큼 변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우선 전원 14학년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다. 무조건적인 배려는 당연히 아니었다. 대학교육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RM 교수님의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시기 때문에 하우스 프로그램이나, 수업 외의 상황에서도 다독 거려주시고 조언 해 주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학사지도교수님과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학기 초엔 교수님이라는 존재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져 상담을 망설였는데, RC101 시간에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담을 자주 신청했다. 복수전공, 교환학생 등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연애 등 많은 부분을 편하게 상담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곳곳에 함께 있다. 과동기들, 룸메이트들과, 혹은 낯선 동기들과도 함께 마주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RC 교육의 장점이다. RC는 이렇듯 학교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두 번째로 RC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 "송도? 거기 놀 곳도 별로 없지 않아요?" 주변 친구들이 국제캠퍼스에서 생활한다고 하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다. 물론 서울보다야 놀 곳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센트럴 파크를 비롯한 여러 공원과 박물관, 관광지 등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설령 정말 놀 곳이 없다고 해도 연세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고 만들어 나갔다. 나의 경우 시

H터 합창 채플 공연/ 2014.12.02 / 종합관 3층



국제캠퍼스 동아리 '지렁이' 김정하기/ 2014.12.07 / 제 2기속사 셀프키친

너의 고향이 궁금해, 부산편 <룸메이트들의 고향으로 여행가기>
2014.08.13 / 부산 감천문화마을



센트럴파크에서 카누타기 / 2014. 10.04 / 센트럴파크



용재 하우스 진로 상담소 / 2014.11.04 / 해양경찰청 건너편 WHAT'S 발효삼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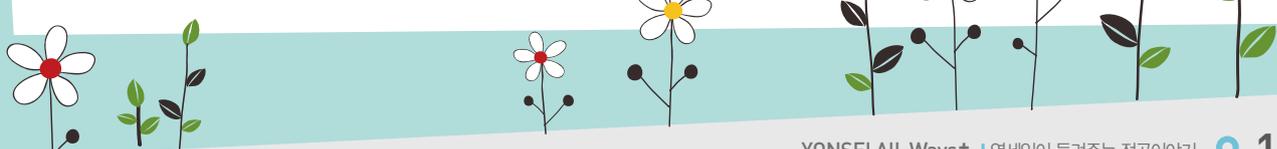
신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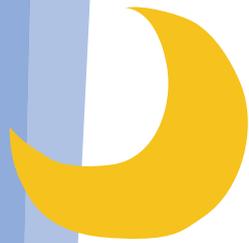
(언론홍보영상학부 14학번)

간이 날 때 동기들과 밴드 연습을 갈대밭 뒤에서 하곤 했는데, 해가 지는 모습이나 서울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뜨는 것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나에게 감동 그 자체로 다가왔다. 그렇게 연습한 결과들을 저녁에 언더우드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기도 했었다. 또 월드컵 때는 한 동기의 제안으로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플래시몹을 했는데, 우리학교 축구장에서 짬짬이 모여서 즐겁게 연습했다. 우리는 꿈꿀 수 있는 환경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었다. 학교 텃밭에 배추를 심어 셀프김치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에서 밤을 새면서 친구들과 책을 읽기도 했다. 만약 서울에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자유롭게 꿈꿀 수 있었을까? 국제캠퍼스에서는 “해볼까?” 라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졌다.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면서 우리의 시야도 확장되었다. 나의 경우도 나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곳에 대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RC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보통 대학생들은 과동기들이나 동아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진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14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고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과가 아니고 같은 동아리가 아니어도 친해질 수 있다. 조모임을 할 때도 다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종간한 이후에도 모임을 꾸준히 갖기도 하고 하우스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야식을 먹으면서 친해질 수도 있다. 또 페이스북 14학번 그룹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집할 수 있다. 실제로 보드게임, 기타,영화 등 취미를 공유하고자 글을 올려 친해진 사람들도 많이 봤다. 룸메이트들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나의 경우 룸메이트들과 무척 친해 '너.고.궁'(너의 고향이 궁금해)라는 테마로 룸메들과 서로의 고향에 여행을 가기도 했었다. 신촌에 가서도 꾸준히 만나고 싶어 여행 계획을 만들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14학번'이라는 의미는 정말 각별한 것 같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설령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서로 도울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1년간 전원 RC 교육을 체험한 첫 세대로서 우리는 같은 추억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지속된 연결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RC 수기 공모전을 한다는 글을 보았을 때, 나 스스로 국제캠퍼스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꼭 도전하고 싶었다. 그만큼 송도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 외에도 유명 인사들을 정기적으로 초대 해 강연이나 공연을 들을 수도 있고, 문화 예술 및 봉사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받는 등 국제캠퍼스의 자랑거리는 너무도 많다.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 선배들과 교류가 활발히 안 되는 점, 신촌에서의 활동 및 교외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점, RC프로그램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 등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연세'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세'의 가치를 더 드높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스무 살도, 국제캠퍼스의 생활도 끝이 났다. 아름다운 시절, 나의 스무 살을 국제캠퍼스에서 꽃피울 수 있어서 행복했다. 송도의 밤하늘을 보면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나의 스무 살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후배들도 국제캠퍼스에서의 스무 살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R][C] & [M][E]

After riding / YIC main gate / 2014 Oct.



Central Park and near apartments / Central Park / 2014 Oct.

[R]esidential College? That reminds me those restrictions, regulations, and old-fashioned buildings!" This was the initial impression when I heard about the Residential College. This Residential College system is quite common in the United States, but in Korea it is relatively a new concept. Benefits of it promoted more and more prestigious schools in the world to institute the Residential College system, Yonsei University, one of the best leading schools in Korea, introduced this system in Korea for first. As a consequence, several other schools in Korea are also instituting Residential College systems. So, what is it good about the Residential College? Spending first year of college at Residential College located in Songdo, Incheon does not sound ideal, but this year had been one of the best moments in my life. To point out a few experiences at RC, I want to first describe about the Songdo and Yonsei International Campus.

[C]hilling winds and construction sites first welcomed on my way from the Campus Town station to the main gate of YIC, or Yonsei International Campus. YIC is located in Songdo, the north-western part of Incheon. It is an hour away by public transportation to Sin Chon where the Yonsei University's Seoul Campus is situated. To be honest, I was first worried about that YIC is located in Songdo which is comparatively a new city; however, I bet Songdo has remarkable characteristics. First, if you are a bicyclist, you will love Songdo. I love to ride around the city. However, the quality of bicycle roads at Seoul or any other cities are quite poor. Songdo is a perfect place where you can ride bicycles since Songdo has bicycle-only-roads and there are not much cars except for rush hours thus you can enjoy the safe and clean road. As Incheon is a port city, if you ride a bit farther you can see the clean sea near the Incheon Bridge. Second, I need to mention about the Central Park and Canal Walk near YIC. Central Park is the centerpiece of green space plan. Central Park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destination with a myriad of parks and public green spaces incorporated into its design. There are Rabbit Island and Deer Island, where rabbits and deers live on portion of island on the liver at Central Park. Canal Walk, located right beside the Central Park, is a complex of shopping, restaurants, cafe, and many other purposes.

[M]emories at Central Park and Canal Walk that I would like to share are the 2014 Songdo Fireworks and Music Festival. It is hosted annually during the autumn and about four hundred thousands of people come to enjoy the festival. It offers both music and fireworks around the night sky of Songdo. It was very beautiful and memorable events at Songdo. Third, I would like to point out about the convenient facilities near the Korean Coast Guard and Sqaure One which are very accessible from YIC. The school provides shuttle bus



이유진

(HASS계열 과학기술정책 14학번)

to and from Korean Coast Guard and Square One which is another complex department store near Dong Chun Station. Near the Korean Coast Guard and Square One, there are hospitals, movie theatres and any other facilities that is accessible and convenient.

[E]very moment at Songdo was precious now I want to emphasize on the Residential Programs and Residential Assistants. Each freshman will be automatically assigned to a particular House and there are Residential Assistants in each House. I was in Allen House, and my RA was a very caring and warm-hearted person. She would come and have a dinner with me and provide advices when I had problems. She would also remember every Allenians' birthday and celebrate with a cake. Furthermore, RC Programs including concerts, musicals, lectures, RC Olympics, parties, cooking, hang outs and various other activities. There are significant RC programs I would like to share. First the Allen Party and Allen Cafe were splendid. Allen party, all decorated and ran by RAs of Allen House, was a real fun with lots of fun games, foods, and good people. Allen cafe is a cafe fully equipped with RA doing baristas. It opens for every Wednesdays and it offered various types of coffee and tea just for 500 won. The profits were all donated to children care center. There were frequent RC lectures, musicals and concerts. I went to RC jazz and classical concerts hosted by virtuoso musicians and these were remarkably professional. Also, one RC lecture that left strong impression on me is a lecture by Gang Geum Sil, the Minister of Justice. She shared about her successful life and about obstacles of how hard and tough it was to become the Minister as a woman in Korea. Also, Aristotle House's Haunted House was another professional fun event. Voluntary students received cosmetics and costumes from professional make up teams and decorations were all professional. It was only 1000 won to enjoy this Haunted House but its value exceeds 1000 won. Last and most importantly, I want to share about how the Christian communities are well established in YIC. In both the first dormitory and the second dormitory, there are oratory, fellowship room and prayer room. The prayer room and fellowship room are always open so that everyone can have their prayers regardless of the time. Also, there is a Morning Prayer meeting every day at C. S. Kang Chapel which is called YMP, the Yonsei Morning Prayer sponsored by Yonsei Chaplain Office.

In a nutshell, RC was a treasure for ME. I have met most interacting and family like community at YIC. I am staying at YIC for the rest of three years because of my major. I would love to stay. Beautiful campus, caring communities, wonderful Songdo makes me feel like YIC is my second home town. Many of fellow classmates and friends want to stay more at YIC even though it is not mandatory. RC, where WE make history.

Halloween at Allen Cafe / Allen House / 2014 Oct. /
Photo by Allen House RA



Songdo's GOD Talent / C.S. Kang Chapel / 2014 Dec.



Allen Christmas Party / 2014 Dec. /
Photo by Allen House RA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Korean Language & Literature
- 중어중문학과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 영어영문학과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 독어독문학과 German Language & Literature
- 불어불문학과 French Language & Literature
- 노어노문학과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 사학과 History
- 철학과 Philosophy
- 문헌정보학과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 심리학과 Psychology

국어국문학과

| 윤성환(05학번)

KOREAN LANGUAGE & LITERATURE

국어국문학을 배우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세계를 향하는 것!
자랑스러운 국어국문학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 국어국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요즈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번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어국문학도를 지망하는 여러분에게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국력의 성장과 한류 바람으로 인해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인 'TOPIK'에 응시하는 국가와 외국인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¹⁾ 국어국문학과, 특히 국어학 분야에서 이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고 한 나라의 문학은 그 나라의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와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제대로 배운다는 것을 뜻해요. 국어국문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정의하죠. '기술의 시대'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 시대에는 국어국문학을 배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이예요. 문화의 힘은 국력에 비례합니다. 서구 문화나 일본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것도 결국 그들의 국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 국어국문학도 발전할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대한민국. 국어국문학의 미래도 분명 어마어마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국어국문학과의 세부 전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국어학** : '말'과 '언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흔히들 '문법'이라 생각하지만,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국어학은 여러분이 그저 달달 외우기만 했던 '문법'현상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밝히는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PD, 기자, 국어학연구자, 교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 등 말과 글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진출이 활발합니다.
- **현대문학** : 근대 이후 한글로 쓴 문학에 대해 배웁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들이 많아요. 권위적 문학 해석에 대한 단순 암기 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참신한 해석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비평 수업이 주가 되지만 소설 쓰기, 시 쓰기 같은 실습 과목들도 있습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성,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주는데 문학만한 공부도 없어요. 문학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많이들 간과하죠)입니다. 유수의 문학가를 배출함은 물론 언론계 진출이 활발하며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 **고전문학** : 근대 이전, 한자로 되어있거나 한글로 쓰인 문헌을 연구합니다. 고전문학을 통해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 문화를 모두 파악할 수 있기에 '전통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어요. 현대 사람들은 본 적도 없는 과거를 상상하여 재구성하는 역사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해요. 주로 연구를 많이 하며, 한국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1) 1997년(첫 해) TOPIK 응시자 : 4개국, 2,692명 2011년 TOPIK 응시자 : 46개국 164개 지역, 117,000명(추산)



URE

Q&A

국어국문학과에 가려면 국어를 잘해야 하나요?

잘 하면 좋지만, 국어능력은 후천적으로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열린 사고'가 국어국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어국문학과를 나오면 정말 취업이 어렵나요?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은 어디에 취직하든 매우 필요한 능력입니다. 거기에 문화적 창조력까지 더하여 경영학 혹은 여타 응용학문을 이중전공하면 기업에서도 상당히 채용하고 싶어 하는 인재가 되겠죠?

일반 기업 취직은 물론 언론사 진출도 활발합니다. 언론사 입사에 있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논술, 작문 등의 '글쓰기' 능력이고 '말하는 능력'입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국어국문학과 졸업생들이 언론, 홍보 분야로 진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읽다가 감동하거나 재미를 느낀 누구나 국어국문학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언어 능력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완전 달라요.

문학 쪽에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은 반면에 언어학 쪽에는 '꼼꼼한 모범생' 스타일이 많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어떤 친구라도 환영이에요. '열린 마음'만 갖고 오세요!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영화와 문학, 시 쓰기, 소설 쓰기, 남북한문학읽기, 현대작가 연구, 훈민정음강독,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국어방언학, 사회언어학, 한국구전이야기의 탐색, 한국의 노래, 고전시가 읽기, 고전문학과 공연예술, 고전소설과 판소리 등

졸업 후 진로

- 교수
- 작가(소설 시, 희곡 등)
- 언론인(기자, PD 등), 광고, 홍보 계통
- 국어교사
- 문화계 업종 종사자
- 일반 기업 취직
- 학원 강사(최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 급증)

Plus+

일제시대, 극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려 했던 아름다운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유서 깊은 학과가 바로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중앙도서관 앞에 동상이 되어 사시사철 앉아 계신 백낙준 전 총장도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랍니다.

저는 연세 국어국문학과에 열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운동주 시비에 찾아가보는 것을 추천해요. 운동주 시비 바로 뒤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실제로 운동주가 살았던 옛 기숙사 건물입니다. 밤마다 나와 예쁜 학교 전경과 함께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히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청년 운동주의 감성을 느껴보는 것,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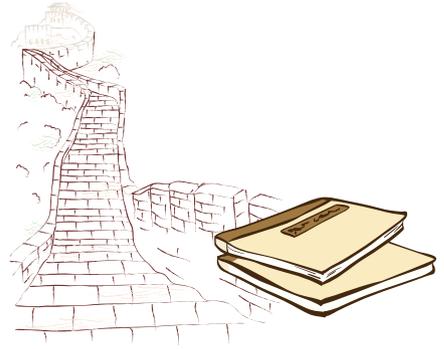
중어중문학과

| 하은혜(08학번)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중국'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올림픽을 치러내며 세계적 도시로서 날로 그 위상을 더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궁궐 자금성과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 만리장성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그리고 항구,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엄을 자랑하는 상하이. 시선(詩仙)이라 불리며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지금까지 추앙되는 이백과 고희적 동양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탕웨이까지.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가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거대한 대륙 중국! 중어중문학과는 바로 중국을 향합니다.



■ 중어중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보통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같은 외국어문학부를 흔히 그저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만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냥 영어과, 중국어과라고 하지 않고 굳이 '문학'이라는 글자가 학과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제 중어중문학과가 무엇을 공부하는 전공인지 짐작이 되시나요? 중어중문학과는 중국 어학과 문학 지식을 함께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중국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하여 중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문학부분에서는 상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의 흐름과 그 안에서 주요 문학 장르, 작품, 작가들을 배우게 되고, 어학부분에서는 중국어의 발생부터 현재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의 음운, 문자, 어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어의 구조를 정확히,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수준별 말하기, 듣기, 쓰기 수업을 통해 보다 더 실용적인 중국어를 배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전과 현대, 어학과 문학 어느 한 쪽에도 과하게 치우쳐 있지 않은 균형 있는 배움을 통해 중국

어학, 문학은 물론이고 중국의 문화, 역사까지 깊고 넓게 이해하여 진정한 중국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중국 현지에 나가서 살아있는 중국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들 역시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Q&A

중국어를 잘해야지만 중어중문학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은 개인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중국에서 몇 년씩 살다 와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살면서 중고등학교 때 배웠거나 개인적으로 배워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중국어의 기본조차 모르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한 마디도 할 줄 몰랐던 친구들도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와서 중국어를 익혀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URE

그러니 나는 지금 중국어를 못하니 중어중문학과에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좋아요. 더욱이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중어중문학과에서 어학만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중국어를 모른다고 해도 한국인 교수님이 한국말로 강의하시는 문학수업을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입학한 후부터 공부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HSK(한어수평고시) 자격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대학의 입학전형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답을 할 수 있겠네요.

다만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일단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중국어에 대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저는 중국문학, 중국어, 중국문화 등 중국 전반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 와서 좀 더 체계적이고 깊게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중어중문학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혹은 아직은 중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중어중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대륙의 기상을 느끼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며 중국을 알아보고 싶다는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과목들을 크게 구분하면 문학, 어학, 중국어로 나뉩니다. 먼저 문학 분야는 다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뉘어 전체적인 문학사의 흐름을 살펴보기도 하고 시, 소설, 희곡 같은 구체적인 문학 장르와 작품,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하는데 중국 고대 문학사, 중국 근세 문학사, 시경, 당시, 중국 산문선독 등의 과목들이 있어요. 어학 분야에서는 한자 형태를 연구하는 문자학, 음을 연구하는 음운학, 구조를 연구하는 문법 등을 심도있게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 과목들로는 한자론, 중국어 음성학, 중국실용교육어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학 분야가 중국어의 이론적, 구조적 측면을 배우게 된다면

마지막 중국어 분야에서는 수준별 단계를 통해 실용적으로 중국어를 익히고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초급 중국어 쓰기, 중급 중국어 말하기, 고급 중국어 듣기, 비즈니스 중국어, 실용 중국어 같은 과목들이 그것입니다.

졸업 후 진로

- 외국어문학 전공자
- 지역 전문가
- 교수, 교사
- 일반 대기업
- 은행, 금융계통
- 외국계기업
- 방송계, 통·번역, 외교관 등

Plus+

저는 사실 중국어가 재밌고 좋다는 이유 하나로 중문과를 선택했었습니다. 바깥 말하면 처음엔 중국 문학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죠.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점점 중국 문학의 아름다움과 문화, 사상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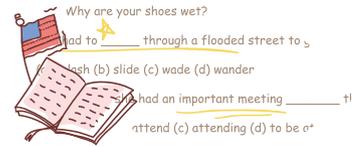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나라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통해 동양적 미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를 가진, 그리고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중어중문학과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영어영문학과

| 전아영(10학번)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영어영문학과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학과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과의 이름을 듣고 '영어를 배우는 학과' 라는 뚜렷한 인상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영어영문학과는 '영어만을 배우는 학과' 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영어영문학과에 대한 인식이 정말 사실과 일치할까요? 영어영문학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영문과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어영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영어를 정말 잘하겠네요'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문과가 되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과에서 막연하게 '영어를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문과에서 '영어만' 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배우는데, 바로 '영어학', '영문학' 그리고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영어를 잘한다' 는 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 즉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분야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영어를 공부한다'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도 바로 이 파트입니다. 따라서 영문과를 전공하였다고 해서 모두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문과에서 배우는 세 가지 분야 중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를 깊게 공부할 경우, 또 자기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영어 실력을 연마할 경우에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분야인 영문학과 영어학은 무엇을 배우는 분야일까요? 우선, 앞서 말했듯이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과 '영문학, 영어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영문과에 가려면 영문법을 잘 해야 하나요?'라는 것인데, 수업 중에 직접적으로 영문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영어학은 영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영문학은 영어로 된 문학을 읽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영어로 된 텍스트를 다루고 영어 원서로 된 시나 소설을 접해야 하므로, 도구로서의 영어를 제대로 습득한 상태로 공부해야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은 아무래도 영문학보다는 영어학 쪽일 것입니다. 영어학은 영어를 '언어학'으로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라는 하나의 언어에 대해 넓고 깊게 분석하게 됩니다. 무엇을 분석하느냐고요? 영어의 음, 단어, 문장 구조, 문장의 의미와 사용 용법 그리고 영어의 역사 등을 분석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다루게 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영어학의 세부 분야는 음성학,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영어 역사, 영어교육 등입니다. 이 각각의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영어에서 사용하는 음의 종류와 발음 방법, 단어를 구성할 때 음이 배열되는 규칙, 영어의 통사 구조, 문장 차원에서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합니다.

한편, 영문학의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영어로 쓰인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즉 시, 소설, 희곡, 산문 등을 원문으로 직접 읽은 뒤 그것을 분석하고, 스스로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문학 공부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텍스트를 넓고 깊게 이해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효과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깊은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안목으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URE

Q&A

영어를 잘 해야만 영문과에 갈 수 있나요?

앞서 말했듯이, 영어학이나 영문학을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어학이나 영문학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능력과 학문적 흥미가 필요하고, 영문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과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영어에 자신이 없다고 해서 영문과에 오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영문과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만 영문과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권장해드리고 싶은 것은 영문과에 오기 위해 영어를 뛰어나게 잘할 필요는 없어도 영어를 '좋아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텍스트를 끊임없이 접해야 하고, 수업 중 영어로 글을 쓰거나 영어로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어를 좋아하지 않고 다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문과에 오게 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영문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를 갖게 되나요?

영문과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진로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대학 생활 내내 영어로 된 텍스트를 접하고 영어를 다루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진로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진로를 택하는 데 있어서 큰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확하게 지정된 진로들이 없다는 점에서는 학생들에게 불안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백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대학 생활 내내 영어와 아주 가깝게 지내야 하므로,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로 된 텍스트를 제대로 접해보고 싶다면 영문과에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은 그야말로 '언어'를 깊게 공부하는 것이므로 언어를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하는

데에 흥미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영문학과 관련해서는, 일단 문학을 좋아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의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여러가지 분야에서 분석하고 비평해 보는 일에 흥미가 있다면 영문과에 오면 매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영어학**: 영어학입문, 영어발달분석, 영어담화분석, 영어변천사, 대화분석의 기초, 영어교육론, 영어음성학, 영어구조론 등
- **영문학**: 영문학입문, 영국문학개관, 미국문학개관, 19세기 미국소설, 셰익스피어, 낭만주의문학 등
-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영어**: 영어글쓰기1·2, 영어 말하기와 토론, 고급영어글쓰기, Career development skills and strategies 등

졸업 후 진로

교수, 교사, 통역사, PD, 기자, 아나운서, 번역가, 작가, 기업인, 국제 기구 종사자, 언론, 출판, 방송인 등

Plus+

영문과에 들어오고 싶다면, 평소에 영어로 된 소설책이나 텍스트를 많이 접해보면서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문법 하나를 더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 영어권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영어 원서를 재미있게 읽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 영시

윌즈워드(William Wordsworth) - *My heart leaps up*

독어독문학과

| 정혜원(09학번)

GERMAN LANGUAGE & LITERATURE

문과대학은 외국어문학과와 인문학부로 나누어지는데요, 독어독문학과는 외국 문학을 배우는 외국어문학부에 속합니다. 외국어문학부에는 영문, 독문, 불문, 중문, 노문(러시아) 이렇게 다섯 개 학과가 있어요. 다섯 개 학과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학을 통해 그나라의 문화와 역사, 사회 등을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학과에서는 알 수 없는, 독어독문학과에서 실제로 배우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독어독문학과를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독일하면 맥주와 소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독일은 맥주 외에 철학과 음악으로도 유명합니다. 니체, 칸트, 헤겔 등은 모두 독일 철학자들이고요, 음악가 베토벤과 바흐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독일은 세계 최고의 철학, 신학, 음악의 중심지로 유명합니다. 또, 순수학문 외에 물리학, 화학,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기도 하죠. 자동차회사 BMW나 Mercedes-Benz 등을 떠올리면 쉽게 수긍이 되죠? 이렇게 독일은 사회·문화·기술·경제 전반에 걸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어독문학과에서는 단순히 독일문학과 독일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독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목표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어는 독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같은 국가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독어독문학과라고 해서 꼭 '독일의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로 쓰인 문학작품이나 독일의 주변국가에 대해 배우기도 하면서, '독일어문화권'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어와 '독문학'을 배우으로써, 독일어 문화권의 문화·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통찰하는 시각을 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일어 문화권의 다양한 국가의 사회나 문화 등을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현재 유럽 속 독일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을 키워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 당당한 유럽 전문가, 독일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독어독문학과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이 통일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유럽의 중심이 되었고, 유럽연합으로의 결속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명실상부하게 유럽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앞으로 독어독문학과에서 배우는 지식에 대한 수요와 그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Q&A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하려면 독일어를 잘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독어독문학과라고 해서 꼭 입학하기 전부터 독일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입학과 독일어 실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독어독문과에 입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독일어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학과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개개인의 노력과 열정만 있다면, 전공수업을 듣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걱정하지



URE

마시고 독일어와 독일문학, 어떤 것이든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독어독문학과로 오세요!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나요?

독일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진로를 선택하신다면, 전문 통역사, 번역사가 있고요, 독일이나 유럽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역전문가로서 유럽/독일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독일 유학을 통해 교수가 될 수 있고, 독일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겠죠. 실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계 대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앞서 언급했던 자동차 회사에서부터, 제약회사 바이엘, 의류회사 아디다스, 우리가 유럽으로 떠날 때 이용하게 되는 루프트한자 항공사 등등. 이러한 독일계 대기업 입사에 관심이 있다면 독어독문학과에 오시는 게 좋겠죠? 입사 시에 독일어 구사 능력에 가산점이 있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더 쉽겠죠.

그러나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반드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직업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학'을 배우는 것은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고 그와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느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든지 그 선택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특히나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에는 언론계나 방송계로 진출한 선배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언론계나 방송계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고려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독어독문학과를 지원하는 데 어떤 특별한 적성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언어에 대한 감각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으면 좋습니다. 역시 외국어를 배우는 학과인 이상 '외국어 습득'을 즐기는 학생들이 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비록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 큰 관심은 없더라도 먼저 '문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도 독어독문학과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독일 문학에 관심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저 문학에만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도 독일 문학을 접하게 된다면, 독일 문학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독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독일어의 언어적 특징이나 문법 관련 수업** : 독일학의 이해, 독문법의 이해 등
- **문학 관련 수업** : 독어독문학의 이해, 최근 독일문학 동향, 헤르만 헤세의 문학 세계 등
- **사회·문화 관련 수업** : 독일 지역학
- **원어민과의 회화 수업** : 독어 연습(1)~(6), 이 외 독일어 인증 시험 준비 수업

졸업 후 진로

- 전문 번역가
- 전문 통역사
- 일반 대기업 및 독일계 기업
- 교사 및 교수
- 문화/문학평론가, PD, 기자 등

Plus+

독어독문학도가 된다면, 독일 문학 작품 하나 정도는 읽어보는 게 좋겠죠?

저는 파크리트 쥐스킨트의 「향수(das Parfum)」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의 문학 작품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아서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냄새에 관한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 그르누이가 향기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기상천외한 이야기라, 폭 빠져들어 단숨에 읽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소설은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책과 영화 둘 다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문학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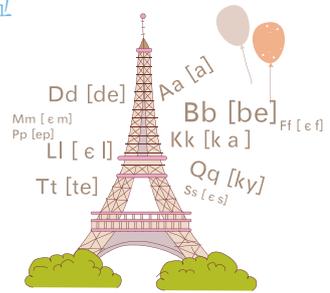
불어불문학과

| 홍인혜(08학번)

FRENCH LANGUAGE & LITERATURE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 (거기에는 모든 것이 질서와 아름다움)
 Luxe, calme et volupté. (사치와 고요, 그리고 관능 뿐)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보들레르(Baudelaire)의 시, <여행에의 초대(L'invitation au voyage)>의 한 구절입니다. 보들레르가 아이처럼 사랑스럽고 누이처럼 편안한 연인을 질서와 아름다움, 화려함, 고요, 그리고 관능으로 가득한 세계로의 여행으로 대하듯 프랑스 문학과 프랑스 어학에 대한 강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드럽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을 전세계 500만 명이 사용하는 UN 국제 공용어, 예술가의 혼을 닮았다는 아름다운 언어, 부드러운 울림 속에 뜨거운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프랑스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 불어불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프랑스 대학명을 통해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했던 나라인 프랑스는 언어학 분야의 혁명을 이끈 현대 언어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소쉬르가 '언어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세우고 난 뒤 프랑스 출신의 많은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현대 언어학의 기초를 이룬 이론들과 기호학의 기본 개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단테, 독일에는 괴테가 있지만 프랑스는 모든 국민들이 작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빛으로 바위에 시를 새긴 중세의 이름 없는 음유시인부터 알베르 카뮈, 시몬 드 보부아르처럼 누구든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대작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모두가 철학자인 프랑스의 수많은 작가들은 매 시대 문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문학 작품이든 모두 소중하지만 프랑스의 문학 작품은 바로 이 다채로운 개인성 덕분에 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학 작품들이 시대정신을 담아낸 대문호들의 문학이라면, 프랑스 문학은 다양한 색을 가진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만들어 낸 커다란 시대정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고갱의 텅어리진 그림보다는 쇠라의 모자이크를 닮은 문학, 저 혼자

환하게 빛나는 거성보다는 수많은 작은 별들이 모여 부드럽게 흐르는 은하수를 닮은 문학이 바로 프랑스 문학입니다.

■ Q&A

불어불문과에 진학하려면 프랑스어를 잘 해야 하나요?

아니요,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도 괜찮아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이 프랑스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는 학회, Etrangers에서는 학과의 도움을 받아 조교님들에게 문법과 독해 수업도 받고 원어민과 회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함께 프랑스 영화도 보고, 프랑스 문화 체험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프랑스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다함께 공부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불어불문과에 진학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적 감수성과 언어를 머리 속에 그릴 수



URE

있는 논리력, 그리고 한 줌의 상상력을 갖추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 나가려는 호기심과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서 공부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와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프랑스어라는 언어의 과학적 구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환영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의 언어학 커리큘럼은 현대 언어학의 분류에 따라 세분화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어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어학의이해'를 통해 언어학의 기초를 다지고 난 후 '프랑스어 문법과 작문', '프랑스어 문법 연구', '프랑스어 어휘 형태', '프랑스어의 의미', '프랑스어의 구조', '프랑스어 문장 연구', '프랑스어 텍스트 담화 연구' 등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언어학의 경우에는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프랑스 언어학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언어학 연구의 대체적 경향이 개별 언어에 대한 보편 문법의 적용과 비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어불문학과에서는 프랑스 문학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 때로는 단편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공부를 합니다. 전공 필수 과목인 '프랑스 문학의 이해'에서 프랑스 문학의 특징과 그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나면 '프랑스 근대소설', '프랑스 사실주의소설', '프랑스 현대소설', '프랑스 상징주의시', '프랑스현대시', '프랑스 고전비극', '프랑스 현대연극', '프랑스 산문 강독', '프랑스 문학비평' 과 같은 과목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별에 망원경의 초점을 맞춰 프랑스 문학작품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가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알알이 박힌 다이아몬드들이 만들어내는 별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도 있으며, 별을 보고 영감을 얻는 예술가의 마음으로 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분야들을 함께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어불문학과에서 함께 읽는 프랑스 문학작품들은 조근조근 속살대는 모든 개인들의 목소리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의 마음속에 인문학적 감수성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외에도 '프랑스어외문화', '신문방송프랑스어', '번역이론과실제', '프랑스어회화', '프랑스영상예술' 등의 수업이 개설되며, 정규 수업 말고도 'Club du Cinema', 'Etrangers' 등의 학회 활동, 프랑스 Angers에 있는 l'Universite Catholique de l'Ouest와 연결되는 방문학생 프로그램(VSP)은 불어불문학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불어불문학과 동문들은 대학 교수, 문인, 기자, 문화사업가, 방송사 PD, 대기업, 무역업, 관광업, 금융회사 직원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동문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문·사회, 예술, 패션, 와인산업, 요리 등 문화사업 분야에서 프랑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프랑스어권인 북아프리카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프랑스어 사용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불어불문학과 동문들은 전세계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고 있기도 합니다.

Plus +

보들레르나 아폴리네르의 시 몇 편을 읽어보세요. 까뮈나 위고의 작품도 읽어보시구요. 르누아르와 고다르의 영화도 몇 편 보세요.

그리고 심장이 쿵다쿵다 뛰다면, 달콤쌉싸름, 폭신폭신 브라우니처럼 맛있는 수업, 폭풍수다로 날 새는지 모르는 개강 총회와 종강총회,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다함께 다녀오는 럭셔리한 MT, 다이내믹한 학회활동,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아롱질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에서 여러분만의 보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어노문학과

| 여승은(10학번)

RUSSIAN LANGUAGE & LITERATURE

문과대학에는 소위 문(文), 사(史), 철(哲)이라 불리는 학문들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노어노문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노어노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노어노문학과는 '노(露)'는 러시아입니다. 즉, 러시아와 관련한 학과임을 알 수 있겠지요?

먼저 노어노문학과는 크게 노어학과 노문학으로 나뉩니다. 러시아어학(노어학)은 일상 러시아어 회화는 물론 비즈니스 러시아어, 러시아어 독해, 그리고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학 전반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어 문학(노문학)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뿐만 아니라, 그 문학작품을 기반으로 한 영화, 연극 등의 연구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노어노문학과에서는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도 다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만큼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는 동양에서 서양을 가로지르듯 매우 다채로운 특성을 지닙니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문화를 딱딱한 이론만이 아닌 실제로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역사 역시 외워야만 하는 어려운 공부라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러시아어 하면 알아볼 수 없는 어려운 언어, '-스끼' 로 끝나는 언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들 러시아어를 어렵게 느끼는 것은 러시아어가 영어와 같은 라틴문자를 쓰지 않고, 발음 역시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러시아어와

Как Вас зовут?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вечер.

Как поживае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Рад тебя видеть!

Как дела?

Неплохо!

Спасибо, прекрасно!

Меня зовут...



영어는 모두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만, 러시아어는 동인도 유럽어족에 해당하는 반면 영어는 서인도유럽어족의 대표적인 언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많은 언어들이 이 서인도유럽어족 언어들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러시아어는 어려운 언어이기보다는 '배울 기회가 없었던 언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따라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자신만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과 문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러시아에는 많이들 떠올리는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도스토옙스끼, 푸르케네프, 뿌쉬킨, 첸호프 등의 대문호들이 즐비하고, 발레, 연극 등의 예술 분야가 번성 하였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서 국제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원이고, 우리나라와도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인 2015년에는 한-러 수교가 시작한 지 25주년을 맞이 하는 중요한 해였죠!

이렇게, 가깝지만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러시아의 언어, 문학, 문화 등 러시아 전반과 관련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노어노문학과에서 여러분의 큰 꿈을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TURE

Q&A

노어노문학과에 가려면 반드시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어노문학과에서는 기초 러시아어에서 중급 러시아어, 고급 러시아어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러시아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도 기초 러시아어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충분히 러시아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노어노문학과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초, 중급, 고급 러시아어 회화 수업뿐만 아니라, 독해 수업도 동시에 이루어 지므로 문법, 회화, 독해에 이르는 전반적인 러시아어 공부가 가능합니다.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지니고 있고, 동아시아 및 유럽 지역과 지리적으로 맞닿은 러시아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은 러시아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는 러시아와 관련된 일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기구, 문화 분야, 무역, 통역/번역, 항공, 자동차, 패션 등에 이르는 모든 영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겠죠!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러시아,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문화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러시아나 러시아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러시아 문학과 문화에 대한 궁금증들은 노어노문학과 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답니다! 또 러시아의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초급, 중급, 고급 러시아어
- 러시아 어학의 이해, 러시아어 사전학
- 슬라브 세계와 언어
- TORFL 러시아어, 커리어 러시아어, 비즈니스 러시아어
- 러시아 역사와 문화, 러시아어의 어제와 오늘, 러시아 문화체험
- 러시아 공연 예술, 러시아 비주얼아트
- 러시아 문학의 이해, 도스토프스키

졸업 후 진로

- 국제기구의 러시아 관련 분야 연구원
- 언론사의 해외 특파원, 국제부 데스크
- 대기업(무역, 항공, 자동차, 패션, 금융, 법률 등)
- 출판사
- 전문 통/번역
- 교직(중고등학교 교사, 교수 등)

Plus+

노어노문학과는 러시아어학, 문학, 문화와 관련한 공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가능성을 가장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증시되는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러시아와 관련한 것들을 공부하고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될 것인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러시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어노문학과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다른 전공보다도, 사학과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도 될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듯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를 논하는 역사학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실용적이지 않은 학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점점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 회사에서 선호하는 전공도 아닙니다.

세계의 우수 기업가들이 자신의 자제를 사학과로 진학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사학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 사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사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당황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극을 같이 보던 누군가가 “저거, 맞아요? 이 사건은 몇 년도에 있었던 건가요?”와 같은 질문을 할 때이지요. 사학과 학생이라면 당연히 역사 속 사실, 사건을 달달 외우고, 백과사전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오해합니다. 물론 사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역사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학과에서 모든 역사 사건을 외우는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역사학에는 과거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도 기초적으로 포함되지만, 그보다도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관점에 대한 고민과 탐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역사학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아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학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진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과거의 일을 살펴 보면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남겨진 제한된 흔적인 사료를 통해서 퍼즐을 맞춰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실, 인물들을 전체를 통찰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읽어내고, 나 스스로의 관점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이 사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읽어냄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역사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학문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는 1977년에 세워진 연희전문학교의 문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였던 당시에 금지되어 있던 조선인들의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연구에 앞장섰던 연희전문

학교의 전통이 내려오고 있지요. 특히 연희전문학교 사학과와 정인보, 백낙준, 손진태 선생님 등은 일제의 식민사학에 맞선 민족 사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세대 사학과와 가장 큰 특징은 민족사학이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와 연구와 관심은 더 나아가 민족과 한국이라는 국가만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여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아시아사적 관점으로 일국가적인 역사인식을 넓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사회사의 보다 다양한 방법론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도가 서양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 Q&A

사학과라면 대학마다 다 비슷하지 않나요?

각 대학의 사학과가 큰 틀은 비슷할 수 있지만 학교마다 분위기와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사학과에서 해왔던 학문적인 업적들, 현재 재직하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성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전공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정하기를 권합니다. 연세대 사학과와 가장 큰 특징은 동양사, 서양사, 한국사의 세 개 분과가 하나의 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다른 대학의 경우 한국사가 별도의 학과로 분리되어 있거나, 이 세 개의 분과가 모두 개별 학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세대 사학과와 경우 이 세 분과가 하나의 전공으로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시대별로 골고루 전임교수님이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의 사학과보다도 폭넓고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부생의 경우,



처음에는 다양한 분과의 수업을 듣다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세부 전공을 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세부전공을 중심으로 다른 세부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학과에서는 답사를 간다는데, 답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세대 사학과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봄과 가을에 정기답사를 떠납니다. 주제에 따라서 각 도별로 번갈아 가면서 답사를 떠납니다. 답사를 통해 책에서만 보았던 장소에 직접 가서 그 공기를 느끼고, 사진 속 유물을 실제로 마주합니다. 답사를 가기 전에 답사장소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답사자료집을 만들고, 답사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해보고, 교수님의 현장 설명도 듣습니다. 그 속에서 같은 장소에 살았던 이전의 많은 사람들을 피부로 느끼고 되짚어보면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또, 학과 동기, 선후배가 모두 함께 하는 답사에서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며 부대 끼면서 서로를 보다 많이 알게 되고,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느낌이 좋아서인지 졸업한 후에도 답사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다시 갈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 역사 과목에 흥미가 있는 사람
- 옛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사람
-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각의 기초를 갖고 싶은 사람
-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의 연원을 탐구하고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은 사람
- 한 마디의 말, 그림, 표시 속에 숨은 의미를 읽어보고 싶은 사람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연세대 사학과에서는 수업이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의 큰 범주 안에서 각 지역의 시대와 영역을 골고루 배치하면서 열립니다. 기본적으로 역사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알아보는 '역사학입문'

수업과 각 분과의 역사학에서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 살펴보는 입문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시대에 따라 국가별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수업들이 열립니다. 이러한 기초 과정과 함께 영화, 지도, 미디어, 책과 같은 하나의 소재를 잡아서 수업이 진행되거나, 여성, 사상, 생활 모습과 같이 특정 분야를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심화 수업들이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지금까지 사학과를 졸업한 많은 선배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 연구소, 박물관 등에서 연구를 계속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교직 이수 후에, 일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언론에서 기자, PD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니다. 출판사에서 많이 일하시구요. 그 외에 일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 세상의 변화를 탐구하는 역사학의 넓은 폭 만큼이나, 사학과 졸업 후의 진로도 하나로 정의하기 힘들 만큼 매우 폭넓습니다. 과거 인류의 지나온 길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배우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역사학은 기초학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Pl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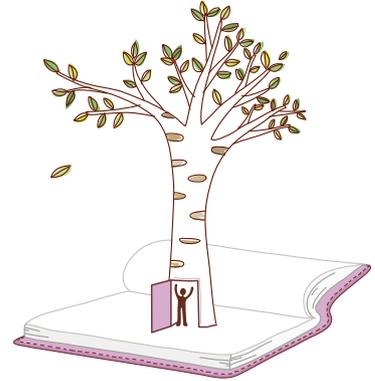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만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은 모든 것의 '종결자'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대학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 삶의 시작점입니다. 사회에서 부여하는 전공에 대한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작점에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가고, 준비해 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에 따라 대학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학과는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 나갈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철학과

| 서동현(04학번)

PHILOSOPHY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문제 삼는 유일한 학문'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의 역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궁금증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등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곧 철학이죠. 다른 학문들도 역시 이러한 궁금증으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철학을 모든 학문의 뿌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에 대해 알아봅시다.



■ 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이러한 철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사람은 우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경이로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만약 그것이 익숙한 것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리겠죠. 하지만 철학적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익숙함에 가려진 존재의 신비를 놓치지 않습니다. 경이로움을 간직한 채 바라보면 발 밑에 놓인 흔히 보던 돌맹이도, 나무에 매달린 잎사귀 하나도 아찔한 신비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왜 하필이면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세상이 주는 경이로움이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보려는 욕구로 승화되어 철학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은 경이로 인하여 철학을 시작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것에서 신기함을 느끼는 마음을 지니고, 그것을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자세로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철학을 전공으로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 전공에 맞는 또 다른 적성의 하나는 바로 비판적인 자세입니다. 흔히들 비판을 좋지 않은 뉘앙스로 받아들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어떤 상황, 의견 등이

주어졌을 때 이를 그저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해 부모님께서 '그건 그냥 원래 그런 거야'라고 하실 때라든가 신문에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때 도저히 그것을 있는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가슴 속에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자기만의 의견을 내보려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철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A

철학 공부는 어렵지 않을까요?

철학에서는 다른 과목에서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배라치기 공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철학 전공 공부를 잘 할 수 있죠.

철학은 정해진 답이 아니라 철학 사상에 대한 이해력과 자신의 독창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사유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철학 전공에서는 학업 성취도를 주로 글로써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유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로 옮기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처럼 교과서의 시험범위에 있는 것들을 암기해서 옮겨 적는 방법으로는 절대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전공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하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 각자 생각한 바를 토대로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하는 것도 가장 효과적인 철학 공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전공서적을 붙잡고 씨름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자신의 사유를 활성화시킬 때 더욱 많은 것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느낄 수 없는 재미도 덩어리 가져갈 수 있죠.

이에 덧붙여 또 한 가지 철학 전공 공부를 잘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철학을 즐기는 자세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철학적인 자세를 잃지 않은 채 흥미를 갖고 탐구한다면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철학적인 소양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글쓰기 실력, 논리적 사고력, 토론 능력 등은 철학 공부를 할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움이 될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물론 언어 능력, 논리적 사고력, 토론 능력 등 그 밖에도 철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여러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들은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습득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철학계의 소문난 천재 비트겐슈타인도 '철학하기에 충분히 좋은 머리는 없다.' 라고 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만 지니고 있다면 철학적 소질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서양철학의 이해** : 서양철학입문 과목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주요 신화와 철학자들의 사상을 이해하는 과목
- **동양의 가치와 철학** : 동양철학입문 과목으로 주로 중국의 고대

사상가들의 저서와 주요 문헌들을 통해 동양의 근본과 바탕을 이해하는 과목

-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서양학문의 기반을 닦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저작들을 통해 자연세계와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하는 원리들과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
- **칸트철학** : 근대 철학을 집대성한 칸트의 주요 저서를 바탕으로 고대, 중세와 구분되는 근대성과 현대 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탐구하는 과목
- **현대철학의 문제들** : 실존주의, 구조주의, 비판이론 등 현대철학의 주요 분류들을 통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과목

졸업 후 진로

대학원 진학을 통해 꾸준히 학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학, 비평,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추가적인 준비를 통해 외국계 컨설팅 펌에도 입사하는 등 철학도에게는 인간을 중심으로 상황을 다각적,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습니다.

Plus+

철학 공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철학의 고전들을 학창시절 틈틈이 읽고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비판대에 올려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대학에서의 강의가 몇 배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문헌정보학과

| 이보은(10학년)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마 수백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지식' 과 '정보' 일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오늘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며, 동시에 최고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식정보를 다루는 능력'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는 학문,
바로 '문헌정보학' 입니다.



■ 문헌정보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문헌정보학과'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문헌'이라는 단어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로 된 고문헌들을 연구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책 속에 파묻혀서 책 읽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번엔 문헌정보학과의 영문 학과명인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보세요.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나요? 도서관과 정보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문헌정보학은 정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서관학'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인터넷과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을 모두 글로 써서 '책'의 형태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놓은 곳이 바로 도서관이었죠. 그러니까 도서관은 정보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고, 가장 활발하게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찾으면서 답을 찾았죠.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명되고 상용화되면서 지식과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학교 숙제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도서관에 가나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나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겠죠. 훨씬 간편하니까요. 이렇게 정보라는 영역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서관학' 라는 이름에서 좀 더 포괄적인 '문헌정보학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문헌정보학은 다른 학문들과 관련이 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통계학, 사학, 국문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를 통하여도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죠. 그렇다면, 문헌정보학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 일까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나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원하지 않는 정보나 전혀 관계없는 정보들이 결과로 나온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은 검색 결과가 지나치게 많아서 여러분이 정확히 원하는 정보를 찾다가 지쳐서 짜증내며 인터넷 창을 꺼버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문헌정보학과는 이렇게 '정보의 바다'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갖가지 정보가 넘쳐 흐르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보 전문가' 를 육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

Q&A

■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사서만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헌정보학과 졸업자의 주요 진로 중 하나가 사서이긴 하지만 사서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각종 정보관련 기업에 많이 취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검색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넣었을 경우 자동으로 생기는 자동완성 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메뉴 구성이나 위치 등도 이러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방송국, 각종 IT업계 등으로도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도서관 활동을 체험해 보신다면 실제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서도 정보 검색에 불편한 점 등에 대해 고민하면서, 문헌정보학이 생활 곳곳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보시는 것도 전공 공부에 참고가 될 거예요.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문헌정보학과의 매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기 좋아하는 친구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친구도 환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잘 조율할 줄 아는 친구가 오면 더욱 좋겠죠.

■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정보 이용자론, 뉴미디어, 정보조사제공론, 정보서비스평가, 학술정보커뮤니케이션, 기록관리론, 정보조직-분류·목록,

문헌정보통계, 학술정보네트워크기초, 웹인터페이스설계, 학술정보웹사이트구축론,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정보처리연습, 정보표준화론, 정보검색론, 디지털도서관구축론, 장서개발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원론·실제

■ 졸업 후 진로

- 전문사서
- 중·고등학교 사서교사
- 기업체 다큐먼트 매니저먼트
- 방송국·기업체·기관 자료실
- IT업계(삼성SDS, LG CNS 등),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 대학원 진학 후 학자의 길
- 기록관·박물관 등의 관리자

Plus+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전공을 고르는 게 힘들다고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전공이라는 것에 대해 별로 아는 것도 없었고 뭘 해야 좋을지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대학의 다양한 학과들에 대해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지 찬찬히 생각해보니 전공 선택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제가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인터넷에서 웹서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문헌정보학과'가 제게 한 발짝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가 대학교 전공 선택인 만큼,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즐길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지 꿈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과

| 김정렬(05학번)

PSYCHOLOGY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라고 묻습니다.
'혈액형별 성격차이', 많이 들어본 말이죠?
혈액형과 성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 이를 지지하는 심리학적 연구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을 고작 4가지로만 분류할 수는 없겠죠.
서점의 한 쪽 책장을 가득 채운 '무슨 무슨 심리학'이라는
책들도 연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프로이트도 심리학자가 아닌 정신의학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 심리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사고, 정서, 지각, 지능 등의 심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적 학문입니다. 심리학과에서는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개론 그리고 통계를 배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리학과에서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심리 치료 및 상담을 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만, 심리학의 영역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따라서 대학에 와서 심리학 입문 과목을 듣는 많은 학생들은 심리학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 상담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의 기능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뇌와 신경계는 어떻게 기능하는지,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고 보존되는지, 인간의 사고 과정은 논리적인지,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행동 및 정서는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 지능이나 성격은 어떻게 검사될 수 있는지, 전 생애에 걸친 인간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배웁니다. 통계 등의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것도 심리학 전공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가설 검증을 위해, 관찰, 실험,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해석 등의 과학적 방법을 배웁니다. 심리학과에서는 어떤 과학적 방법이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배우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 심리학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창조해내는 기초 심리 연구 과학자나 심리학 지식을 현실의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이 관계된 모든 분야에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관한 학문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인간 삶의 질과 관계된 문제들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과학적 mind를 가지고 인간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니입니다. 그냥 알고 있던 나와 내 주변인의 특성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심리학의 전공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포함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생리심리학'은 신경생물학적 구조와 과정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영역입니다. '지각심리학'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어떻게 수용, 처리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해석하는지를, '인지심리학'은 기억과정, 정보처리과정, 사고과정, 언어과정 등에 대해 연구합니다. '사회심리학'은 사회적 장면에서의 인간행동 연구, 태도와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의 영향을, '성격심리학'은 환경에 적응하는 개인의 고유한 양식에 관심을 가지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 등을 활용합니다. '학습심리학'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후천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변화되는 원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대표적인 연구로는 '파블로프의 개'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은 성장시기별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능력의 형성과 변화원리를 탐구합니다. '임상심리학'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연구하고, 그 진단과 치료에 심리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관여하는 '상담심리학' 분야도 있습니다. '학교심리학'은 어린 학생들의 학습문제와 정서적 문제에 발달, 성격심리학 지식을 적용하는 분야이며, '교육심리학'은 효과적인 학습법과 교수법을 연구합니다. '산업심리학'은 산업장면에서 조직의 효율성 증대, 광고의 효과증대 등을 연구하며, '공학심리학'은 인간과 시스템 사이의 가장 능률적이고 적합한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유비쿼터스 시스템 등의 개발 등에 관여합니다. '범죄심리학'은 범죄인의 정서상태 검사, 중독증 치료, 거짓말 탐지 등 범죄에 관련된 심리학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밖에도 심리학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지지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체계의 '실험연구방법론'의 영역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건강, 소비자 심리학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 심리학도로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학교, 임상, 발달심리 전공자는 교육계, 산업계, 의료계 등 공공기관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 산업심리학 전공자는 기업의 인사부나 광고회사, 정당, 연구소 등에서 직원 교육, 광고제작, 소비자 동향조사, 여론조사, 매스컴 효과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 지각심리학, 인지공학 등 실험심리학 전공자는 기업, 연구소에서 인간의 사고, 의사결정, 문제해결, 자연언어처리, 시각, 멀티미디어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를 하며 주로 소프트웨어개발, 제품디자인, 기계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부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리기 보다는 인사교육(HR), 마케팅, 광고기획 등 일반 직무에 종사합니다.

Plus+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로렌 슬레이터 저, 조증열 역, 예코의 서재), '심리학을 변화시킨 40가지 연구'(로저 R. 호크저, 유연옥 역, 학지사), '아웃라이어'(말콤 글래드웰 저, 노정태 역, 김영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빅터 프랭클 저, 이시형 역, 청아출판사)를 읽어보세요. 심리학 전공 분야 진로 탐색과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심리학 전공하기'(Schultheiss 저, 이현진 외 역, 페가수스), '심리학으로 밥먹고 살기'(한국심리학회 저, 삼성출판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심리학회(www.koreanpsychology.or.kr)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진학 및 취업정보, 심리학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이 되어있어 유용하니 꼭 찾아보세요!

College of Commerce and Economics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Economics

응용통계학과 Applied Statistics

경제학전공

ECONOMICS

| 신 진(09학번)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19세기 경제학자 Marshall, Alfred이 경제학에 대해 내린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까닭은 경제학은 사람이 먹고 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받은 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합니다. 떡볶이를 5천 원어치 사 먹고 나머지는 저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 원으로 몽땅 분식을 먹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 즉 효율적 선택을 하는 것이 경제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흔히 욕망의 학문, 선택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 경제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면 가장 효율적일까?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경제학은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을 내리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해야 하는 선택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경제학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대학 경제학 과정의 기초는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수식과 그래프를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소비자들의 행위, 판매자들의 행위, 그리고 국가의 경제정책과 외국과의 경제적 관계까지 분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국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은 물론이고 국제관계 역시 경제적 관점을 결여하고는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업 문제, 출산율 문제, 환경 문제, 소득격차 문제부터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국가 간 무역 마찰까지 경제학의 입김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지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제적 현상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제학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지요.

이처럼 경제학은 우리가 먹고 사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부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회현상을 다룹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은

우리 삶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존재이며 경제학의 범위가 곧 우리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A

경제학은 수학이 필요한 전공인가요?

네. 경제학은 치밀한 수학적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경제학 수업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학계에서 경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수학을 즐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입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경제학이 이론을 공부하고 현상을 분석하는 순수학문이라면, 경영학은 응용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경제학이 수학에 가깝다면 경영학은 통계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에서의 연구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국가의 바람직한 경제 정책, 세계 경제 질서 수립 등에 관한 거시적인 접근까지 상당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학은 소비자의 행동과 기업활동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분석하는 법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오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사회 탐구 '경제' 과목을 재미있게 배웠다면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지구력이 강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두각을 발휘하는 학과입니다. 성격이 매우 외향적이고 활동하기를 좋아한다면 경제학과 보다는 경영학과의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미시경제학** :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생활의 주체들 각각의 행동과 그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시장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배웁니다.
- **거시경제학** : 국민소득, 소비·투자·저축 등 미시경제학에 비해 좀 더 커다란 개념들을 배웁니다. 더불어 환율과 국제수지 등의 대외적인 개념들을 다룹니다.
- **계량경제학** : 경제문제를 수학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경제정책연구** : 정부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배웁니다.
- **재정학**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웁니다.
- **국제무역** :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무역을 통한 이익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이익이 나뉘는지 공부합니다. 또한 각종 무역정책 역시 배웁니다.

졸업 후 진로

- **금융계** : 세계적으로 금융 부문이 지배적인 이 시대에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것은 금융 현상을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증권 및 외환딜러나 펀드매니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율이나 이자율 등 각종 경제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부부처** : 정부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비경제 부처의 경우에도 경제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경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일반 기업** :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 기업의 운명은 더 이상 기업 내부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기업들은 세계경제와 국가 경제 전체의 움직임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의 기업가들은 기업 내부의 세부적인 경영에 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인 지식을 이용해 기업의 환경을 이루고 있는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계 및 연구기관** : 국내외의 모든 유명 대학들은 경제학 전공을 중요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학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외에는 정부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 그리고 기타 경제관련 연구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Plus+

경제학은 생각보다 만만한 학문이 아닙니다. 문과생들이 배우기에는 많은 수식과 그래프가 어렵고 지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활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꽃'인 만큼 자부심이 가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졸업 후 여러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장점도 있으니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응용통계학과

| 이수진(10학번)

APPLIED STATISTICS

여러분은 통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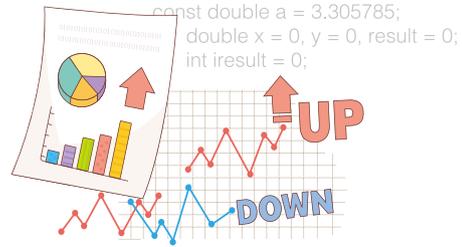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곳에서 통계가 쓰이고 있어요.

쉽게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통계 자료 중의 하나예요.

일반 기업에서도 통계를 사용하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통계를 사용하고 있지요.

학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응용통계학과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응용통계학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 응용통계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통계란 자연현상, 사회현상, 경제현상 등에서 얻어진 자료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우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통계라는 학문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응용통계학이란 무엇일까요? 응용통계학은 경영학, 의학, 생물학, 공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의 실제 문제에 대한 통계적 방법의 적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통계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통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를 위한 도구들과 통계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통계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흔히들 응용통계학과를 빗대어 '문과 속의 이과'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수학적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용통계학과에 들어오면 기초 과목으로 미분적분학과 선형대수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과 대학처럼 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그 속의 내용들을 증명해내거나 순수 학문으로써 그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분석을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분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은 이후 여러분의 통계적 분석 능력을 위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분석을 위한 진짜 도구인 분포, 그래프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그 가설이 믿어도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실제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손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통계 분석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응용통계학과에서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SAS, SPSS, R이 있는데, 각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특징들과 간단한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응용통계학을 배우으로써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길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A

통계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곳에서 통계를 찾아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이나 신문, 그리고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역시 통계가 쓰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통계청에서 하는 실업률조사나 인구조사 등이 있답니다. 그리고 통계 자료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입증할 때도 사용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도 통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 물건의 판매가 성공할 수 있을 지를 예측하는 데에도 통계적 조사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크기를 알아보고 판매를 시작했을 경우 수요가 얼마나 될 지 등의 전략을 세울 때도 역시 통계자료가 쓰인답니다.

앞으로 통계학과의 전망은?

위에서 설명 했듯이, 통계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통계학은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배웠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학문입니다. 특히,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언론학 등의 분야는 통계가 기반이 되어 그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하는 학문이어서 통계학을 전공한 이후에 많이 진출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통계학 자체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을 실생활에 응용해 보고 싶었거나, 그것을 즐기는 친구라면 통계학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 그 자체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통계학을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계학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알고리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통계학과에서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진로

- 금융 분야
(주식투자분석, 시장분석, 신용평가업무, 위험관리업무)
- 일반기업
(수요예측, 경쟁시장분석, 고객관계관리, 품질관리)
- 컨설팅
- 한국은행
- 통계청
- 금융감독원
- 리서치회사 등

Plus+

많은 사람들이 통계학과에 진학하기로 했다고 하면 힘들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보면 그 말이 진짜구나 할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하다보면 재미있는 전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만큼 얻게 되는 것도 많습시다. 특히 통계 프로그램을 잘 쓰게 되면 이후에 자신의 진로를 확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혹시 수학을 잘하고 알고리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라면 정말 통계학과에 잘 어울리는 친구일 거예요. 수학은 통계의 기반이고,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의 기반 이거든요.

아, 그리고 응용통계학과로 진학하기로 결심했다면 끝까지 수학적 감은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College of Business





YONSEI All - Ways+

경영대학

경영학과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과

| 권선연(09학번)

BUSINESS ADMINISTRATION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세계의 위대한 경영자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모두 친숙하죠? 이렇게 우리 사회 내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영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영학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과에 대해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히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영학과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곳인지를 보다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 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경영학과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기업최고경영자(CEO)가 되는 법을 배우는 학과'라는 것입니다. 경영학과 출신의 CEO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CEO는 엄격히 말해서 '직업'이 아니라 회사 내의 수많은 '직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과는 정말로 무엇을 배우는 곳일까요?

경영학은 20세기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로 하는 지식의 체계화와 이의 전달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독립한 학문입니다. 경영학의 연구 분야는 넓게는 국민 경제, 좁게는 회사에서 발생 되는 실제적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실제'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눈치 채셨나요? 즉, 경영학은 경제학의 응용학문으로써 회사를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실용학문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내부 요소와 외부 요소들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자금상황도 좋아야 하고, 제품의 품질도 좋아야 하고, 제품을 잘 알려야 하며, 소비자들이 기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책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경영학의 이론을 배우기도 하지만, 경영학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직접 여러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하고, 기업이 당연한 다양한 현실 속에서 어떤 운영 지침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현장감 있게 배우는 사례(case) 공부에 주를 이룹니다. 또한 경영학은 경제학, 수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 등의 다양한 학문들

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영학의 이론이 다른 학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 Q&A

경제학과랑 경영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경제에 기반을 두어 돌아가는 것이니만큼, 경영학은 경제 원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두 학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경제학은 이론학문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 이론을 심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반면에 경영학은 실용학문으로써 경제 이론을 배우기는 하지만, 경제학과에서만큼 심도 깊게 파고들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경제학 이론을 배우고, 실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공부 방법이 많습니다.

경영학과에 가려면 수학을 잘 해야 하나요?

경영학과를 비롯한 상경계열은 사회과학대학이나 문과대학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학적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정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온다면, 새로 배우는 수학 이론들도 습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크게 회계, 마케팅, 조직행동, 재무, 경영과학 및 생산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회계'는 기업의 자금 출납을 기록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용돈기입장을 쓰듯이, 기업은 모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을 해야만 해요. 기업의 특색과 성질에 맞게 다양하고 엄격한 회계의 기준이 마련되어있고 이러한 회계 자료는 기업의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도 불립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효과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거나 기존 상품을 알리는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는 마케팅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지요. 제품 판매와 홍보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모든 범위의 활동을 마케팅 분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조직행동'에서는 기업 내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사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리더십 이론이나 보상 이론, 팀워크 이론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인재를 고용하고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이 분야는 사회학, 심리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재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순환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수익 모델을 분석해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인지, 자금 구조를 어떻게 하면 튼튼히 할 수 있는지 등,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지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제품의 품질은 물론 원재료를 공급하는 도, 소매상과 원재료비, 유통비, 생산비 등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하겠죠? '경영과학 및 생산분야'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무궁무진한 만큼,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합니다. 경영학의 주요 분야들 중에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로가 달라지겠죠.

이를 테면 회계, 재무 분야에 집중하여 회계사, 펀드매니저, M&A전문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기획부서, 광고업계, 홍보업계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이나 품질 관리 감독이 되기도 하고,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헤드헌터가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영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다른 분야와 접목 시켜서 예술 경영, 외식 경영, 호텔 경영 등의 분야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경영학과는 응용학문, 실용학문이니만큼 자신이 배운 지식을 자신의 관심사와 연관시켜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Plus+

제가 재차 강조했듯이 경영학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따라서 학생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은 사용할 곳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답니다.

경영학과를 나와서 성공적으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나의 관심분야입니다.

경영학과에서의 수업에 대비하여 수학을 예습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았는데, 그것보다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을 배우고 익혀야 했던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다면, 이제 내가 평생 집중하고 싶은 재미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

College of Science





이과대학

수학과 Mathematics

물리학과 Physics

화학과 Chemistry

지구시스템과학과 Earth System Sciences

천문우주학과 Astronomy

대기과학과 Atmospheric Sc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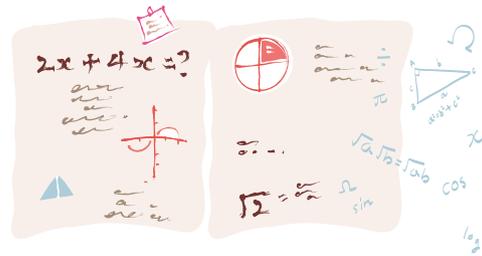
수학과

| 권대학(08학번)

MATHEMATICS

“수학에서는 문제를 푸는 기술보다도, 내놓는 기술에 더 큰 가치를 매겨야 한다.”

17세기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가 남긴 이 말은 앞으로 수학이 지향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초·중·고등학교 12년간 수학을 배웠지만, 우리가 익숙한 것은 대부분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학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전혀 당연하지 않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수학. 알고 지낸 시간은 길지만 잘 알지 못했던 수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수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수학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배웠던 ‘수체계, 함수, 평면도형 등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대답한다면 이는 반 쪽짜리 대답입니다. 수학과에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발전시켜온 논리와 질서의 결정체가 바로 순수학문의 꽃,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수학이 문제풀이와 계산 위주였다면, 대학교에서는 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체계적 수학의 예를 들면 자연수부터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로 확장되는 수체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학과에서는 ‘ $0 \times x = 0$ ’ 처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의 논리적 비약도 없도록 엄밀하게 증명하고 확인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푸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수학과 시험은 답을 계산하는 문제보다, 주어진 명제에 대하여 증명 하거나 확인하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이 수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해서 지나쳤던 수학의 진짜 매력입니다.

수학과는 물리, 화학,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 대기과학과와

함께 이과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흔히 우리가 ‘과학’이라고 알고 있던 분야인데, 수학과는 왜 이들과 함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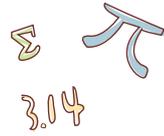
왜냐하면 수학은 자연과학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 것처럼, 자연과학에서는 자연현상을 표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공업이나 경제,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과 사회과학에서도 수학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많은 분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학은 흔히 과학의 어머니라고 불린답니다.

■ Q&A

수학교사가 되고 싶은데 수학교육과가 아닌 수학과에 진학해도 괜찮은가요?

이과대학 수학과가 보다 깊이있게 수학을 배운다면,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는 수학과 함께 교육학을 배우게 됩니다.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면 임용고시를 보기 위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후에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직이수를 신청하고 교육학을 함께 이수해야 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직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대학교 졸업 후 교육 대학원에 진학하여 5학기를 다니고 석사학위를 받아야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로를 잘 생각하여 학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응용통계학과가 따로 있는데, 수학과랑 어떻게 다른가요?

통계는 수학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기 때문에 많은 대학교에 수학과와 별개로 독립적인 학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계학과에 진학하면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컴퓨터를 활용하는 R, SAS, SPSS 등의 통계패키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경대학의 응용통계학과 설명을 참고하세요.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말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친구라면 수학과에 적성이 있습니다. 말싸움을 할 때는 이야기할 때 허점이 있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흠 잡을 데 없이 근거에 기반을 두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박을 하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곳을 조목조목 잘 짚어내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수학은 정답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 정답을 구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공식이 나오면 그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과 함께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학을 공부하거나 문제를 풀 때, 작은 과정 하나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탐구적인 자세를 키우시면 좋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수학이라는 한 과목에서 여러 대상들을 함께 다뤘지만, 대학교에서는 이들을 세분화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학은 크게 대수학, 기하학/위상수학, 해석학, 수리논리학, 확률통계학, 응용수학, 이산/전산수학 등으로 구분됩니다.

졸업 후 진로

수학은 앞서 말했듯 많은 분야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수학과를 졸업하고 자연과학 분야나 공학, 경제, 금융 등의 분야로 많이 진출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 함께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학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교수나 연구원이 되거나, 교직 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중·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Plus+

수학은 학문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대상을 다루는 순수 학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어디에나 적용되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학문 그 자체로도, 그리고 응용되는 기반으로도 어디든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 같은 수학! 수학이 좋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재미있고, 친구들에게 수학을 알려주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면 꼭 한번 수학과 진학을 고려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과대학은 기초 과학을 다루는 곳입니다.
실생활에의 직접적인 응용을 다루는 공학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학 이론들을 섭렵하는 데
먼저 주력합니다. 이제 물리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리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물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공을 던지면 어떻게 날아가는지, 전기와 자기는 어떤 원리로 상호작용하는지, 시간과 공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물리의 탐구 대상입니다.

화학이나 생물학 등 다른 학문과 비교했을 때, 물리학이 다루는 대상은 가장 작거나 가장 큰 대상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찾는 작업이자 소립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 원리를 탐구하는 '입자물리학', 원자와 전자 정도의 크기 범위에서 물질의 특성을 다루는 '고체물리학', 빛 (전자기파, 전자기자기)을 다루는 '광학' 등의 아주 작은 범위가 있는가 하면, 별과 은하 그리고 우주의 생성을 탐구하는 '천체 물리학'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학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이죠, 이때 가설을 세우는 것은 주로 이론 물리학, 검증하는 것은 주로 실험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 이론 물리학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물리학자들은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깊은 사색과 고찰을 통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어떤 현상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냈지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과는 아래로 가는 성질이 있다'거나 '모든 물체는 지표면으로 가려고 하는 힘을 받는다'는 다른 가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가설 중 더 보편적이고 실험결과를 잘 설명해주는 가설이 정식 이론으로 채택됩니다.

• 실험 물리학

이론물리학자들이 생각해내는 여러 가설들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 냈을 때, 그것이 바로 과학적 원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체를 떨어뜨리고, 던지고, 여러 다양한 상황을 살펴본 후, 이 모든 경우를 만유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특정 현상에 대해 이론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설명하는 가설을 내놓으면, 실험 물리학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 가설이 적용되는지, 그 가설이 예견한 결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확인합니다. 충분히 많은 확인이 이루어지면 가설은 원리가 됩니다.



Q&A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물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능 vs. 노력, 무엇이 정답일까요? 천재라는 평가를 받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학자들이 과연 재능 때문에 유명해졌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성공이 노력때문인지 재능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로 노력했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면 재능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로 노력해 본 후' 에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이 재미있다면 일단 심년을 투자해 보세요! 아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관심 분야가 달라질 경우 이중전공 제도를 통해 다른 전공 분야를 공부할 수도 있고, 소속변경 제도를 통해 학과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취업 기회가 여러분께 열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로 문제를 고민하기 보다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만물의 원리, 우주의 법칙, 세상의 근원 등등.....

진리를 표현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난 이것이 궁금하다! 진리를 탐구하고 싶다! 이런 호기심과 열정이 있다면 물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일반물리학, 현대물리학, 양자역학, 전자기학, 통계물리학(많은 입자들의 운동에너지=열이므로 열역학이라고도 합니다), 광학,

입자물리학, 고체물리학, 수리물리학 등을 배웁니다.

졸업 후 진로

물리학 학부과정만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경우, 전문성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연구를 주도하기보다는 보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평범한 사무직이나 은행원 등 물리학과 별 관계가 없는 진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반면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얻으면 좀 더 물리와 관련된 진로가 열립니다. 기업이나 국가 연구소에 취업할 수도 있고, 박사 후 과정을 밟으면서 교수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큰 분야는 고체 실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순수 이론물리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입자물리학 분야 역시 실험의 영역이 아주 크며, 이론물리학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Plus+

물리학은 수학과 더불어 기초 과학의 양대 축입니다.

수학이 추상적 세계를 탐구하는 것에 비해 물리학은 실제 세계, 즉 물질과장의 근원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샘솟는 호기심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싶다면 물리학을 하세요!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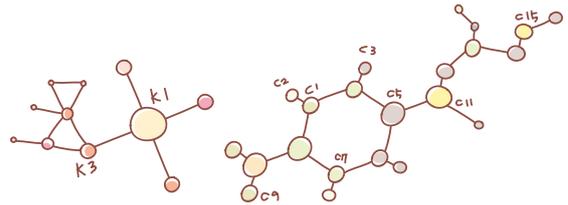
| 김민지(08학번)

CHEMISTRY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이것저것 관찰해 보니까 내가 먹는 과자에도, 내가 쓰는 로션에도, 내가 입는 옷에도 전부 화학 약품이 쓰였다고 표시되어 있더라구.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에 화학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학문인 것 같아. 고무나 옷감 같은 것 말야.”

어떤가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나요?



■ 화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역시 그 물질 중의 일부이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것은 또한 우주에 속해 있는 물질입니다.

화학은 이렇게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 어떤 성질을 지니는가와 함께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작게는 미지의 액체 속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대기를 뚫고 우주로 나아가야 하는 로켓의 몸체에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이용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이지요.

화학과에서는 물질의 특성과 연구 분야에 따라 크게 네 가지의 세부 분야를 공부하게 되는데,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이 그것입니다.

유기화학은 '탄소'가 중심이 되는 물질에 대해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물, 즉 탄소 화합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나 화장품, 약품 등을 이해하는 데 유기화학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분석화학은 미지 시료에 포함된 물질을 알아내고, 그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도록 돕는 분야입니다. 범죄 수사를

할 때 채취한 증거물에서 원하는 물질을 뽑아낼 수 없다면 증거물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분석 화학을 공부하면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각종 기구와 원리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무기화학은 유기화학과는 다르게 주로 '금속'이 중심이 되는 물질에 대해 공부합니다. 금속은 전기와도 관련이 깊은 물질이기 때문에 무기화학에서는 전자와 물질간의 관계를 주의깊게 살피게 됩니다. 신소재와도 관련이 깊은 학문입니다.

물리화학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분자 및 원자의 성질을 근본에서부터 이해하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전자나 핵과 같은 작은 입자들의 세계에 적용되는 것까지 물리적 법칙들을 실험하고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물리화학을 공부함으로써 화학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화학은 현재에도 활발히 응용되고 있고 또한 연구해야 할 부분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적용 분야가 무한히 넓고, 대학을 넘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충분한 흥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거 하면 이론 하나만으로 우주를 풀이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곳이 바로 화학과입니다.



Q&A

화학과의 화학공학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화학은 말 그대로 물질의 상호작용과 구조, 원리를 배우는 순수한 연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화학공학과에서는 화학에서 연구한 기본 원리를 기초로 실생활 응용을 위한 열과 에너지 분야에까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적 원리에 관한 깊은 공부보다는 수학과 물리 등 역학과 조합된 새로운 응용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화학공학은 이 반응을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일으켜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결과물을 얻는가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Ⅱ 과목을 공부하지 했는데 화학과를 갈 수 있나요?

물론 올 수 있습니다.

입학 직후 일반화학이라는 전공 기초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화학Ⅱ 내용과 매우 비슷하여 화학Ⅱ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Ⅱ를 공부하고 온다면 좀 더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열심히 한다면 처음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이러한 특이한 성질을 가진 물질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일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가져본 친구들이라면 화학을 공부하면서 흥미를 느끼기 아주 좋을 것입니다.

유리도 흘러내린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유리는 고체인데 어째서 흘러내릴까? 답은 유리가 고체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일반적인 고체의 분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유리의 분자는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점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액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때요? 재미있나요?

그렇다면 화학을 공부하기에 충분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위에 설명한 유기화학, 분석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말고도 탄소 고분자에 관하여 배우는 유기 신소재, 분석화학에 쓰이는 기기들의 사용법을 익히는 기기분석, 무기화학과 유기화학을 접목시킨 유기금속, 유기물 합성에 관해 배우는 유기합성 등 많은 세부 과목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전기나 전자, 신소재, 반도체 관련 회사
- 종합화학, 석유화학 등 에너지 관련 회사
- 화장품, 식품, 제약 회사
- 국립연구기관
- 대학원 진학

Plus+

화학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 배울 때마다 신비롭고 알아갈 때마다 아!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 점점 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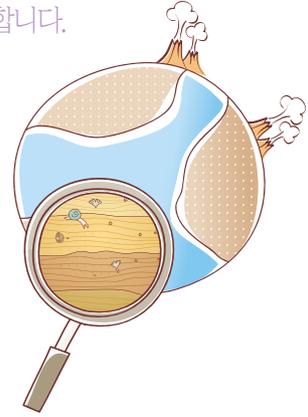
그렇지만 고등학교 화학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처음 전공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화학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할 때도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대학교에서 훨씬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지구시스템과학과

EARTH SYSTEM SCIENCES

'지구시스템과학과'라고 하면 흔히들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지구과학 과목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구시스템과학과는 인류 및 모든 생명체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는 항상 익숙하고 주위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삶의 터전을 공부하는, 이과대학에서 가장 큰 스케일을 자랑하는 학문입니다.



■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지구시스템과학과는 정말 스케일이 큰 학문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특별한 지형이나 그 지형이 만들어 지게 되는 원인과 생겨난 시기를 생각하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에 limestone이 왜 있게된 것 일까요? limestone, 즉 석회암은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퇴적암을 말하고 탄산칼슘은 얇고 따뜻한 바다에서 퇴적되기 쉽고 그리고 생물체의 유해물이 퇴적된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와 같은 환경에서는 퇴적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에 가보면 석회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생성되기 힘든 석회암이 8,848m 높이의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퇴적된 걸까요? 이 석회암은 고생대 말의 해역에 퇴적된 것인데 그 후 지층이 조산운동으로 밀려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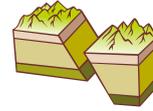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조산운동이 있습니다. 이 융기 운동은 아직도 산정의 고도를 높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산 운동, 융기 운동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의 지형들이 형성되기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물리학적인 접근과 그 지형의 지질환경이 어떤 환경인지까지 연구하여 더 많은 지구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 시대에 생겨난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지구의 지질시대 중 고생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지구를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공간적 초월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하면, 지구시스템과학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 과학 지식을 활용하며, 다른 타 공학 분야(예를 들어 토목공학, 환경공학 등의 기초 학문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Q&A

고등학교 때 배운 지구과학 과목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대기과학과 천문우주과학은 다른 전공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구의 구성물질과 분포 상태, 지구 내부구조, 지각의 형성 및 진화, 지구에 살았던 생물의 진화와 절멸 과정 등을 통해 지구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응용 연구분야에 활용하여 미래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인 지구정보시스템 구축, 석유 자원 및 천연자원의 개발 및 활용, 수자원을 포함한 지구환경문제 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우선 이과 대학은 순수과학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순수 과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부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를 끊임없이 하고 학문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멈추지 않도록 채찍질 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하겠습니다.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공부하는 과목들은 어느 한 과목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유연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와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지구시스템과학개론 및 실습
- 환경지구과학개론 및 실습
- 화성암석학 및 동위원소지질학
- 지구정보처리학 및 위성지구과학
- 수리지질학 및 지하수 오염과 모니터링
- 지구물질학 및 지구시스템과학 실험
- 지구화학 및 환경지구화학
- 야외지질학 및 구조지질학
- 결정학 및 지구내부학

- 지구물리학 및 컴퓨터지구시스템과학
- 생지구화학 및 지질공학
- 지질유체유동역학
- 퇴적암석학 및 지사학
- 졸업논문

졸업 후 진로

- **공사** : 광물자원,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 **기업체** : 에너지 계열 기업, 건설업계의 기초설계 분야 및 컨설팅 업체 등
- **교사** : 지구과학교사, 공통과학교사
- **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 **기술사 자격 취득 후 벤처 사업**

Plus+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직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준 지구!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고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한 아무도 가보지 못해서 볼 수 없는 지구 내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아직 밝혀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노벨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지구에 대한 열정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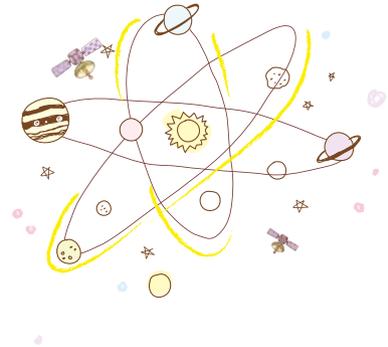
천문우주학과

| 구한울(09학번)

ASTRONOMY

이과대학에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처럼 고등학교 과학 과목들과 바로 연결되는 학과들도 있지만 지구시스템과학과, 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처럼 고등학교 과학 과목들과 바로 연결되지 않고 좀 더 세분화되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이 중 천문우주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살펴봅시다.



■ 천문우주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흔히 천문우주학과 하면 떠올리는 '망원경으로 별 보는 학과'라는 이미지는 사실 천문우주학과의 한 분야인 관측천문학 분야의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천문우주학과에는 망원경이나 분광기 등 다양한 관측기기를 이용해서 행성, 별, 은하 등의 천체들을 관측하는 관측천문학 분야 외에도 천체를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천체의 내부와 그 천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이론천문학 분야, 탐사선 및 인공위성 그리고 이들을 우주로 보낼 로켓을 개발·운용하는 우주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천문우주학과' 라는 이름도 천문우주학과의 탐구 대상은 우주임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기존의 관측·이론천문학과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우주과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학과임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의 이름인 '천문학과'에 '우주'를 추가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 배울 때는 수학적·물리학적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지만 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는 수학적·물리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천문우주학과의 어느 분야를 선택하던 간에 천문우주학과의 전공과목과 함께 기초수학 전공과목과 물리학과의 심화 전공과목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7곳의 천문우주학과가 있습니다. 그 중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는 우리나라 천문우주학계를 선도하는 학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학과입니다.

지름 21m의 전파망원경을 서울·울산·제주에 배치하여 함께 관측을 수행하는 KVN 프로젝트, NASA 및 Caltech과의 GALEX 자외선우주망원경을 이용한 공동연구, Nature와 Science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되는 논문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Q&A

천문우주학과에는 아인슈타인이나 호킹 같은 사람들만 있나요?

천문우주학과에는 아인슈타인이나 호킹처럼 우주나 천체의 물리학적 모형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허블처럼 천체를 관측·분석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폰 브라운처럼 로켓·탐사선·인공위성을 개발·운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공과대학에 있는 항공우주공학과와 천문우주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우주 자체는 다루지 않고 로켓·탐사선·인공위성 등의 우주 비행 수단과 비행기·헬리콥터 등의 공중 비행



수단만을 다룹니다. 따라서 천체나 우주에는 관심이 없지만 우주 비행 수단에 관심이 많다면 항공우주공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천문우주학과에서 하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우주나 우주를 구성하는 행성, 별, 은하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이러한 호기심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입학한 뒤 1~2년 동안 이러한 호기심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해서 호기심을 키우면 됩니다.

또한 천문우주 분야에서 일하거나 연구하기 위해서는 수학·물리학 및 프로그래밍 언어를 심도있게 공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학·물리학·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입학한 뒤 노력하여 잘 하게 되면 되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가짐만 갖추면 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1, 2학년 때는 천문우주학개론, 기초 천체물리학 등의 과목을 통하여 천문우주학과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합니다. 아울러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일반물리학, 일반역학, 현대물리학 등 기본적인 수학 및 물리학 지식도 공부합니다.

3학년부서는 천문우주학과의 세부 분야별 전공과목이 있어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합니다. 또한 전자기학, 양자역학과 같은 물리학과의 심화 전공과목을 공부합니다.

졸업 후 진로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한 직후에 사회로 나가는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지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및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 분야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국내외 천문우주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천문우주분야 연구소의 연구원, 천문우주학과의 연구원·교수, 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종사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문우주분야 연구소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공위성 분야 기업인 세트렉이이를 포함한 국내외 연구원 및 기업으로 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학과 등 다른 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두 학과가 중첩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연구소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주로 국외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국내외 천문우주학과의 연구원·교수가 됩니다.

Plus+

어렸을 때부터 우주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뒤 자연스럽게 천문우주학과에 입학하는 사람이 우주에 관심이 없다가 대학에 지원할 때 천문우주학과가 있는 줄 알고 입학한 사람보다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공부는 3학년부서, 빠르면 2학년부서 시작되는데 그 전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면 상관 없습니다.

1학년 과목인 '천문우주학개론', 천문우주학과 소속 동아리에서의 활동, 천문우주학과 선배 및 교수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기과학과

| 황무동(09학번)

ATMOSPHERIC SCIENCES

이과대학(또는 자연과학대학)은 대학교를 이루고 있는 많은 단과대학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과학 시간에 배우던 것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중 대기과학과는 지구과학분야에 속하는 학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과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기과학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과학과는 무엇을 배우고,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요?



■ 대기과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풍부한 물이 존재하기에 다양한 날씨와 기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호흡하고, 배설하며 체내에서 에너지의 순환을 만듭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으면 지구는 온갖 날씨와 기후로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모든 위치에서 고루고루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이죠. 이런 날씨와 기후는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비가 올 땐 우산을 들고 나가야 밖에서 활동을 할 때 지장이 없고, 햇볕이 따가울 때는 선크림을 발라주어야 피부건강을 보호할 수 있고, 태풍이 올 때는 선박이나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맑은 날의 패션과 흐린 날의 패션을 달리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서 날씨와 기후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거죠. 이러한 날씨와 기후를 대기과학과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 과학 지식과 야외관측, 원격탐사, 수치모형,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일기와 기후, 대기의 물리적, 화학적 현상의 이해와 예측 및 대기환경의 핵심 문제들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지구에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기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생활에서 날씨와 기후로 인해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과학과는 이런 인간의 생존에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에 따라 21세기를 이끌어 갈 학문으로 선정될 만큼 대기과학과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Q&A

대기과학이라는 과목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세히 배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대기과학과를 준비한다면 수학과 물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구과학에서 날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대기과학은 기본적으로 역학적, 물리적으로 해석해내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수학, 물리학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고등학교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날씨와 관련된 학과라고 하셨는데, 졸업 후에 모두 기상청에서 일하는 건가요?

물론 날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기상청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많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과학은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에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과학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우선 하늘, 날씨, 구름 등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대기과학과에 오길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대기과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에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학문이고, 실생활에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보기 좋은 학문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보기 좋다는 말은, 여러분이 대기과학을 응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기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날씨와 기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배울까요? 우선적으로 날씨와 기후는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대비하거나 좋은 쪽으로 이용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기역학'이라는 분야는 날씨와 기후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이나 함수들을 구하고, 그에 따라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델이라는 것은 지구나 관심 있는 지역을 컴퓨터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TV에서 볼 수 있는 날씨 영상들, 일기예보 등은 주로 '대기역학'의 지식이 많이 이용된 것입니다. 대기역학이 대기 운동의 측면에서 날씨와 기후를 설명한다면, 태양에너지가 어떻게 지구에 흡수되고 지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구름이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지, 구름이 에너지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물리적 현상을 배우는 '대기물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운동이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기후역학 분야가 있고, 또한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상 관측 및 원격탐사와 이러한 자료의 자료동화분야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환경이나 대기 요소들의 물질들이 어떤 화학적인 반응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동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우는 '대기화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예로 오존층의 파괴는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대기화학'을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씨와 기후의 역사라고 불릴만한 고(古) 기후에 대해 배우는 '고기후학'도 있습니다. 이 과목은 과거의 기후를 통해 현재의 기후와 미래의 기후에 대해 생각해보고, 예측해보는 과목입니다. 빙하기가 언젠가 다시 오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고기후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외에도 많은 과목이 존재하지만 소개해드린 과목들은 대기과학의 기틀을 잡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연구원, 교수, 기상청·환경부 등에서의 공무원, 기상캐스터, 과학부 기자, 항공관제사, 공군 기상장교, 기상컨설턴트 등

Plus+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재밌어 보이면 꼭 오길 바라요.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정말 중요한 과이고, 여러분이 직접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과이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돼요. 만약 대기과학과를 준비하고 있다면, 꼭 지구과학을 따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과학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은데 혼자서라도 조금씩 읽어보며 준비하면 대학에 와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기과학과가 존재하는 대학교는 그리 많지 않으니 꼭 대기과학과가 어떤 대학에 있는지 알아보고 차근차근히 준비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공과대학

- 화공생명공학전공**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 전기전자공학전공** Electrical & Electronic Engineering
- 건축공학과** Architectural Engineering
- 도시공학과** Urban Planning & Engineering
- 토목·환경공학전공**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 기계공학전공** Mechanical Engineering
- 신소재공학전공**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 산업공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 컴퓨터과학과** Computer Science
- IT융합공학전공** Integrated Information Technology

화공생명공학전공

| 이상훈(10학번)

CHEMICAL & BIOMOLECULAR

흔히 공대라고 말하는 공과대학은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큰 단과대학 중 하나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공대에는 신소재, 토목, 기계, 전기전자, 화공생명 등 많은 전공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화공생명공학이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궁금해 하고 있겠죠? 그럼 화공생명공학부(화공생명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공생명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인류의 생존과 건강,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물질과 에너지 창출입니다. 이제까지 화공생명공학은 인류의 건강과 번영을 위한 많은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기여를 할 공학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화공생명공학은 물리 및 화학의 원리를 응용하여 물질 및 에너지 변환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환경에 조화된 화학공정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생활향상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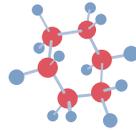
예전에 화공생명공학은 석유화학, 고분자 및 에너지 생산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첨단기술 관련 신물질 공정개발 및 합성, 신에너지 및 환경, 분자생물학 관련기술의 개발에도 효과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화공생명공학이라는 이름만 보면 화학과 생물에 관련된 학문 같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화학, 생명공학은 물론 물리(광학, 플라즈마), 재료(신소재, 고분자, 섬유), 환경에너지(청정기술, 신에너지, 환경정화), 기계(공장자동화, 산업설비), 전자(반도체, 제조공정), 시스템 공학(공정개발,

생산공정)이 모든 것이 화공생명공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는 1950년 현대적 화학공학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이래 60년간의 전통을 가지고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 공과대학의 선임학자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졸업생의 배출로 국내 산업의 근대화 및 첨단화에 기여하여 왔고, 70년대 중반 국내 정유 3사인 SK, GS-Caltex, 경인에너지 3사의 공장장을 배출하여 국가의 중화학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Q&A

화공생명공학은 과목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과 가장 관련이 깊나요?

수학, 물리, 화학 등을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는 대신에 순수 기초과학의 전공분야만큼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많이 배우며, 실제로 있어서도 이러한 응용력이 보다 중요합니다.



ENGINEERING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화학공학과와 화학가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의 유사성과는 달리 매우 다른 내용을 배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학과는 순수과학에 해당하는 분야인 반면 화학공학과는 응용과학인 공학부분에 속해 있어서 실제적인 공장의 설계와 운전에 필요한 부분을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화학부분도 있지만, 공학 전반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왜 화공생명공학의 전공명에 '생명'이 붙나요?

화공생명공학은 화학공학을 바탕으로 하고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 분야를 접합한 전공입니다.

여러 화학 메커니즘들을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세포나 생물 등은 일반 화학공정보다 더 조절하기 쉬운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고 수율도 꽤 높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이 각광 받고 있고 화학공정에도 접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둘의 장점을 합친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화공생명공학은 과학의 여러 분야를 폭 넓게 배우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물리, 생물, 화학 등에 두루두루 관심을 가진 학생이 온다면 더 좋겠죠?

고등학교까지는 과학을 4과목으로 쪼개서 배웠는데 대학에서는 이 4과목이 모두 서로 연계되기 때문에 과학 전반에 관심이 많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 될 겁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1학년
공학수학, 공학 생물학 및 실험, 공학 화학 및 실험
- 2학년
공업물리화학, 화공양론, 화공기 실험, 공업유기화학
- 3학년
화공실험, 유체이동현상, 반응공학, 화공열역학, 화공수학, 열전달

4학년

화공설계, 물질이동론, 생물화학공학, 에너지공학, 재료공정공학, 촉매공학, 전기화학공업

졸업 후 진로

- 석유화학, 고분자
- 재료(유기, 무기, 세라믹, 금속, 신소재, 혼합)
- 반도체
- 제약
- 화공플랜트(공정설계)
- 에너지
- 환경
- Nano Technology, Bio Technology
- 분석(Analysis) 등

Plus+

화공생명공학은 공대 중에서도 배우는 학문의 범위가 가장 넓은 정도로 다양한 공부를 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향후 어떤 분야에서 제 꿈을 펼치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학년으로서 이제 막 전공에 들어섰고 여러 전공과목을 배워 나가면서 좀 더 나와 적성이 맞는 분야를 찾아 파고 들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과에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학이 관심이 많고 다양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장래에 직업으로 삼고 싶은 분이 있다면 화공생명공학부에 지원해 보세요!

전기전자공학전공

| 주영환(06학번)

ELECTRICAL & ELECTRONIC EN

공학이란 수학, 과학 등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드는 학문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학을 배우는 공과대학(공대)에는 다양한 전공들이 있죠. 그렇다면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태블릿 PC, 미래의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그리고 현재 활발히 개발 중인 전기 자동차, LTE라는 새로운 개념의 4G 통신, 우리나라 수출 대표 품목인 반도체, 각종 TV, 컴퓨터 등의 가전제품들. 이런 제품 및 기술은 누가 개발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기전자공학과 출신의 공학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공부하는 전기전자공학! 그럼 지금부터 전기전자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에 대해 알아볼까요?



■ 전기전자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여러분은 전기전자공학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와 전자에 대한 학문을 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설계 및 만드는 학문입니다.

전기와 전자가 구분이 안 간다구요? 전기란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집 안에서의 220V 콘센트나, 휴대폰을 충전시키는 데 필요한 전기,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등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에 반해 전자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원자의 구성요소(원자핵, 전자) 중 (-) 부호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전기와 전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 및 현상들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전기, 전자 제품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전공이 바로 전기전자공학이랍니다.

그렇다면 전기전자공학부에서는 어떠한 세부 전공이 있을까요? 세부 전공도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통신, 회로설계, 전기 및 전자재료, 전력, 신호처리, 컴퓨터, 의공학, 제어, 마이크로파 및 광파 등의 전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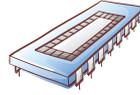
각 전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통신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전공이고, 회로설계는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회로를 설계하는 전공이고, 전기 및 전자재료는 반도체를 만들거나 각종 신소재를 바탕으로 초전도체 및 LED 등을 만드는 전공입니다. 전력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집까지 최대한 손실없이 보내는 방법과 교류전압을 직류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이고, 신호처리는 영상이나 음성을 각종 기술을 이용해 좋은 품질을 만들고자 하는 전공이고, 컴퓨터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칩이나 컴퓨터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전공입니다. 비교적 신분야인 의공학은 의학과 전기전자공학의 지식을 결합하여 의료가거나 의로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전공이며, 마이크로파 및 광파는 파동적 지식을 이용하여 전파를 통하여 신호를 송수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 Q&A

전기전자공학을 공부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GINEERING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전자공학자는 물론 재료공학자, 프로그래머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답니다. 또한 각종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한 사람이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회로설계를 전공한 사람은 컴퓨터 내의 CPU 같은 칩을 설계하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각각의 칩을 배치하여 컴퓨터를 만들면, 프로그래머가 각종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하나의 컴퓨터가 완성되는 방식이랍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전기전자공학부의 모든 전공을 다 배워야 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보통 1, 2학년 때에는 기초전공과목, 즉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여 기반을 잡고, 3, 4학년이 되어서 본격적인 전공과목을 듣게 되는데, 본인이 흥미있는 전공들을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3~4개 분야의 전공과목을 듣고 학부(대학교 4학년)를 졸업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물리)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네요. 첨단기술에 흥미가 있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끈기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1학년 때에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물리, 수학(미적분)을 약간 심화해서 배웁니다. 2학년 때에는 전공기초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미분방정식, 컴퓨터언어(C언어), 전자기학, 회로이론 등 전기전자공학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배웁니다. 3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전기전자공학에 대한 전공과목들을 공부하게 되구요. 4학년 때에는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전공지식을 응용하여 실험 및 연구를 하면서 실질적인 전기전자공학자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크게 대학원 진학과 취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유는 학부과정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더욱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여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석사 학위 취득 후(2년), 박사과정에 진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남들이 연구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4~5년). 또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더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교수 및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취직을 하는 경우는 주로 전자, 전기 분야의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본인이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술고시 및 변리사고시 같은 시험을 봐서 전공 관련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Plus +

사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공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보다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고등학생이라면 물리II를 선택하여 전기 및 파동분야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이 대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수학에서는 미적분 및 확률·통계적 지식이 필요하니 소홀히 하지 마시구요!

건축공학과

| 최유빈(08학번)

ARCHITECTURAL ENGINEERING

여러분은 건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집을 설계하고 지어내는 분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건축에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건축에 대한 생각과 실제는 많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 분야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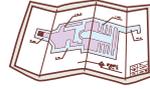
■ 건축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일단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의 건축계열 학과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저희 학교는 건축공학과 내에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 두 개의 전공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2학년 때 둘 중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름이 비슷해서 많은 학생들이 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은 이 두 전공 프로그램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학 전공'은 건축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크게 '설계'를 하는 단계와 '시공'을 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학 전공에서는 설계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알맞은 디자인을 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건축 설계는 아름다운 형태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축물이라는 것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깊게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어야 함에 있어서 수학, 과학은 물론이고 인문학, 철학, 예술학, 사학 등의 분야까지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특성상 5년제로서 타 학과에 비해 학습 기간이 긴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학 전공'은 건축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건축학 전공 학생들이 설계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건축공학 학생들은 건물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시공 계획 등 설계 외의 분야는 거의 다 건축공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쾌적한 지, 구조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건축주의 예산과 주어진 기간 내에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나 관리방법 등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실제로 건축공학 전공에서는 크게 구조, 시공, 환경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모두 실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실무적인 요소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학 프로그램은 공과대학의 타 학과와 같이 일반적인 4년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Q&A

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향후 건축공학과를 전공할 것을 대비하여 지금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싶어요.

건축학이나 건축공학 모두 건물에 대해 항상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건축 잡지 등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어디를 가더라도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여기가 이렇게 지어졌으면 더 편했을텐데!' 와 같은 건축가적 생각을 항상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은 창조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항상 주변의 건축물의 장·단점을 사고하는 비평을 해보세요!

건축학을 지망한다고 하면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건축가는 미술적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축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러 조건 내에서 아름답고 실용적인 공간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이미지에 연연하면서 미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공간의 구성이 미흡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약속된 기호로 건축가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지 결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건축은 앞서 말했듯이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 대지 위에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건축 분야는 자신의 창조력을 넓은 땅 위에 펼쳐보고 싶은 분에게 안성맞춤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창조물을 남겨 놓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건축학의 경우에는 주로 건축설계라는 과목을 수강하며 건축사, 건축과 문화, 현대 건축, 생태 건축, 구조, 시공 등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건축공학의 경우에는 건물을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 시공, 환경 분야의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며, 설계, 건축사, 건축법규 등의 과목들도 수강하게 됩니다. 구조역학, 환경공학, 사업관리, 건축실무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건축학 전공으로 졸업하게 되면 건축가의 길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건설사, 금융, 부동산투자개발, 국가공무원, 산업디자인 분야 등 여러가지 길이 있습니다. 설계에 관련하여 많은 경력을 쌓고 건축사 자격 시험에 통과한다면 어엿한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보통 건설엔지니어, 구조기술사, 환경건설턴트, 부동산투자개발, 금융, 건설IT건설턴트, 건설사업관리, 국가공무원 등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Plus+

사실 건축 계열에 지망할 때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의 차이와 특징을 알지 못해서 막상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가 내게 더 잘 맞을지를 고민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면 좀 더 좋은 건축학도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시공학과

| 이종렬(06학번)

URBAN PLANNING & ENGINEER

여러분 도시공학과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랬듯이 막연히 알고만 있던 도시공학과,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자세히는 잘 모를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도시를 이루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매일 생활하는 집이나 학교 같은 건물들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건물들을 보기 좋게,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짓는 법을 공부하는 전공이 바로 건축공학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장소 간 이동을 위한 도로, 다리, 터널 등 기반시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기반시설들이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는 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도시나 지역 그리고 국토공간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한 건물과 기반 시설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등 도시 전체에 대해 계획하는 것을 전공하는 분야도 필요하겠죠? 이것을 공부하는 곳이 바로 도시공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도시공학과가 도시, 지역, 국토공간을 계획(planning)하고 그에 따라 건축공학과와 토목공학과에서 건설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아,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란 여러분이 생활하는 땅 위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 감이 잡혔나요?

그럼 이제 도시공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학과에서 공부하는 분야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교통',

'도시환경'으로 총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는 신도시를 세우거나 이미 개발된 곳을 개선하기 위해, 그 지역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세우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는 각 지역의 지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을 분석해야 해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점과 좋은 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가 부족하고 녹지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특성을 파악했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계획하는데 있어 학교를 더 세우고 이미 잘 이루어진 녹지를 온전히 보전하도록 해야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떤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석하여 글이나 숫자 등을 사용하여 계획하는 과정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설계'라는 분야는 도시를 도면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분야예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설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또 미적으로도 좋은지를 공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나 시설이라도 위치 및 배치에 따라 그 쓰임과 효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도시설계는 인간의 행태와 미적인 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 '도시교통'은 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에 대해



ING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교통이라고 하면 자동차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만 떠올리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교통이란 사람이나 화물이 이동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을 교통수단이라 하고, 교통수단들이 거처거나 머무는 정류장, 역, 항구, 공항 등을 교통시설이라고 하죠. 도시교통에서는 작게는 신호등의 설계에서부터 크게는 도로의 계획까지 교통, 교통수단, 교통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해요.

마지막으로 '도시환경' 분야는 각종 도시환경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분야예요.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물리적인 방법부터 그 과정에서 정부, 시민, 민간기업 등 많은 입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계획은 무엇 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분야랍니다.

Q&A

도시공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전국의 대학 중 도시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시공학과는 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고, 공부하는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훌륭히 활동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조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위의 네 분야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도시공학과는 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 굉장히 폭넓게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국토 공간 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도시공학과에는 네 가지 분야가 있고, 그에 맞춰 원하는 과목들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특히 각 분야의 기초적인 공부들은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데 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 국토및지역계획, 교통계획, 도시형태및역사, 환경과계획

졸업 후 진로

도시공학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건설 및 부동산 관련 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도시공학 관련 국책연구원, 감정평가사 등

Plus+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도시공학과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공학계열로 입학하여 대학에서 1년 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전공을 선택하게 될 때 많은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니다. 도시공학과는 공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고, 또한 융합적이며 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라는 점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에서 시작했지만 학과 공부를 하며 자부심이 생겼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에 보람과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토목 · 환경공학전공

| 이지희(06학번)

CIVIL & ENVIRONMENTAL ENGI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유진이는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등교합니다. 당산역에서 합정역으로 갈 때는 당산철교를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보며 상쾌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공돌이는 주말이면 KTX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3시간이면 거뜬히 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위의 글과 토목이라는 단어를 연관시킬 수 있으니까?

토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사실 많은 친구들이 토목을 흙? 또는 나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토목 · 환경공학전공)는 무엇을 배우는 전공일까요?



■ 토목 · 환경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토목 · 환경공학은 영어로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이라고 합니다. 즉, 공공의 복지에 직접 공헌하는 교량, 터널, 도로, 공항, 철도, 항만 등과 같은 교통시설을 비롯하여 댐, 정수장과 같은 각종 사회 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공학입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정비해서 자연의 각종 재해와 사회의 공해로부터 인류를 보전하고,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을 인류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를 디자인하는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공학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목 · 환경공학의 기원과 역사는 인류역사의 시초와 일치합니다. 인간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운하와 육지의 길을 만들고,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기술의 발달이 토목 및 환경기술의 발달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의 토목 및 환경기술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하며 삶의 터전을 유지하는 데 응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토목 · 환경공학은 인류와 함께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류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영원히 존재할 가장 중요한 공학의 한 분야입니다.

연세대학교에는 토목공학이 아닌 토목 · 환경공학전공이 있습니다. 토목공학은 자연을 인간이 살기 편한 환경으로 바꾸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자연 입장에서 보면 환경을 파괴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토목공학과 환경공학을 함께 배우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구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 중심의 새로운 도로나 교량, 철도들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토목 시설물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해 토목 및 환경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NEERING

Q&A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토목공학과 건축공학은 똑같이 콘크리트나 철근을 이용해 시설물을 만드는 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배운다는 점에서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내용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목과 건축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건축물은 주로 사람이 건축물 내부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지만, 토목 구조물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바람이나 물 등 자연에 의한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건축 사업은 건축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심에서 이뤄집니다. 또, 토목사업은 주로 공공시설을 만들고, 건축은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나 사무실을 짓습니다. 이 때문에 토목직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분야가 건축직보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토목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과 물리, 특히 역학부분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디자인을 할 줄 알면 더 좋겠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화학이나 생물도 잘하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런 지식보다도 토목공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나갈 열정만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대학교마다 커리큘럼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설되는 과목으로는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수문학,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역학, 기초공학, 상하수도공학, 건설경영, 수생태공학 등이 있습니다. 토목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응용역학, 구조물의 재료가 되는 철근콘크리트와 강에

성질에 대해 배우고, 구조물을 설치할 환경(토질역학이나 수리학)에 대해 배웁니다.

졸업 후 진로

- 시공 및 설계 회사(건설회사, 설계사, 엔지니어링, 중공업 등)
- 국영기업체(도로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 공무원(토목직, 환경직)
- 국립연구기관
- 대학원 진학

Plus+

제가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설레었던 기억은 한강 다리 위를 걸어서 건너면서 '아! 나도 나중에 이런 다리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전공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량이나 토목구조물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부에 더욱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작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에 견학을 했습니다. 거가대교의 일부는 바다 밑에 잠겨있는 침매 터널인데 그 안을 걸으면서 바다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짜릿했습니다. 바다 속에 터널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힘든 기술인지 알아야 이 대단함을 알 수 있겠죠? 아마 이런 감정은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완성되고 실현될 때마다 더 나은 기술을 향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전장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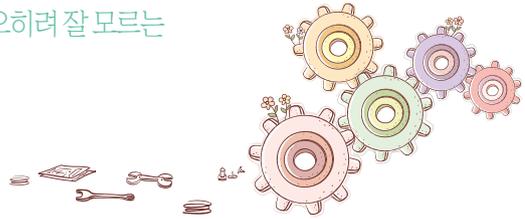
기계공학전공

| 문해란(08학번)

MECHANICAL ENGINEERING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계공학은 무엇인가요?

'기계'라는 이름만 봐도 기계공학은 기계에 대해서 배우는 전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기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작게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작은 부품들부터 크게는 거대한 우주로 향해하는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이렇듯 기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배우는 기계공학과!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는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에 대해서 낯날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기계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기계공학이 어떤 것을 배우는 곳인지 알기 전에 공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해요. 공학은 자연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실용화한 학문이에요. 좀 더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 과학인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한 세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학문인 것이죠.

공학에 속한 많은 전공 중에서도 기계공학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들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기계장치를 분석하고, 그것을 이해하여 설계, 생산,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관리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배우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기계공학의 대표적인 분야인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컨트롤하는대로 움직이는 기계이지요. 자동차는 기름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움직이는데 기름을 이용해서 바퀴가 굴러가게 하기까지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숨어있는 원리들을 알아야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기계공학에서는 이런 기계장치들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학, 물리, 화학적 개념을 배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 원리를 알았으면 그 원리를 이용해 자동차를 설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각 부품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어떤 위치에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하는지, 각 부품이 작동 할 때 최적의 사이즈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개념도 배웁니다. 이렇게 설계의 기본 개념들을 이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하는 방법, 또 설계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기서 나아가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익힙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설계한 자동차를 직접 생산 할 때 필요한 공정들에 대해 배우고, 또 그 공정이 올바른지, 어떻게 공정들을 배치해야 가장 효율적인지와 같은 전체적 공정 과정 관리까지 배웁니다.

이렇듯 기계공학은 하나의 기계장치를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과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은 단순히 기계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기계공학은 종합적인 System을 다루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Q&A

기계공학부에서는 직접 기계를 수리하고 만드는 것을 배우나요?

많은 학생들이 기계공학이라고 하면 드라이버 등의 공구들을 들고 손에 기름을 묻히며 기계를 만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기계공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공학은 기계를 다루는 곳이 맞아요. 하지만 기계를 직접 수리하고 제작하는 것은 기계공학의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실제로 기계장치를 설계할 때에 기계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기계공학을 의미하진 않죠. 기계공학과는 기술을 익히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서 기계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과정을 학습하는 곳이에요. 궁극적으로 기계공학은 인간의 생활에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계하여 그것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방법까지 구현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한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 과학 기술 분야에 큰 흥미를 가진 친구, 혹은 기계공학 관련 특정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모두 기계공학도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세상을 뒤흔들고 싶대 라는 창의적이고 공학적인 마인드와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기계공학도로서의 자질로는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기계공학은 수학과 과학, 과학 중에서도 특히 물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 물리학적 관심이 없다면 조금 힘든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4대 역학(열역학, 동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과 공학수학, 그리고 설계·생산 관련 과목(메카니즘 설계-기구학, 기계요소 설계, 설계 및 생산공학, 창의 설계, 정형생산시스템) 이외에도 메카트로닉스, 광공학, 기계진동,

열전달, 공학재료와 거동학, 공학정보처리, 나노물리개론, 공기 조화 및 환경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기업체, 기업체 연구소(자동차, 항공, 전자, 중공업, 엔지니어링, 방위산업체 등 거의 모든 분야), 국가공무원(기술직), 국립연구소(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소, KIST), 교직(대학교수), 사업가(CEO, CTO), 창업 등

Plus+

제가 전공으로 기계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계공학이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는 모르고 단순히 멋있다는 생각만으로 선택한 전공이었기 때문에 처음 전공을 접했을 때 적응하는 데 꽤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기술의 진보에 앞장서서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기계공학의 매력에 푹 빠져 있지만 말이에요.

기계공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전공입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폭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방향성을 잃기도 쉽다는 말이기도 해요. 특히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기계공학을 선택하는 경우 방향성을 잃기 더 쉽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계공학도가 되고 싶은 친구들뿐 아니라 전공 선택을 앞둔 친구들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지 자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기계공학이 무엇에 관한 전공인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신소재공학전공

| 장태후(05학번)

MATERIALS SCIENCE & ENGINE

이과대학은 물리학과, 수학과, 화학과 등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이 공부한 과목을 토대로 어떤 전공인지 어렵잡아 짐작이 가능할겁니다. 하지만 공과대학은 어떤가요? 신소재공학을 비롯해 전자전기, 기계, 화공생명, 도시, 건축, 토목환경 등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다루어 보지 않았던 것들이지요. 게다가 영어인지 수학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 언어들로 대화할 것 같은 학과일 거란 생각도 듭니다. 뭔가 신기해보이지만 어려워 보이는 공과대학!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신소재공학부(신소재공학전공)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엔 어떤 진로가 펼쳐져 있을지 알아볼까요?



■ 신소재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신소재공학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공학학문이자 현대첨단공학의 선봉에 서있는 학문입니다. 왜냐구요? 신소재공학은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물건의 기본재료를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책상, 가정의 TV, 핸드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물은 나무, 플라스틱, 반도체, 철 등 사용 목적에 맞는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생물체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원자들을 관찰하여 세 가지 상태의 원자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죠. 바로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이 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는 특성에 따라 금속, 세라믹, 유기재료 등으로 나뉩니다.

이와 같이 신소재공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재료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의 원인을 원자, 분자크기인 미세단위부터 재료의 구조, 크기, 두께 등의 거시단위까지 규명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재료의 특성들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여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재료의 특성 중 장점은 더 좋게 단점은 보완하도록 디자인합니다.

예를 들면 금속재료는 강도가 세고 연성과 전성이 있으며 열 및 전기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강도와 연성·전성의 특성을 이용해 집을 짓는 철근을 만들고, 열 및 전기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집안

의 냄비나, 전선을 만들 때 쓰이겠지요. 세라믹 재료는 주로 딱딱하고 반도체적인 성향을 많이 띄기 때문에 도자기나 유리, 사포, 디스플레이, CPU 등에 쓰일 것이고, 유기재료는 빛을 잘 투과하고 물이나 산에 부식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 나일론, 태양전지패널 등에 쓰입니다.

신소재공학에서는 위와 같은 세 물질을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합금의 형태로 섞기도 하고 증착이나 접합의 방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구조를 바꾸거나 재료내의 원자를 재배열해서, 기존 재료의 성능을 향상시킨 재료나 전혀 새로운 특성의 신재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석기→청동기→철기... 이 같은 말은 시대를 분류하는 기준들이지요.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에 어떤 재료를 주로 썼는가에 따라 그 시대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때론 뒤쳐진 재료를 쓰던 국가는 패망의 길을 걸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의 주제였던 그래핀과 2011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인 준결정 등은 모두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는 물질들입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노벨상의 테마로 신소재가 떠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최첨단의 현시대가 새로운 신소재의 필요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신소재공학은 NT, BT, IT 등 최첨단의 선봉에서 시대를 바꾸는 주역들을 키우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RING

Q&A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화학공학에서는 무기화학이나 유기화학 등 화학반응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합니다. 어떤 화학반응의 반응메커니즘을 규명하거나 더 강한 촉매를 만드는 일 등을 합니다. 또한 화학공학에서도 재료를 만드는 데 주로 석유화학공정에서 나오는 유기재료를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재료의 개발이란 관점에서 최근의 트렌드로는 신소재공학은 무기재료를 더 많이 다루면서 유기재료에 관심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으며, 화학공학은 유기재료를 주로 다룬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 간에 연계연구를 하여 약물의 전달물질이나, 의학용 패치 등을 만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전공에서도 섬유나 패션소재를 다루나요?

사실상 지금 국내의 신소재공학전공은 직접적으로 섬유소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섬유소재는 의류학과나 섬유공학과와 같은 전공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유소재 연구가 전혀 다른 재료가 아닌 만큼 기본적인 재료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기성복 섬유산업회사(제일모직, 금호섬유)이나 방탄복회사(아르모프) 등에서는 매년 많은 신소재공학과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모든 공학은 기본적으로 무궁무진한 과학적 창의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늘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공대에 오면 빛을 발할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지만 창의성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늘 주변을 관찰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찾아내고 고치려는 생각을 가져야겠지요. 불편하지 않으면 창의성이 나오지 않을테니까요. 더불어 신소재공학전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재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현해내는 수백 수천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실험 시간도 다른 전공에 비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짜듯이 클럭 한 번에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소재공학도로서 인내심은

필수덕목입니다. 나아가 미래 공대생으로서 기본적인 물리·화학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이면 더 좋겠네요.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열역학, 상평형및미세구조, 재료결정학, 열및물질전달, 공학전자계산, 수치해석, 고체역학, 고체물리, 고체화학, 고분자구조설계, 합금설계학, 재료의 기계적성질, 반도체소자, 나노소자, 콜로이드공정, 광학재료, 정보저장재료, 에너지저장재료 등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엔 제조업이 주산업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에 취직이 가능하며, 국공립·대학 연구소에도 많은 선배가 근무중이세요. 또는 기술고시,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어 공무원으로 갈 수도 있고 금속기술사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인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Plus+

고등학생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바뀌는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나도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다양한 매체들을 접해보고 많은 고민을 해보세요. 공학도가 되겠다고 과학 잡지도 구독해보시구요. 과학·기술의 흐름을 알고 공부한다면 지금 하는 공부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지만 틈틈이 인문학 책을 읽고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철학이라는 작지만 무거운 코어를 담으세요. 공학인으로서 딱딱한 표현밖에 할 줄 모를 것 같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유연히 빛나고,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공과대학에는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기계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등 각각의 학과는 학과이름만 듣고도 분야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업공학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능력과 적성이 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산업공학과는 어떤 학문일까요?



■ 산업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위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기계공학, 건축공학 등은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다루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공학은 과연 무엇을 다루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공학은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체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다면, 이것들의 집합이 시스템이고, 이를 설계하고 개선하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산업공학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영향력이 크며 파급속도 역시 빨라서 어떠한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성격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시스템을 통하여 개선하고 운영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즉 산업 전반의 여러 가지 일을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학인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공학 분야는 한정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공부를 하지만 산업공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분야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고 관리하여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크게 생산시스템, 정보시스템, 인간-기계시스템, 시스템 통합 및 분석(S)이라는 분야로 나누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스템'은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조회사들의 공장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통해 전체의 효율적 통제와 개선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정보시스템'은 최근에 발전하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 전산화와 자료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기술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인간-기계시스템' 분야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기계와 컴퓨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이며 마지막으로 '시스템 통합 및 분석'은 우리 실생활에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이론 및 수단, 방법 등을 계획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분야를 강조하고자 이름을 정보산업공학으로 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ENGINEERING

Q&A

산업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은 어떠한 일을 하나요?

사실 딱히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산 및 품질 관리, 마케팅, 시스템 통합분야, 금융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산업공학 전공의 학생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은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산업에 진출하여 자신의 적성과 관심, 그리고 능력에 맞는 일에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재다능함이 여러 학생들에겐 막연함과 부담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공을 정한 후에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분야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산업공학에 대해 아는 많은 학생들은 이를 공대의 경영학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반만 맞는 말로서 산업공학은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경영학과 차이를 보입니다.

배우는 학문은 경영학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과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졸업 후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학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인간공학과 품질공학 등의 산업공학 특유의 분야도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산업공학에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적성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시스템 혹은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예상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통계학적 요소가 필요하지만 크게 두려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산업공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OR(Operation Research), 생산운영 계획 및 관리/통제, 품질공학, 금융공학, 자료분석, 경영정보관리, 산업정보관리, 비즈니스 웹 응용시스템 관리, 지식경영시스템 등

졸업 후 진로

- 제조업 분야의 생산(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영업&마케팅, 유통 및 물류관리
- 시스템통합(SI) 분야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전략, 서비스 개발 및 설계, 운영시스템 관리 등

Plus+

산업공학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학문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에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하고 지식을 가진 산업공학도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큰 시야를 가지고 전체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는 지휘자의 꿈을 가진 친구들, 산업공학을 추천합니다!!

컴퓨터과학과

| 정진호(04학번)

COMPUTER SCIENCE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고 있지요.
특히 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이용되면서 컴퓨터과학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과학과에 오게 된다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 컴퓨터과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각 개인에게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키, 몸무게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정보가 있지요. 컴퓨터과학은 이런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초기의 컴퓨터과학은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현 및 응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요.

이 때문에 유명한 컴퓨터과학자인 다익스트라(Edsger W. Dijkstra)는 '천문학이 망원경에 대한 학문이 아닌 것처럼 컴퓨터과학도 컴퓨터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과학은 우리 삶에 많은 발전을 이끌어 왔어요.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 디지털 혁명의 주역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컴퓨터과학은 계산 능력의 향상을 통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등 과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고, 시뮬레이션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미지 처리라든가 음성 인식, 3D 그래픽 기술을 통해 문화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최근 스마트폰의 유행과 함께 IT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등 앞으로도 컴퓨터과학을 배우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질 것이라 기대해요.

■ Q&A

컴퓨터과학과에 가려면 미리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하나요?

꼭 미리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교 1학년 때 C언어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어요. 이후 고학년이 되면서 C언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고 익히게 됩니다. 미리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대학 입시에서 프로그래밍이 주요 과제가 아닌 만큼 수학, 과학, 영어와 같은 기초적인 공부를 잘 해놓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컴퓨터과학과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이 중요해요. 컴퓨터과학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체계라든가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생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면 창의적인 사고도 중요하지요.

또한 학문의 역사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크고, 패러다임의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얼리어답터(Early Adapter)로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으면 컴퓨터과학과에 와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영어도 매우 중요해요. 최신 기술이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는 많은 수업들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컴퓨터과학과에 오면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먼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수업들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시간에 어떤 이론을 배우고 이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과학과에서는 어떤 이론들을 배우면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익히게 됩니다. 인터넷, 모바일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어요.

또 컴퓨터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배울 수 있어요. 0과 1의 디지털논리부터 이후 컴퓨터시스템, 운영체제 등 컴퓨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이뿐만 아니라 정보의 효율적인 저장과 처리를 위해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론 등 여러 가지 컴퓨터 이론들도 배우게 됩니다.

이후 4학년이 되면 이렇게 배웠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보안,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 응용분야에 대해서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크게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벤처 창업이나 다른 연계 분야로 진출하기도 하지요.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많은 IT 기업들이 성장했고 또 각 회사마다 IT 관련 부서가 존재하다보니 많은 직장에서 컴퓨터과학 전공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IT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석사, 박사 이상 전문가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2의 구굴을 꿈꾸며 벤처 창업을 하기도 하고, 융합학문의 대두와 함께 생물정보학, 로봇틱스, 인지공학, 금융공학 등의 분야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Plus+

아마 대학 입학 전부터 컴퓨터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의 공부를 착실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 실제로 컴퓨터과학과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수학기량 영어가 중요해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길러지는 논리적인 사고는 컴퓨터과학과 학생에게 큰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게임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3D게임의 경우를 보면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과에서 배우는 공간벡터 개념이 수적으로 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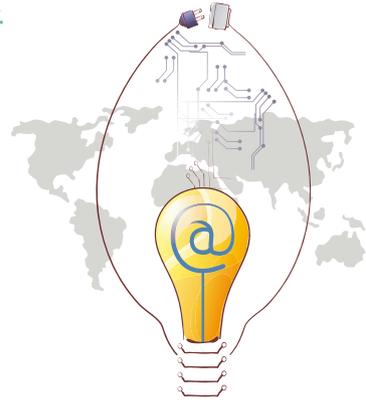
그리고 글로벌 추세에 따라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IT 융합공학전공

| 최준호(11학번)

INTEGRATED INFORMATION TE

세상에는 공학,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존재합니다. 선구자들은 이러한 학문 중에서 자신의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요. 이제 사람들은 각각의 학문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2011년 신설된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IT융합공학전공)에 대해 알아보까요?



IT 융합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사람의 눈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공학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통해 사물을 식별하는 것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면, 공학자는 이 기술을 혼자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생물학자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위에서 제시한 상황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지식들과 융합하여 보다 새롭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발맞추어 2011년 글로벌융합공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글로벌융합공학부는 다른 학과와는 달리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변화에 대해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T 분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 20명씩 총 60명 내외의 소수정예 학생들이 모여 나노, 바이오, 에너지, 정보, 전자 등 과학적 분야는 물론 예술, 디자인과 같은 인문·사회 분야에

걸쳐 다른 학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론적 지식 습득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연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Q&A

학부생들도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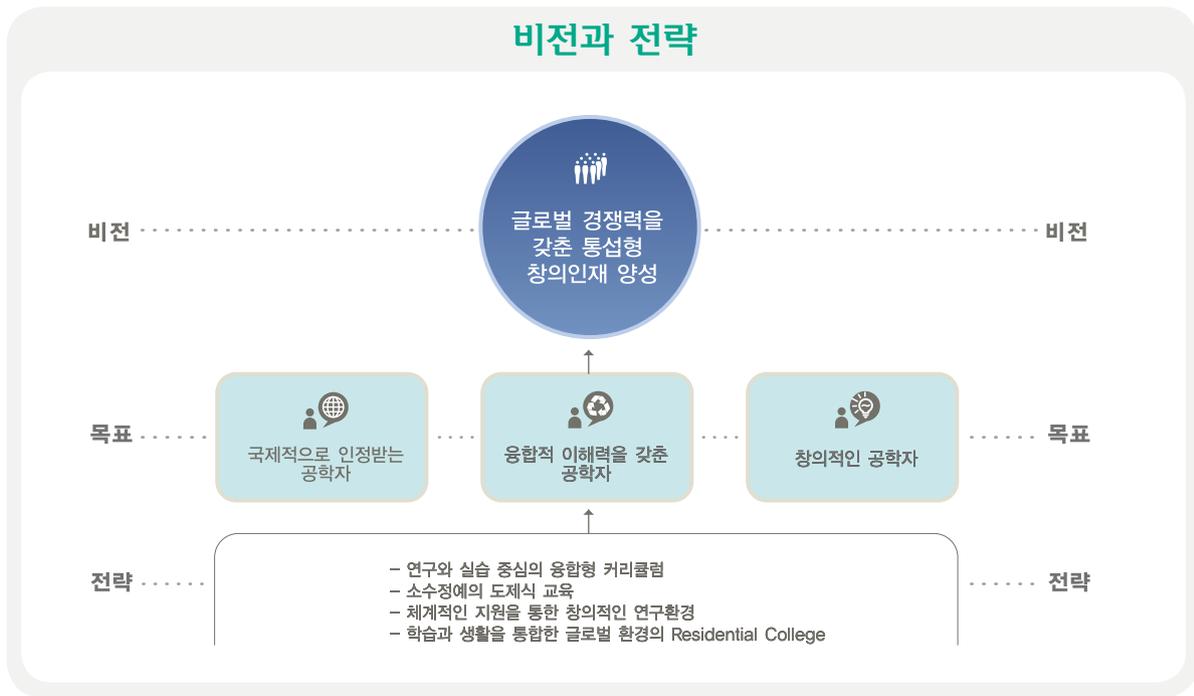
현재 글로벌융합공학부에는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총 4개의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글로벌융합공학부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학부생 누구나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해당 연구 조직에 참여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부 차원에서 구성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진행되는 개별연구지도는 자신이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경우 방학 중에 진행할 수 있는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평소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학문에 대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학년이 되면 통섭연구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지도교수와 함께 체계적으로



CHNOLOGY

비전과 전략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계적인 학회에 논문이 실리거나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과학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분야에 IT를 접목시키면 어떠한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본 후 발견한 연구 분야가 여러분에게 정말 흥미 있다면, 글로벌융합공학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최적의 학부일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Plus+

글로벌융합공학부에서는 IT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컴퓨터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C++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MATLAB등을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혹시 자신은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만, 손 하나가 더 있다면 한 개의 손 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College of Life Science & Biotechnology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 Systems Biology

생화학과 Biochemistry

생명공학과 Biotechnology

시스템생물학과

| 정연수(08학번)

SYSTEMS BIOLOGY

여러분이 시스템생물학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뭐든지 다잘 외울 것 같다, 웬지 쥐 해부를 잘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시스템생물학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시스템생물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시스템생물학은 인간을 비롯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들 생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연구대상에 따라 나뉘보면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으로 그리고 연구방법에 따라 나뉘보면 유전학, 발생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세포학 등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생물학. 그냥 생물학은 알겠는데 시스템생물학이라는 이름은 낯선 친구들이 많죠? 생물학 앞에 시스템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발전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생명현상에 대해 연구할 때,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탐구하는 방법을 택했어. 하지만 생명체는 그런 요소들의 단순한 블록 맞추기가 아니라, 수많은 유전자와 단백질 그 외 다수의 화합물들이 복잡한 반응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도 유전자나, 분자, 세포 수준의 요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를 찾고, 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시스템 차원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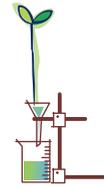
그래서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에서는 이러한 교육방향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생물학과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실험수업을 병행하며 공부할 수 있고, 뛰어난 연구자이기도 하신 교수님을 통해 각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 및 그 응용분야에 공헌할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시스템생물학과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생명과학과 연관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힘들죠. 생명과학은 그 분야가 무궁무진한 만큼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생명현상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공부해 보고 싶은 학생들을 시스템생물학과로 초대합니다!

■ Q&A

시스템생물학과와 생화학, 생명공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내에는 시스템생물학과 이외에도 생화학, 생명공학과가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세 학과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볼까요?



- **시스템생물학과** : 생명현상의 이해를 위해 분자 및 세포수준에서부터 개체의 수준, 나아가 전 지구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한 연구를 한다.
- **생화학** : 생명현상의 기본질서를 분자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초기 학문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분자생물학적 및 화학적 반응을 연구한다.
- **생명공학** : 생물체의 성분을 조작·변형하여 인류에 유용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시스템생물학과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지만, 진로에 대한 생각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걱정이 돼요.

시스템생물학과에서는 '시니어세미나'라는 과목을 통해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저명한 분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을 얻음은 물론이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이외에도 학과 행사를 통해 교수님들, 대학원생 선배님들과 함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평소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는 친구라면 대학생들 내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관련 뉴스나,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새로운 발견소식에 귀가 쫓긋해지는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생물과목에 대해 웬지 모르게 열정을 불태우는 친구들 말이에요. 그 외에도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나, 어떤 현상에 대해 논리적인 접근을 잘 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세포생물학
- 분자생물학
- 유전학
- 발생학
- 분자생화학
- 동물생리학
- 식물분자생리학
- 미생물학
- 면역학
- 신경생물학
- 시스템생물학실험 1-4
- 시스템생물학 창의실험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대학원 진학 혹은 취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대학원(국내·외)에 진학하게 되면 세부전공분야에 대한 더 깊은 공부와 함께 자신의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학원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해 교수가 될 수도 있죠. 취업은 국책연구소, 기업체 연구소, 제약회사, 병원, 학교 등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 할 수 있어요. 또는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료인이 되거나, 변리사 자격을 취득해 변리사로 활동하는 방향 등이 있죠. 생명과학은 우리가 누리는 생활 어디에나 적용되어 있기에, 무궁무진한 응용분야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진로가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확신을 주는 진로를 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lus+

저는 시스템 생물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학, 물리, 통계학부터 인문학, 법학까지 생명과학지식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시스템생물학이라는 전공분야에 대해 충실한 것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식견을 넓히는 것은 권장사항을 넘어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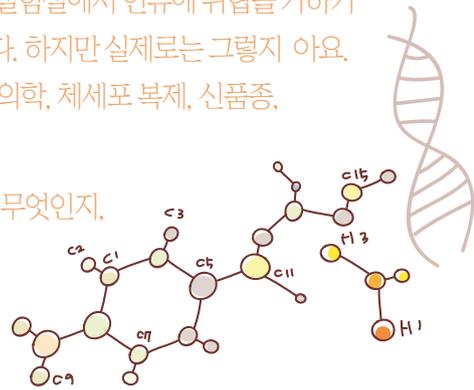
| 김정렬(05학번)

BIOCHEMISTRY

생화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화학이라는 학문영역을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화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람들도 대개 부정적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과 방송, 영화 등에서 전쟁이나 테러에 관련한 소재로써 '생화학무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꼭 미치광이 과학자가 어두운 실험실에서 인류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생화학일 것이라는 오해를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생화학자들은 바이오신약, 유전자 치료법, 줄기세포 맞춤의학, 체세포 복제, 신약품, 환경미생물 등을 연구개발하여 인류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화학이란 어떤 학문이며,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전공을 하면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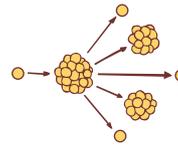
■ 생화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생화학(biochemistry, 生化學)은 간단하게 말해 생물학(biology, 生物學)과 화학(chemistry, 化學)의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경계학문 또는 두 영역이 결합된 융합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핵심은 생명체의 활동을 화학반응의 종합적 결과로 이해하는 것. 쉽게 말해 생명체를 하나의 화학물질 집합체로 본다는 것이죠. 생물학을 화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 반대로 화학을 생물학적 영역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입니다.

생화학은 화학과 생물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고 결합되어 등장했습니다. 우선 화학 측면에서 생화학의 탄생을 살펴보면, 19세기 초반부터 생물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일반 무생물계에 존재하는 원소들과 다른 동등한 원소들이라는 사실이 화학분석 결과 확인되었는데 한편으로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같이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생물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화합물임이 밝혀졌죠. 이러한 탄소 화합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세부분야로서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이 나타났는데, 유기화합물이 시험관 내에서도 인공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생체 구성물질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는 생화학이 유기화학에서 파생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물학 측면에서 생화학의 탄생을 살펴보면, 19세기 후반까지는 생물학이 형태 관찰 위주였는데 그 이후부터 점차 기능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생물학의 세부분야인 생리학과 유전학에서 생체의 기능을 물질의 상호작용 결과로 해석하게 되면서 화학적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유전자의 본질이 DNA라는 물질임이 밝혀진 이후에 DNA의 분자구조와 여러 단백질의 분자구조 등을 밝혀내는 분자생물학(molecular biology)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때 생화학적 연구방법을 주요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화학의 유기화학 분야와 생물학의 분자생물학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영역이 바로 생화학인거죠!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화학, 생물학이 재밌는 학생이라면 생화학 역시 좋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화학과 생물학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특성상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외울 필요가 있어 뛰어난 암기력을 가졌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암기력보다 중요한 건 꾸준하고 성실한 공부태도입니다.

한편, 생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자하는 학생이라면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활동 자체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되고, 생화학은 건강,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과목은 역시 '생화학'입니다. 생화학 전공의 기 과목으로 생물체는 어떠한 화합물로 구성되며, 그 화합물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체 내 화합물질들의 대사과정은 어떤지를 개략적으로 배우죠. 생화학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기화학'과 '분자생물학'도 기초과목으로써 공부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도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세부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포가 어떻게 하여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지, 세포의 기능과 구조와의 관계를 배우는 '세포생화학', 유전이란 화학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유전물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는 '핵산생화학', '유전생화학', 생물에게 섭취된 물질은 어떠한 대사과정을 밟는지 공부하는 '분자생리학', '분자대사학', 호르몬, 비타민의 작용 또는 효소의 촉매작용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 '단백체학'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면역화학', '유전자조작법', '바이러스학' 등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과목 외에도 실험실에서 직접 DNA나 단백질을 추출하거나, 대장균의 DNA를 조작하는 등 실습해 볼 수 있는 '생화학실험'과목도 매우 중요한 전공이수 과정입니다.

졸업 후 진로

가장 주요한 진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외 연구소에 취직하거나 대학교수가 되어 생화학자로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일입니다.

대기업이나 제약회사의 연구소에 취직해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대학을 마친 후에는 주로 생화학과 일부 관계가 있는 바이오벤처회사, 주조(술)회사,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등에 취업을 합니다.

그밖에도 생화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농업, 산림, 환경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언론사에 들어가 과학전문기자, 교양PD 등을 할 수도 있어요.

전문자격을 얻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고, 약학대학에 편입하거나 변리사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Plus+

생화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중나선(the double helix)(제임스 왓슨 저/최돈찬 역, 궁리출판사)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DNA의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www.ksbmb.or.kr)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생화학과와 같은 전공인데 이름이 다른 학과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등이예요. 이러한 학과들을 모두 합쳐 전국에 50여개 생화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생명공학과

BIOTECHNOLOGY

| 최동윤(09학번)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미래 유망산업인 6T 중에는 BT 즉, 생명공학이 속해 있습니다. 20세기 전 세계를 풍미했던 정보산업(IT)의 열풍을 이제 생명공학이 대체할 것이라는 말은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생명과학 관련 전공을 따로 모아시너지 효과를 낼 목적으로 따로 단과대학을 분리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생명시스템대학이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생명시스템대학에 있는 생명공학과에 대해 알아보시다.



■ 생명공학과는 어떠한 학과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을 크기로 나누면 눈에 보이지 않아 크기가 몇 마이크로미터 밖에 하지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인 크기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흰긴수염고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이 존재합니다. 또한 생물들의 서식지 환경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생물들은 각각 특유의 특징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특징을 다른 생물에게도 갖게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유전자를 다른 종의 유전자와 재조합하면, 기존의 유전자가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의 많은 응용기술이 바로 이 유전자 재조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명공학의 주된 목표는 인류에 도움을 주는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의학, 약학 분야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행해지는 외과수술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만들기가 어렵거나 만드는 것이 비용이 너무 비싸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치료제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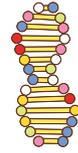
생명시스템대학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과들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명시스템대학을 크게 나누면 응용분야를 연구하는 생명공학과와 기초분야를 연구하는 시스템생물학과, 생화학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공학과는 원래 공과대학에 속한 공학의 일부였고, 시스템생물학과와 생화학과는 이과대학에 속했던 학과들이었습니다. 공학과 이학의 차이는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크게 뿌리와 몸통, 그리고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나무는 살 수 없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뿌리, 몸통, 줄기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 이학, 공학, 그리고 공학의 여러 세부 전공입니다. 즉, 공학의 한 가지인 생명공학은 응용적인 성격을 갖고, 뿌리인 이학에 속하는 시스템생물학과, 생화학과는 이론적인 학문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 Q&A

요즘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기 있는 주제는 뭔가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학문의 트렌드는 이른바 '통섭'이라고 불리는 학문 간의 융합입니다. 생명공학도 여러 다른 전공과의 합동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노 공학, 전기 공학 등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회과학과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줄기세포도 생명공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생명공학에선 여러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실한 자세입니다. 보통 실험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며 프로젝트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진행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실험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의성 또한 생명공학에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면 자신이 하는 일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창의성이 빛을 발하겠죠? 하지만 창의성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자식이 쌓일수록 창의력도 늘어난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생물학 관련 과목(미생물학, 바이러스학, 생화학)** : 생명공학은 생물학의 응용학문이므로 생물을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생명공학과의 전공과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 **생명공학기술 관련 과목(유전공학, 생물공학)** : 생물학 관련 과목이 주로 원론적인 것을 배운다면, 생명공학기술 관련 과목은 좀 더 실용적인 것을 배웁니다. 기술의 의의나 이론을 배우지만, 실험과목과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역학(열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 공과대학의 기본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역학입니다. 생명공학과 역학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미생물을 키우려면 미생물의 먹이를 적당한 양을 줘야 해요. 이러한 미생물을 키우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미생물이 흡수하는 양, 필요한 열을 계산하는 데에 역학이 이용됩니다.
- **생명공학 실험** : 생명공학과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실험과목입니다. 실험과목에서는 실험의 이론적인 배경을 배우고 나중에 생명공학쪽으로 진로를 잡을 때 사용하게 되는 여러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 생명공학 엔지니어
- 연구업종 종사자(연구소, 기업, 교수)
- 바이오 벤처
- 생명공학 전문 법조인(변리사 및 변호사) 등

Plus+

생명공학과라고 해서 생물만을 주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입학하게 되면 당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교의 교육과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1학년 때 일반물리학, 일반화학, 일반생물학, 공학수학을 배웁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입 수능시험의 과학탐구영역에서 심화(Ⅲ)과목을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수업에서 교수님들은 심화과목 정도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온다는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저도 대학에 올 때 생물Ⅱ를 선택하고 물리나 화학의 심화과목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수업을 따라가기에 힘든 점이 많았어요.

수능이 끝났다고 신나게 노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배우지는 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익히는 걸 추천해요.

College of Theology





신과대학

신학과 Theology

신학과

| 이재준(11학번)

THEOLOGY

아마 '신학'이라는 전공 이름을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십자가나 엄숙한 성당과 같은 이미지가 그려지거나 "그게 뭐지?"라는 물음을 가지기 쉬울 겁니다. 혹은 종교라는 단어가 어렵듯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은 종교를 다루고 있고,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공식처럼 명확한 답이 도출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 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신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성경, 예수님 등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교회, 성경, 예수님 등은 신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 또한 신학의 넓은 스펙트럼 중 일부일 뿐입니다. 신학은 성서, 전통, 경험, 이성 등을 통하여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신' 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하여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탐구하며 더 나아가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실존과 역할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신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신'의 뜻과 그의 사선이 향한 '인간'에 대하여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결코 저 멀리 있는 세계만을 바라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초월적 세계를 마음에 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를 꿈꾸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항상 우리 사회에서 고민하는 인간, 윤리, 삶,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철학, 사회학, 문학, 사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학문과의 열린 대화를 지향합니다. 특히 연세신학은 종합대학의 특성상 신학과 다른 학문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단순한 인문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분명히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신학을 함에 있어 '신앙'과 '신앙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과 '신앙 공동체'가 없는 신학은 반쪽짜리 신학에 그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신학의 학문적 관점과 신앙의 관점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학과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구약, 신약)를 공부하는 성서학, 이성을

바탕으로 신학의 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조직신학, 교회의 역사를 조명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독교의 전통과 발자취를 공부하는 교회사, 신학의 가르침을 보다 실질적인 삶의 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신학(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삶의 영위를 돕는 상담코칭학, 차세대 교육을 연구하는 기독교 교육학, 선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는 선교학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모두 '기독교'와 '신학'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모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Q&A

신학과는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과는 종교적 이유로 입학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과의 특성상 신학실천, 신앙수련회 등 신학 공동체의 일상에 기독교 문화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기다리지만, 신앙은 없지만 신학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있는 학생도 환영합니다.

신학과를 졸업하면 모두 목회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신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필수학문이지만 단순히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나 신학자 등의 길을 가지만 최근에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계통의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세신학을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 중에서는 방송, 기업, 연구원, 사회복지, 문화예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오는 학생은 많지 않은가요?

교단신학교에 비해 재학생 비율로 계산해 본다면 목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길이나 신학자의 길로 가는 학생의 비율은 상당합니다. 연세신학의 특성상 목회자의 길을 가는 학생과 신학자의 길을 가는 학생의 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연세신학 출신의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학생 중 상당수의 학생이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교에 오신다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목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산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진솔하게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교단 신학교에 비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연세신학은 초교파 학교로 특정 교단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기에 더 깊고 다양하고 개방적으로 신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단 신학교에 비해 더 이성적이고 학문적으로 신학에 접근합니다. 또한 종합대학 안에 속해 있기에 교양수업 등을 통하여 다양한 학문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이중전공, 부전공 등을 통하여 다른 전공을 신학과 함께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과대학만의 자랑이 있다면?

신과대는 다른 단과대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선배배간 친밀하게 교제할 기회가 많습니다. 매 학기 전체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는 공동체 시간이 있고, 11월에는 모든 신과대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1학년 때는 '튜토리얼'이라는 방식으로 담당 교수님과 몇 명의 학생이 팀을 만들어 가끔씩 만나 교제하고 지도를 받습니다.

또한 신과대는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자치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생사회의 일을 담당하는 학생회, 신과대학 학술동아리인 연세신학학술연구회와 노동과 사목 연구회, 신과대학 연극 동아리인 종교극 예술 연구회, 찬양동아리인 알파와 오메가, 밴드 동아리 가미, 축구동아리 흥가네 FC, 농구동아리 스피라운, 여학생회, 예비역 학생협의회, 편입생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아늑한 동아리방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목회자나 신학자 등 계속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부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또한 꼭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절대자', '초월자'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필수과목으로는 성서학의 기초를 배우는 구약의 이해와 신약의 이해, 이론신학의 기초를 배우는 신학의 이해 1, 실천신학의 기초를 배우는 신학의 이해 2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으로는 성서학에 구약신학, 신약신학, 공관복음서 해석, 성문서 해석 등이, 조직신학에 조직신학, 문화신학, 종교철학 등의 과목이, 교회사에 초대, 중세, 현대교회사 등이 있고 실천신학에 목회상담학, 돌봄·상담·코칭, 기독교 교육론, 종교교육과정, 선교학개론, 21세기의 기독교와 선교 등의 수업이 열립니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 종교와 예술 등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 고민해 보는 수업도 있고, 히브리어, 헬라어 등 수준 높은 고전 언어 수업도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목회자(지역교회, 사회단체, 중고등학교 교목, 군종 목사 등), 신학자, 신학교수, 선교사, 언론인, 사회복지 관련 직종, 목회 심리 상담사, 시민사회 기구, 사회적 기업, 예술가 등이 있습니다.

Plus+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사회와 정의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고민하고픈 여러분, 신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College of Social Sciences



정치외교학과

| 이서준(05학번)

POLITICAL SCIENCE & IN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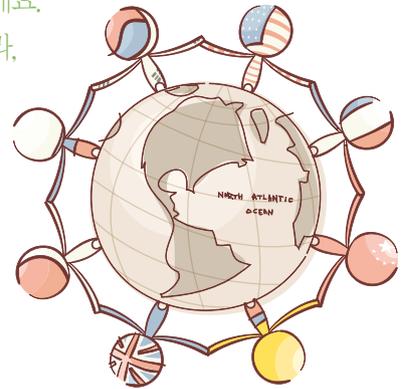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 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즉,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둘 이상이 모여 집단을 이루죠. 가족, 부족, 국가 그리고 사회가 모두 집단입니다.

그런데 집단이 생기면 집단 안에서 또는 집단 사이에 다양한 성격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집단을 관리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정치외교학도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학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간단히 말해서 정치외교학과는 집단 내에서,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 집, 옷, 돈 등등. 그런데 가치 있는 것들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다면 모두 갖고 싶은 만큼 가지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배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엔? 맞습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배분하고자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최고의 가치로 뽑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은 정치할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해, 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정치외교학과에선 갈등이 왜 발생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치는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고 또 권력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데 그중에서도 ‘국가’라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생각해봅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합니다. 선거 방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방식뿐 아니라, 후보를 내놓는 정당에 따라 정치양상이 달라집니다. 선출된 대표들이 모인 국회, 그리고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징, 그들 간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합니다.

‘외교’도 정치의 일부입니다. 국가 내부가 아닌 국가 간 정치가 외교입니다. 독도문제를 예로 들어보죠. 독도가 여러 개라면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하나씩 가지면 되니까요. 그러나 독도는 한 개. 독도라는 가치를 두고 두 국가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영토문제 외에도 국가 간 희소한 가치를 두고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국가 간 갈등 양상, 국가 간 갈등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공부하는 게 바로 ‘외교학’입니다.

■ Q&A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외과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외무고시가 없어지고 외교스쿨이 생긴다고 하죠.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의 상당 부분이 고시준비에 필요하고 향후 외교스쿨에서 배우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 전반과



ATIONAL STUDIES

국제기구들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로를 구체화해가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면 정치인이나 외교관으로의 진출로 제한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정치외교학과 선배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계로 가거나 언론사에 입사해 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기업에 취직한 선배들도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사회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신문과 뉴스를 관심 있게 본다면 당신은 사회과학도, 정치외교학도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신문과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곧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입니다. 리더십 있는 친구들도 정치외교학도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정치철학, 한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외교) 등

• 정치철학

정치란 쉽게 말해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회 내 갈등조정이 곧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철학은 정치를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동양정치철학, 서양정치철학, 한국정치철학으로 나뉩니다.

• 한국정치

대표적 강의 두 개로 설명할게요. 한국정치론, 한국정치경제입니다. 한국정치론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1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정치사를 공부합니다. 한국정치경제는 각 정권별 경제패러다임과 경제정책을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원조경제에서 시작해 수출위주 산업화와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운답니다.

• 비교정치

미국은 대통령제, 영국은 의원내각제입니다. 정치제도가 다른 만큼 두 국가의 정치양상도 다르겠죠? 이처럼 제도별 지역별로 정치를 비교하는 학문입니다.

북한, 미국, 한국 세 나라의 정당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정당 수가 다른 만큼 정치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비교정치를 배우려면 다양한 정치제도를 공부해야겠죠?

• 국제정치

국가별 정치, 전 세계 정치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한·중·일이 속한 동북아 내 국가 간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하는 UN 등 국제기구를 배우기도 합니다. 지금 한창 이슈로 떠오른 FTA도 배우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졸업 후 진로

- 정치인
- 행정관료
- 외교관
- 언론인
- 법조인 등

Plus +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는 학과입니다. 사회를 고민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 전세계를 무대로 살아가고 싶은 분, 호연지기를 가지고 정치외교학과로 오세요.

행정학과

| 김은지(07학번)

PUBLIC ADMINISTRATION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일련의 규칙성이나 특징들을 발견해내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이 바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개인의 행위보다는 사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학문입니다. 사회과학에는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 무궁무진한 학문들이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학, 사회복지학, 정치학, 행정학, 문화인류학, 사회복지학 정도로 줄여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과학 중 행정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행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행정학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 중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문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살림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의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내 체육대회에서 여러분의 반이 종합 1위를 차지하여 30명의 학생이 1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금 10만 원은 반 학생 모두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므로 당연히 반 학생들 모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럼 이 10만 원으로 무엇을 해야 반 학생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까요? 이처럼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과정은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반 학생 모두에게 똑같이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을 사먹자는 의견, 교실의 비품을 사자는 의견, 소풍비에 보태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설사 맛있는 것을 먹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을지라도 피자, 삼겹살, 탕수육 등 서로가 먹고 싶은 음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종합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피자를 시켜먹기로 결정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자를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30명이 개인 휴대폰으로 모두 피자 가게에 주문을 넣어야 할까요?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수요조사를 하여 피자 종류당 주문해야 할 개수를 파악한 후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이 누군가는 여러 피자집들 중에서 가장 맛있고 가격 면에서도 훌륭한 피자집을 선택해야 하고, 피자가 배달되면 계산을 하고 피자를 수요에 맞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피자를 다 먹은 후 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결정된 사항들을 실행에 옮기는 행정의 영역입니다. 30~40명 사이 규모인 학급과 달리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처리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조직과 인력이 불가피하게 요구됩니다. 행정학은 국가 업무에 동원되는 대규모 조직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A

행정고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제계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전공이 전공인 만큼 행정고시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라는 이유 만으로 공무원 생활을 선택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으므로 적성을 반드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공부 기간이 길고 선발 인원이 소수이므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예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배달된 피자를 나누는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합시다. 어떻게 피자 조각을 나누어야 가장 바람직할까요? 바로 모두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피자 조각의 숫자는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먹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물론 양이 적은 친구가 양이 많은 친구에게 남은 피자를 나누어 줄 수는 있지요. 하지만 키나 외모, 성적, 운동 실력,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가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또 자신이 피자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자신이 피자를 더 먹으려 해서도 안 되겠지요. 따라서 공익 추구와 사회적 약자 배려, 청렴성과 같은 요소들이 행정인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친구들보다는 남을 위해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보다 적합한 학문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행정학 공부는 크게 두 분야, 즉 관리(management)와 공공정책(public polic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 분야는 효과적인 관리자 혹은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다룹니다. 이 분야에 해당되는 과목으로는 조직론, 리더십, 재무행정, 인력관리론, 정보체계론 등이 있습니다. 공공정책 분야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어 평가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관한 것들을 다룹니다. 물론 복지정책, 과학기술정책, 환경정책 등 실질적인 정책도

포함됩니다. 공공정책 분야 과목으로는 정책학개론, 정책분석및평가론, 정책집행론, 복지정책론, 과학기술정책론, 환경정책론, 문화정책론, 국제통상정책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론, 도시행정학, 대통령과 국정관리, 비교발전행정론 등의 많은 다른 과목들이 있는데 이들은 행정에 관한 보다 심층적 지식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졸업 후 진로

아마도 행정고시를 생각하고 행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행정학 전공자들이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 전공자들은 관리와 정책에 관한 소양을 바탕으로 졸업 후 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도 많이 진출합니다. 물론 학계, 언론계에 진출한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경쟁대학인 서울대에는 행정학과가 없으므로, 연세대 행정학과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학과입니다. 그만큼 공직, 학계, 기업진출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놓고 있습니다.

Plus+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대체로 그런 길을 가게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모든 영화감독들이 다 연극영화학을 전공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행정학의 여러 분야들이 반드시 행정학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학의 연구 내용이 다른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정확히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진로만 생각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배우고 싶은 분야가 무엇 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기를 조언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사회복지학과

| 윤호연(11학번)

SOCIAL WELFARE

여러분! '사회복지'라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봉사활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에서 봉사활동과 같은 실천분야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대기업의 사회공헌 팀, 사회적 기업, 의료 코디네이터, 정신보건 전문가, 심리상담가, 미술, 음악을 이용한 심리 치료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은 여러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며 빛을 발하는
간학문적(間學問的, interdisciplinary)이고 다양성을 지닌
학문입니다. 더불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도유망한 학문입니다.
그럼 사회복지학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행복한 삶. 이것은 아주 오래 전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추구해 온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도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매 끼니마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행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문입니다. 조금 더 나은 삶, 풍부한 삶을 만들기 위해 혹은 그런 삶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이 사회복지학입니다. 인간의 행복추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 가장 오래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학문으로 정착된 것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과 같은 분야의 학문보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이 말은 곧 정치, 경제, 사회, 행정과 같은 거시적인 학문들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학문이 바로 사회복지학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전세계적으로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3세계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공정무역 상품의 확산, 미국의 의료보험 논의, 우리나라의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그리고 크게는 리비아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민주화 바람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지금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그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여러 학문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간 학문적 특성을 보면 앞으로의 사회복지분야가 얼마나 유망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부와 대학원 모두 국내 그 어느 대학보다 뛰어난 연구성과와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1위의 자리에 올라있으며, 사회의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한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선배님들이 자랑스럽게 후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수많은 선배님들과의 연결이 잘 되어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니다.



Q&A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가요?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모두가 CEO가 되고,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면 모두가 정치인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다고 해도 모두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지식의 개발과 교육에 집중하는 학자,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사회복지정책개발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공무원 등 공리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소속되어 기업의 사회 공헌을 이끄는 길, 사회적 기업 창업, 공동 모금회나 재단의 전문인, 국내 및 해외 NGO단체 전문인, 심리치료사, 상담가 등 다양한 진로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사회복지학이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고, 다른 것에 대한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의 학문적인 능력보다는 인간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배우려는 열정과 성실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1학년 때 사회복지학의 기본인 사회복지개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 전공진입을 하게 되면 범위별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천, 분야별로 장애인복지, 산업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의료복지, 학교복지, 자원봉사,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장론, 빈곤복지, 보건복지, NGO와 NPO 등 수많은 세부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정부기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연구기관(국책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사
- 병원(의료 코디네이터, 정신보건 전문가)
- 자선기관(아름다운 재단, 공동 모금회, 사랑의 열매 등)
- 국제개발 NGO(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 기업의 사회공헌 팀(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Plus+

저도 맨 처음에는 봉사 활동하는 것이 좋아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학에 오기 전에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홀로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 정책 연구로 진로를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되는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분야들도 제 관심을 끌고 있어요. 저는 물론이고 제 동기들도 다양한 사회복지 전공분야를 알게 되면서 서서히 꿈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기도 하고 혹은 다른 전공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공을 동시에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 진로에 대한 장기적인 확신이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미래가 사회복지라는 뿌리로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과

| 유민정(09학번)

SOCIOLOGY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친구들, 사회학에 관심은 있지만 막연하게 느꼈던 친구들, 또는 사회학이라는 분야가 생소한 친구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학, 무엇을 배우는 전공일까요?



■ 사회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법학에서 법을, 경제학에서 경제를 공부하는 것처럼 사회학은 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대답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사회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일 거예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문제들 중 사회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학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하지만 동시에 아주 매력적인 학문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고리들로 연결된 인간들의 공동체를 사회라고 한다면, 사회학이란 미시적으로는 성, 가족, 교육, 노동, 문화, 언어, 종교 등 여러 가지 렌즈들을 통해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피에르 부르디외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는 계급을 '문화'라는 렌즈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전의 학자들은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계급을 구분 지었지만 부르디외는 인맥, 교육수준, 명예, 미적 취향 등도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는 계급적 위치에 따라 취향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사람들이 이러한 취향에 따라 스스로를 남들과 '구별 짓기'하면서 역으로 취향이 계급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분석해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즐겨듣는 음악장르,

여가활동, 사용하는 언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계급적 지위가 반영된 산물입니다. 따라서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주 사소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문화로 계급을 설명한 부르디외의 생각이 굉장히 신선하지 않나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학은 지금까지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고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연구했던 대표적인 사회학자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서구 근대 사상은 관념론적인 경향이 강했고, 인간의 이성이나 이념과 같이 정신적인 요소들을 중시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정치나 종교, 도덕이 경제보다 우위에 있게 되지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세계가 물질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 토대 위에서 도덕이나 법, 종교, 국가가 생겨난다고 본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시각에서 보면 한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경제입니다. 그는 국가마저도 경제적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회학과 전공수업에선 이러한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사상이 어떤 점에서 옳고 어떤 점에서 그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또 현재 우리 사회에 적용시켜보기도 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도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사회학을 공부하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듯 보이는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사회학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 현상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건 곧,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동화되다보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학의 목표는 이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또한 사회 현상들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보다보면 평소 눈치채지 못하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규칙을 발견하고 비틀어 유쾌한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학은 주변에 호기심 많고 비판적이고 유쾌한 통찰을 즐기는 친구들이 오면 좋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이전의 사상가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했는지 살펴보기 : 근대사회사상의 흐름, 사회학이론, 사회사상 등
- 사회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고민하기 : 사회조사분석, 사회통계학 등
- 다양한 렌즈를 통해 사회 들여다보기 : 정치 사회학, 경제 사회학, 역사사회학, 비교사회학, 수리사회학, 의료사회학, 일탈과 범죄, 사회계층과 불평등, 예술과 사회, 시장과 사회, 현대사회론 등

졸업 후 진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과의 멘토링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사회학을 공부한 것이

지금의 일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따라서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의 진로를 특정한 몇 개의 직업군으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는 일이거든요.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진수희 선배님처럼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봉준호 선배님처럼 영화를 통해서 사회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송과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를 넓고 깊게 이해하는 안목을 갖게 된다면 이미 받은 잘 일구어진 셈입니다.

이 사회학이라는 훌륭한 토대 위에서 각자가 원하는 꿈을 펼쳐냈을 때,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탐스럽고 건강한 열매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은 직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돕습니다.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회변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직업에 대한 훈련이 아닌,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을 배양하는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혹은 어떤 일자리를 창조해내건 경력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도움이 될 것입니다

Plus+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꾸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선 신문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신문에서 접함으로써 생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읽기는 매일하는 사회학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선별된 기사를 읽기보다는 신문 하나를 골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관심, 넓은 시야 그리고 논리적인 생각과 글쓰기까지 갖추게 되면 나중에 전공을 공부할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문화인류학과

| 신한술(09학번)

CULTURAL ANTHROP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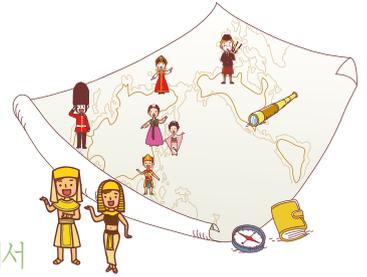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람과 자본의 유연한 흐름으로 지구는 급속하게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될까요? 그간 문화인류학은 비서구 사회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전지구상의 다양한

국가/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연구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해왔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위험사회, 생태 위기, 문화, 성찰성 등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인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공감 능력, 그리고 상상력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능력입니다. 문화인류학은 이 포괄적인 능력을 키워 인류가 지구상에서 계속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핵심적 인문사회과학이며, 그 태생상 다른 어떤 학문보다 통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문입니다.



■ 문화인류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문화인류학은 문화적 감수성과 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고 이론화시키는 학문입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성격의 학문이지요, 특정한 문화현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내는가? 이것이 문화인류학자들이 던지는 주요한 질문입니다.

문화인류학은 자신의 사회가 아닌 낯선 사회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 학문이라는 특성상, '현지조사'와 '문화기술지'라는 특별한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지조사는 일정한 현장에 장기 체류하면서 현지인의 관점으로 그 문화를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지조사를 통해 인류학자는 외부에서, 또는 우월한 입장에서 연구 대상 사회를 판단하는 오류를 줄이고 '현지인의 관점'에서 현실을 충실하게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관찰과 연구자의 심층적인 분석 및 해석을 결합하여 문화기술지를 작성합니다. 인류학은 현지인의 시선을 충실하게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매우 중시하며, 그 과정을 거친 후에 현실 밀착형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 인류학도는 문화 비평가이자, 사회 디자이너이며 지역 코디네이터이며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키우게 됩니다.

전통적인 문화인류학자는 고립된 지역에서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규모 부족 사회, 산업화 이전의 생활방식을 고수해온 '저개발' 지역, 그리고 이동이 적은 농촌사회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과 같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오지'의

부족을 찾아가 연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화인류학도가 하는 일입니다. 1970년대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문화인류학의 연구 영역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가장 길고 거대한 주제인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일상을 연결시키는 문화인류학은 글로벌 시대의 정치와 경제, 문화, 생태의 주제를 망라한 분야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드라마를 찍은 피디부터 국제기구의 개발 컨설턴트,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일, 지역, 국가, 국가를 아우르는 시공간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모두 인류학적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지구를 지키고 가꾸는 일, 지역을 가꾸고 지키는 일 모두가 인류학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문화상대주의와 비교문화적 관점을 통해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화를 연구하며, 궁극적으로는 현대 문화를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그 자체를 또한 새롭게 창조하는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Q&A

문화인류학과는 '인디애나 존스'에서 본 것처럼 고대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하는 전공인가요?

문화인류학이 아직 한국에서는 낯선 학문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인류학은 인류 조상들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뼈나 화석을 발굴하거나 오지에 가서 탐험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류학은 크게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론적 측면을 다루는



체질인류학(biological anthropology), 고고학(archeology) 등의 분야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으로 나뉩습니다. 인디어나 존스에 나오는 인류학자는 고고인류학자이고요. 문화인류학은 고고학과 연결고리를 이어가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과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문화인류학은 특정 직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학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와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모든 직업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참여관찰을 수행하고, 편견 없이 행위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지식을 구성하고자 하는 문화인류학의 접근 방식은 어떤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과 같은 대기업에서 인류학자는 현지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학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현실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을 결합함으로써 회사 창업, 국제개발원조, 기업의 공익사업,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창조적 기획자와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인류학은 차이와 다양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이며,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관념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불편해하고 배척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 만약 나오는 다른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왜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려는 성찰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인류학은 책과 논문뿐만 아니라 현지조사를 중시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친구들, 여행과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친구들이라면 문화인류학의 세계에서 행복할 가능성을 발견할 거예요.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문화기술지, 성과 문화, 가족과 문화, 지구촌 시대의 문화인류학, 세계화 시대와 다문화주의, 현대 중국의 사회문화, 일본문화연구, 네트워크 사회의 문화기획, 문화기획실습, 글로벌 이슈와 인류학적 전망, 인류학 특강,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이주, 일본문화연구, 영상인류학, 몸의 인류학, 현대 사회의 정체성 등입니다. 인류학과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1년에 두 번 현지조사나 현지답사를 다녀옵니다.

졸업 후 진로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문화인류학적 방법론은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자나 다큐멘터리 PD 등 언론계도 있고, 공적개발분야(ODA)나 국제NGO 등 국제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문화나 예술분야의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질적연구방법을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나 학계 등에도 진출합니다. 정책, 경영, 복지, 문화 인프라, 환경 등의 전 영역에서의 문화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겠지요.

Plus+

문화인류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전공 수업을 들으며 특별히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소 어렵겠지만 「오래된 미래」, 「증여론」, 「국화와 칼」, 「슬픈 열대」, 「세부족 사회의 성과 기질」, 「문화의 수수께끼」 같은 책들을 읽고 오면 앞으로의 공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와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을 입문서로 추천해요. 문화인류학에 대해 쉽고도 재미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학전공

| 이한울(08학번)

MASS COMMUNICATION

언론홍보영상학부가 궁금하다고요?

경영학과는 경영을 배우겠지만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들어가면 무슨 과목을 배울까요?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언론홍보영상학부(신문방송학전공)에 대한 모든 것!

지금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 신문방송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신문방송학전공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매체의 다양화로 인해 더 이상 신문과 방송에만 치중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신문방송학전공은 언론홍보영상학부, 미디어학부, 언론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까요?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는 대인 간 소통, 언론, 광고, 홍보, 영상, 뉴미디어 등 제반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의 영어 명칭은 Department of Communication 인데 Communication이란 의사소통을 의미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크게 보면 개인과 개인이 의사소통하는 1:1 커뮤니케이션, 친구들과끼리 하는 多:多 커뮤니케이션, 남 앞에서 발표를 하듯이 하는 1:多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홍보영상학부는 모든 의사소통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영역이 언론, 홍보, 영상 등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언론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말하는데, 크게 신문과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을 공부하면서 그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공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방송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문기사는 어떻게 쓰는가,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을 공부한답니다. 그 다음으로 홍보(弘報)분야인데 홍보는 말 그대로 '널리 알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널리 알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홍보라고 할 수 있죠.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했을 때 그 제품을 널리 알리는 일이나 국가에서 정책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일 모두 크게 홍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기업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홍보를 하는가 등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은 그야말로 영상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영상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운 뒤 영상을 직접 찍어보고, 편집해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작품들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게임과 같은 영역을 신문방송학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결국 신문방송학과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초학문을 중심에 두고 언론홍보 영상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배우고 연구하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A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면 주로 기자나 PD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를 기자와 PD가 되기 위한 전공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광고 카피라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론고시가 정말로 있는 건가요?

아니오. 언론고시는 사법고시처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워낙 방송사에 입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언론고시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PD와 기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시험에서



주로 상식 시험과 작문 시험을 보는데 이 부분을 언론고시라고 칭하는 것이죠. 어렵지만 평소에 뉴스나 시사에 관심이 많고 책과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우선 언론, PR, 방송국, 기자, 신문, 피디, 홍보, 마케팅, 광고, 영화, 다큐멘터리,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 소셜 미디어, 라디오, 트위터 등 이러한 단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빙고! 거기에 책상에 앉아 있기를 싫어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창의적인 일을 사랑하는 친구들 말이죠! 때분하게 하루하루 틀에 박힌 일보다는 활동적인 일을 선호한다면 당신은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딱 맞는 스타일입니다!

■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 : 커뮤니케이션론, 설득커뮤니케이션, 사이버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션, 국제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등
- **언론 관련 과목** : 방송의 이해, 신문제작실습, 여론과 선거캠페인, 글로벌 저널리즘, 미디어와 여론, 미디어와 사회, 대중문화론, 신문 취재 보도, 미디어편성과 수용자, 사설과 칼럼 실습 등
- **광고 홍보 관련 과목** : 광고의 이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광고홍보조사론, PR론, 고급PR론, PR기획실습, 홍보사 분석, 미디어 플래닝 등
- **영상 관련 과목** : 한국 영화의 이해, 영상 제작 이론, 고급 영상 제작, 영상제작 실습, 문화 콘텐츠와 영상, 영화의 이해, 다큐멘터리 제작, 비주얼 시각연출 등
- **기타 과목** : 현대회법, 미디어 법제론,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사회변동, 헬스커뮤니케이션, 도시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 상상창조융합, 게임 디자인과 문화 등

■ 졸업 후 진로

가장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나 교수 등 주로 신문방송학을 연구하고 강의를 하는 쪽을 말하지요. 그리고 언론 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진로로는 PD, 기자, 아나운서 등이 있습니다. 광고 홍보 쪽으로 진로를 정한다면 광고회사나 대기업 홍보실, 국가 정책 홍보실 등 홍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광고기획이나 카피라이터 등 광고 쪽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쪽으로 진로를 정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PD를 포함하여 영화감독, 다큐멘터리 감독 등 영상과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게임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에서 배우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를 찾아보고 그쪽으로 집중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일과 관련된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lus+

최근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종편(종합편성채널)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SBS, MBC, KBS 같은 3사에서만 하던 종합편성프로그램 서비스를 신문사나 대기업에서 채널을 할당받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써 소비자들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홍보영상학부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라 불안정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종편도 자리를 잡을 것이고 3사와 종편, 다른 케이블 채널 등이 공존하는 방송 체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 전공을 선택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닐까요? 전공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더한다면 바로 당신이 적격자입니다! 언론홍보영상학부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College of Music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Church Music

성악과 Vocal Music

피아노과 Piano

관현악과 Instrumental Music

작곡과 Music Composition

교회음악과

CHURCH MUSIC

| 이어원(11학번)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중 가장 먼저 개설된 학과인 교회음악과는 특이하게 세 가지 전공(오르간전공, 합창지휘전공, 교회음악 성악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음악과는 각각의 전공 관련 실기와 함께 자신의 전공이 예배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전공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까요?



■ 교회음악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첫째로 오르간 전공입니다. 드라마나 개그프로그램에서 좌절하는 상황에 자주 쓰이는 '띠로리~'하는 음악소리. 이 음악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오르간이라는 악기입니다. 오르간은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르간 음악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의 왕'이라는 호칭에 알맞게 그 위엄이 대단합니다. 오르간 고유의 소리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모든 소리를 오르간으로 낼 수 있고 악기의 크기 또한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오르간은 손으로만 연주하는 피아노와 달리 발에도 건반이 있어 발로 하는 연주 또한 필요한 악기입니다. 따라서 온 몸을 사용하여 연주하기 때문에 연주자의 큰 에너지가 필요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손의 테크닉입니다. 때로는 어떤 피아노곡보다 더 섬세한 연주가 요구되기 때문에 피아노적인 테크닉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르간전공으로 입학할 하기 위해서는 오르간 실기시험뿐 아니라 피아노 실기시험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학부생이 되면 작곡가가 써놓은 악보대로 연주하는 오르간 곡 뿐 아니라 스스로가 작곡가가 되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오르간즉흥연주법, 오르간의 역사와 오르간의 시대적 특성을 공부하고 문헌과 작품을 통해 오르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게 하는 오르간 문헌 등 다양한 전공과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합창지휘 전공입니다. 얼마 전 남자의 자격에서는 청춘합창단이라는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목소리가

합쳐져 하모니를 만들 때 그 목소리에 설득당해 눈물을 흘리는 많은 관객들을 화면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합창단원들이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 속의 음악을 이끌어 내준 지휘자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휘를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 전공이 합창지휘 전공입니다. 음악적인 통솔을 위해서는 스스로 또한 음악성과 테크닉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학실기시험으로는 피아노와 성악 그리고 음악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화성학과 시창·청음 시험을 봅니다. 또한, 입학 후에는 성악레슨과 오르간 레슨을 병행하여 음악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돕고 3학년이 되면 비로소 콰이어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합창지휘 전공생에게는 합창에 필요한 발성법과 지휘테크닉을 배울 수 있는 합창지휘클래스가 매 학기 개설되어 있어 더욱 전문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음악 성악전공입니다. 성악전공 또한 입시시험을 치를 때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코르위봉겐 시창과 함께 이태리, 독일, 프랑스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중 다른 언어의 두 곡을 선택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음악의 한 장르인 오라토리오나 칸타타의 아리아 중 한 곡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프랑스어 덕션이나 이태리어 덕션 등 여러 나라의 덕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라토리오 클래스라는 강의도 개설되어 있어 오라토리오를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음악합창단에도 소속되어 합창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음악과는 이처럼 다양한 전공이 모여 한 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음악과는 매 학기 감사와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교회음악개론을 배우며 전반적인 기초를 함께 배우게 되고, 졸업하기 전에는 예배와 음악이라는 과목을 통해 예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배우게 됩니다. 또한, 교회음악합창인 CMC(Church Music Choir)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어 매년 개최되는 교회음악과 정기연주회에서 CMC로 참여하게 됩니다.

Q&A

교회음악과는 꼭 교회에 다니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나요?

학과의 이름만 보고 교인이어야만 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교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입학 또한 가능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스스로의 전공분야에 대해 확신을 가진 친구들이 진학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가?',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가?' 스스로 반문해보고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면 환영입니다.

또한, 자신이 전공하는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음악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진학하면 좋겠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전공을 접해 보는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음악과의 특성상 여러 전공이 모여 있어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전공의 공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연주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전공분야만큼이나 다른 전공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친구들, 마지막으로 예배음악에서 쓰임 받고 싶은 친구들 모두에게 교회음악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예배와 음악
- 교회음악합창
- 교회음악개론
- 오르간즉흥연주법
- 합창지휘클래스
- 오라토리오클래스

졸업 후 진로

- 오르가니스트
- 지휘자
- 성악가
- 음악감독
- 전속연주자
- 음악치료사
- 공연기획자
- 교수 등

Plus+

예배를 드릴 때 설교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교회음악과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은 물론이고 영성까지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예배자.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원하는 음악전공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학교 교회음악과는 미래 교회의 예배음악을 이끌어 갈 주인공들을 양성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음악이라고 해서 무척대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추천음악을 들으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음악을 느껴 보길 바라요.

추천 음악

- Tocatta and Fuga in d(BWV 565) - J. S. Bach
- Oratorio 'Messiah' - G. F. Handel

성악과

| 김수연(10학번)

VOCAL MUSIC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음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TV를 볼 때나 라디오를 들을 때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나 심지어 거리를 걸을 때에도 음악은 항상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들려오지요. 그런 음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음악은 바로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목소리라는 것은 '신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도 하지요. 음악대학 성악과에서는 바로 그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이끌어 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 성악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노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중가수가 부르는 가요,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판소리, 뮤지컬 음악 등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는 음악들이 많지요. 하지만 성악과에서는 서양전통 음악인 '성악'을 공부합니다.

보통 이태리,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각 나라의 가곡들과 오페라를 연주하기 위해 아리아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학년은 가곡을 공부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아리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연주자로서의 자세나 경험을 쌓기 위하여 매주 연주수업을 하고, 한 학기에 한번 실기시험을 치릅니다. 또 외국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청강하면서 '외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는가'에 관한 견문을 넓힐 기회도 주어집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학생을 주연으로 한 오페라도 진행됩니다. 학교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학생 오페라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페라 주연의 역할과 아리아, 또는 합창을 공부하고 실제 큰 무대에서 공연하게 되면서 매주 하는 연주수업과는 또 다른 경험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외국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어 1년에 한번,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 한명의 학생은 약 1년 정도 머물며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성악과에서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여러 기회를 제공해 주며,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악과는 선후배 사이가 돈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신입생 OT나 성악과 세미나를 통하여 선후배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동기들 간의 동기에 또한 끈끈하게 지속하며 단체생활에서 필요한 부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성악은 무대에서 악기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음악을 표현해서 인지 사람들의 성격이 대체적으로 활발하고 밝아요. 이렇게 좋은 선배, 동기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하고 친목을 다져간다면 더욱더 재밌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A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노래 공부를 어떻게 하나요?

우선 각자 배우고 싶은 교수님께 오디션을 보고 지도받을 교수님을 배정 받습니다. 그런 후에 발성, 음악 등을 배웁니다. 또한 IPA, 디క్ష(이태리, 독일, 프랑스, 미국) 시간을 통하여 각 나라의 발음들을 공부한 후에 가곡 클래스에서 '각 나라마다의 노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등을 공부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공부한 노래를 연주수업 시간에 연주함으로써 연주자의 자세를 배우고 경험을 쌓는 방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대학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나요?

한 학기에 정규 이수 학점은 19학점이구요, 과목은 전공과 교양으로 나뉩니다.

보통 전공과목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화성학, 시창청음, 음악사, 이태리어디션, 독일어디션, 불어디션, 영미디션, 합창, 오페라 앙상블 등 음악관련 과목을 배웁니다.

교양과목은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는데,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 교양수업에는 요가, 스포츠댄스, 수영 등 여러 재미있는 수업들이 많아요.

전공 수업도 열심히 듣고, 교양수업도 즐기면서 학교를 다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노래, 혹은 오페라에 꿈이 있는 친구들이 입학한다면 좋겠죠? 클래식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입학하기도 하지만 뮤지컬이나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등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성악으로 탄탄한 기반을 만들기도 해요.

꿈이 있어 오는 친구들도 물론 좋지만 그냥 노래를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있는 친구들이 와서 먼 훗날 우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빛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성악과에서는 전공실기 이외에 음악에 대하여 깊이 공부하기 위하여 음악사와 성악문헌을 배우고 화성학, IPA, 디క్ష(이태리, 독일, 프랑스, 미국), 가곡클래스(디క్ష과 동일), 오페라를 배우기 위하여 앙상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 성악가
- 지휘자
- 오페라 또는 연주회 연출자
- 합창 단원
- 뮤지컬배우
- 음악감독
- 실용음악관련 종사자 등

Plus+

성악은 성악과의 목소리로 가사를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대부분 이태리나 독일 가곡 혹은 이태리 아리아를 많이 불렀을 텐데, 대학에 진학하여 프랑스, 영미 등 다양한 언어의 가곡들을 접해보고 불러봄으로써 각 나라 가곡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불러야 그 노래의 분위기가 나는지 등등 폭 넓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업생활 이외에 20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추억도 남긴다면 더 좋겠죠?

피아노과

| 김지민(11학번)

PIANO

피아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악기입니다.

클래식, 뉴에이지, 가요 등 대부분의 음악에서 우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주기도 하죠.

이처럼 피아노는 우리에게 어떤 악기보다 친근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듣는 이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연세대학교 피아노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 피아노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피아노과의 수업은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실기수업과 전공과목을 배우는 이론수업,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훌륭한 피아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죠. 실기수업은 지도교수님의 1:1레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아주 세밀한 터치, 호흡, 음색부터 음량의 진폭, 화려한 테크닉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어느 한 시대의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곡가의 곡들을 배우며, 많은 무대 연주 기회를 통해 연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수업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과목으로는 '화성학', '시창·청음', '건반화성' 등이 있습니다. 이 수업들은 실기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음악의 구조와 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음감과 박자감각을 키워주는 수업이에요.

이러한 이론수업들은 무대에서 연주를 하거나 혼자 연습을 할 때, 스스로 음악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며, 다양한 곡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또한 다른 음악 대학 학생들도 그렇듯 피아노과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클리 무대란 전공실기 중 하나로, 훌륭한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 등이 매주 열려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수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피아노과 학생들은 서로의 음악을 통해 음악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보고 들으며 많은 부분을 배우고 느낄 수 있습니다.

■ Q&A

입시 실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곡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적인 장점과 음악성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곡을 선정할 때도 무조건 남들이 많이 하는 곡을 따라서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의 음악적인 색깔과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곡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죠.



■ 피아노과에 들어가면 피아노만 하고 다른 악기들과의 교류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악기들과 같이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음악대학 과목 중 '실내악'이라는 수업에서는 한 학기동안 서로 다른 악기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무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또 다른 독주악기들의 반주도 할 수 있고, 작곡과 학생들의 창작곡들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하며 이로 인해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피아노에 대해 열정을 갖고 즐길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주무대와 실기시험, 전공과목시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선 많은 연습과 공부가 필요한데, 그 모든 걸 착실하게 해낼 수 있는 성실함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진정으로 피아노를 사랑하고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피아노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전공실기
- 화성학
- 시창청음
- 건반화성
- 형식과 분석
- 음악사
- 피아노 문헌 등

■ 졸업 후 진로

- 연주(클래식, 뉴에이지, OST)
- 지도교수
- 음악감독
- 기획자
- 반주전문가 등

Plus+

피아노과에 들어오면 다양한 곡들을 배웁니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레퍼토리를 공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의 곡들만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음악적인 시각이 좁아지게 되겠죠.

미리미리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연습하고 그에 더해 그 시대의 작곡가나 작품에 대한 배경도 살펴본다면 한층 더 넓어진 음악적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관현악과

| 지세진(??학번)

INSTRUMENTAL MUSIC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바순이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 지세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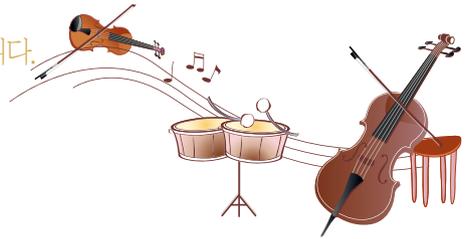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안에는 교회음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그리고 작곡과 까지

총 5개의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의 다른 음악적 특징을 살려서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듣고 배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현악과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관현악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작곡가의 무기는 연필과 공책, 성악가의 무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대! 그렇다면 관현악과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다루고 있는 악기입니다. 관현악과 안에서는 악기가 필수적입니다.

관현악과는 최고 수준의 전문 연주자를 배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교수님들을 통해 심도 있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기와 이론을 병행하여 연주적 수월성과 음악적 통찰력을 겸비한 창조적인 연주자를 배출하고 있는 관현악과는 협연, 앙상블, 등의 다양한 음악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작곡가들은 수많은 연주자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들을 남깁니다. 관현악과 안에서는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전공 악기로 그 작곡가들의 시대적 특징을 연구하며 작곡가의 의도를 생각합니다. 또한 기초음악이론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며 긴 시간 그 곡을 연마하여 완성도를 높여서 무대 위에 청중들과 음악을 통해 공감하는 연주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주'라는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연습과 레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세계적인 작곡가들을 이어 세계적인 연주자를 꿈꾸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개인적인 연습량입니다. 청중 앞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청중과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관현악과 학생들은 한 작품을 갖고 긴 시간을 거쳐 수 백 시간 연습을 합니다.

관현악과에서는 이러한 무대경험을 쌓기 위해 작은 무대에서부터 큰 무대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현악과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학내연주(Weekly Recital)'를 통해 관현악과

학생들은 4년 동안 학생들만의 연주를 갖고 있습니다.

학내 연주는 단순히 연주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신의 문제점을 빠르게 자각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작품의 완성도를 갖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쉽게 말해 큰 무대로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또한 관현악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악기를 연마하는 것만큼 중요한 수업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수업은 관현악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악기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세계적인 지휘자 카리안 못지 않은 실력을 소유하신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에 귀기울이며 화합하고 다른 사람이 내는 악기소리와 자신의 악기소리를 적절히 섞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 관현악과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연주도 갖게 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오디션 을 통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독주자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악,현악 합주 수업을 통해 한 학기에 한 번씩 따로 연주도 진행됩니다.

이 수업들은 오케스트라 수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현악 합주는 현악기(바이올린,비올라,첼로,더블베이스)가 모여 합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악 합주는 관악기 중 목관악기에 속하는 악기들(플루트,클라리넷,오보에,바순,색소폰)과 금관악기에 속하는 악기들(호른,트럼펫,트롬본,튜바 등), 타악기와 하프, 더블베이스가 모여 연주합니다. 이 수업은 오케스트라와 달리 악기별 특징을 두 개로 나눠 소리를 듣고 연주하는 소규모 수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Q&A

보통 관악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누구나 다릅니다. 또한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일찍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재능과 흥미를 일찍 찾아 노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연습시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 질문에는 정해져 있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연습한다면 어려운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루의 연습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시간은 양보단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연습방법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효과적인 연습방법에는 하루 연습 계획을 쓰고, 하루씩 목표를 정해 해나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제보다 더 향상된 실력의 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관현악과의 특성상 악기를 다루는 시간과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공 악기를 더 심도 있게 배우고 나아가 클래식 음악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화성학
- 대위법
- 관현악
- 특수 악기 연주 세미나
- 관악기를 위한 오케스트라 워크숍 등
- 시창·청음
- 음악사
- 실내악
- 현대음악 앙상블

졸업 후 진로

- 연주자
- 지휘자
- 지도교수
- 음악감독
- 오케스트라 단원
- 음악관련 직업 종사자 등

Plus+

음악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관현악과를 다니고 있는 또는 관현악과를 진학하기 위해 꿈꾸는 학생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伸)의 영역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기를 통해 우리의 호흡을 넣고 현을 마찰시켜 울림 속에서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기와 현악기 소리는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듣는 청중에게는 항상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노력 이전에 자신의 악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며 악기와 교감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수준 높은 연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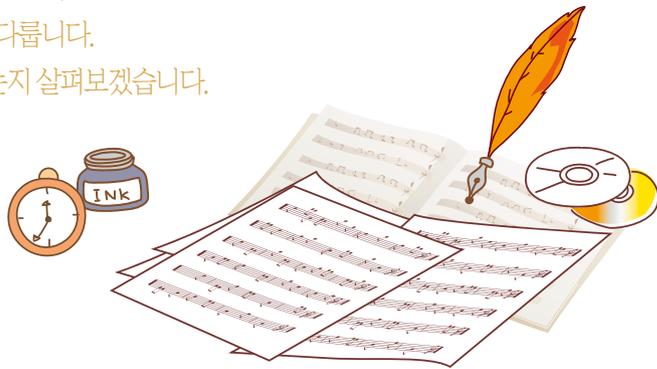
연주자와 악기가 하나 되어 울리는 감동을 느끼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우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곡과

| 권찬영(08학번)

MUSIC COMPOSITION

음악대학에는 피아노과에서부터 성악과, 관현악과까지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학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학과에서 어떤 음악을 다루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피아노과에서는 피아노 음악을 다루고, 성악과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한 음악에 대해 주로 다룹니다. 그렇다면 작곡과에서는 어떤 음악을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작곡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가 하나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할까요? 우선 한글과 같은 하나의 문자를 알아야 할 테고, 이를 능숙하게 배열하는 문법도 몸에 배어야하겠죠. 또 연필이나 키보드와 같이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곡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작곡과는 이처럼 '음악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곡을 만들기 위해서 작곡과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있을까요?

글에서 문법이 매우 중요하듯, 음악에서도 우리가 흔히 음악이론으로 알고 있는 '화성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따라서 화성학은 작곡과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음악에서 도구로 쓰일 악기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배우는 '악기론', 기존의 곡을 다양한 스타일로 바꾸어 보는 '편곡법', 기존 음악의 큰 흐름을 알아 볼 수 있는 '음악사' 등을 깊이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작곡과에서의 실기수업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교내 연주자들을 통해 직접 무대에 올려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작곡가 자신이 만든 곡을 직접

들어보는 좋은 기회이며 또한 스스로 반성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작곡과 수업 내에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음악대학 내에 있는 다른 학과들과 구분되는 작곡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학과들이 기존의 음악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다면, 작곡과는 기존의 음악에서 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음악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같은 음악사나 악기론 과목을 듣는다 하더라도, 작곡과에서는 음악사에서의 획기적인 시드나 악기의 '현대적인 주법'에 대해 더욱 깊이 공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학과들이 주로 '실기수업을 통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공부한다면, 작곡과에서는 실기와 더불어 기술보다는 '음악의 이론'에 대한 수업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곡 창작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음악에 대해 보다 넓고 깊은 범위에서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Q&A

작곡가는 모차르트 같이 길을 지나다가도 영감이 술술 떠오르는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나요?

흔히들 작곡을 한다고 하면, 모차르트와 같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영감들로 술술 써내려가는 '특정 천재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작곡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것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천재 작곡가들도 곡을 쓰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쏟았답니다. 작곡과에 들어오고 또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열정과 노력이 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곡과를 나오면 모두 작곡가가 되나요?

작곡과에서는 곡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다른 과에 비해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음악을 창작하는 데에 뿐만 아니라, 음악이 쓰이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의 진로도 다른 전공에 비해 다양한 편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클래식 작곡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창작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음악에 대한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든 한참 뒤에서야 발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작곡에 적합한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다면, '내가 새로운 음악에 대해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위에서 언급했듯이, 창작뿐만 아니라 음악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전공실기
- 화성학
- 시창청음
- 악기론
- 서양음악사
- 국악개론
- 대위법
- 형식과 분석
- 현대음악문헌
- 현대음악분석 등

졸업 후 진로

- 작곡가(클래식, 대중음악, 뮤지컬, 영화음악)
- 음악감독
- 음악 방송 관련 PD
- 편곡가
- 음악심리치료사
- 음악교사
- 공연기획자 등

Plus +

작곡과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는 '현대음악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현대음악이 뭐냐구요? 현대음악은 '요즘 작곡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을 부르는 말로 작곡과에 들어오게 되면 주로 다루게 될 음악들이에요.

하지만 이 현대음악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보니, '나는 이런 음악을 다루는 곳인지 몰랐다.'라며 혼란스러워 하는 친구들 또한 많아요.

따라서 클래식 음악을 다루는 음악대학의 작곡과에 지원하고 싶다면 한번쯤은 이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곡을 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음악

달에 홀린 피에로(1912) - Arnold Schoenberg

College of Human Ecology



의류환경학과

| 이진희(10학번)

CLOTHING & TEXTILES

생활과학대학에는 의류환경학과에서부터 식품영양학과, 아동가족학과, 실내건축학과, 생활디자인학과까지 정말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생활과학대학의 학과 이름을 살펴보면 우리는 대부분 그 학과에서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물건에 대한 디자인을 다루고, 아동가족학과에서는 유아 및 가족의 한 생애에 대해 다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의류환경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을까요?



■ 의류환경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학교 홈페이지의 학과 소개를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류환경학과는 의생활의 질적 향상과 의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의 연구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인간과 의복환경체계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측면에서 연구하는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은 의류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제반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및 의류산업과 의생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의 배출을 통하여 다변화되어가는 패션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다시 말하자면 의류환경학과는 하나의 옷을 생산하여 판매하기까지 과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공부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소재의 생산, 패턴 설계 및 생산,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영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의류환경학과에서는 이 다섯 가지 영역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를 분석하는 공부 곧,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읽는 일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의상사회심리라는 학문으로도 불립니다. 올해는 어떠한

스타일의 옷이 유행했는데 왜 그 스타일이 사람들에게 각광 받았으며, 내년에는 어떠한 스타일이 유행할 것인가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에 관해 공부하게 됩니다. 디자인이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디자인의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디자인의 기본과 설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세 번째로 소재와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새로운 소재의 개발 혹은 다양한 직물의 염색방식 등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국내 고등학생들의 90%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추측되는 Windshield, 패딩 제품의 주소재인 고어텍스와 같이, 땀을 배출하면서도 비는 막아주는 새로운 직물의 개발 등에 관해 공부를 합니다.

네 번째로 패턴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된 스타일을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영역입니다. 옷의 특성에 알맞은 소재의 선택, 옷감의 재단, 바느질 공법은 어떠한 것일지 공부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패션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생산된 옷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어필해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까에 대해 연구하는 심도있는 학문입니다.

의류환경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위 다섯 가지 기본 분야 모두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의류산업 전반에 관심있는 학생에게 가장 걸맞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Q&A

의류환경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패션과 의류산업 전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관심만 가지더라도 의류환경학과에 진학했을 때, 여러분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아이쇼핑, 패션잡지, 패션쇼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심할 때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의 디자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디자인을 따온 것이든 본인의 창작인지에 관계없이 단순히 시도해보는 것만으로 큰 자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화학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나중에 쉽게 좋은 학점을 받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의류환경학과를 나오면 모두 디자이너가 되나요?

아니요, 의류산업과 관련한 직업들은 디자이너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패션 MD(Merchandiser), 백화점 바이어(Buyer), 패션 에디터, 트렌드 분석, 패션 기획자 등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패션과 관련된 산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MD 혹은 바이어, 패턴메이커, 소재 전문가 등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위주로 공부하거나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실력만 좋다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의류환경학과에서는 무엇보다도 패션과 그 흐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류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현재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패션과 관련된 산업들을 눈여겨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또한 옷과 관련된 신소재, 패션산업과 관련된 마케팅분야 혹은 패션 전문기자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오면 정말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의류산업과 패션
- 의류디자인
- 패턴 CAD
- 패션마케팅
- 럭셔리 패션경영
- 의류재료의 이해
- 패턴 디자인
- 의복과 환경
- 직물조직과 설계
- 서양의 복식문화와 역사

졸업 후 진로

- 디자이너
- 패션MD
- Buyer
- 패션에디터
- 패턴메이커
- VMD
- 신소재 개발 연구원
- 기자 및 방송국 분야
- 스타일리스트
- 코디네이터

Plus+

의류환경학과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패션 브랜드조차 모르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패션브랜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전통의 권위를 자랑하는 럭셔리 브랜드 및 하이패션 브랜드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SPA 브랜드들까지, 국내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의류환경학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옷을 잘 관찰해보고 패션상품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구매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패션과 의류 산업을 다루는 의류환경학과에 지원하고 싶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품영양학과

| 김아령(08학번)

FOODS & NUTRITION

식품영양학과는 생활과학대학에 속하는 학과로서, 문·이과 학생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생활과학대학의 소속인 만큼 실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배우는 학과인데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 요소로 여겨지는 의식주 가운데서도, 가장 생존과 관련이 깊은 '먹는 것'을 다루는 곳이지요. '웰빙'이 선풍적 인기를 누리듯,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식생활의 중요성 및 식품영양학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전문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어떠한 것을 배우고, 졸업 후에는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식품영양학과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식품영양학과라 하면 '식품'이라는 단어에서 '요리'가 연상되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학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리를 하는 학과는 '조리학과'랍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식품영양학은 '생물', '화학', '경영' 분야에서의 기초지식을 우리의 식생활에 적용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식품영양학과에서 어떠한 것을 배우는지 알아보게요.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영양학, 식품학, 급식경영학으로 나누어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배우거나,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판정한 후, 특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혹은 질병이 걸렸을 때는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배우는 '영양학'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먹는 초콜릿이나 과자, 음료와 같은 식품들이 어떠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식품학'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문과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급식경영학'이 있는데 급식경영학은 다시 '급식'분야와 '외식 마케팅'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식 분야는 단체급식분야의 이해와

급식 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고, 외식 마케팅 분야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진이 되었을 때나 식품회사의 마케팅 파트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단순한 체내 대사가 아닌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를 배운다는 점에서 '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의 학과와는 구별되고, 식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식품의 마케팅전략이나 섭취 시 체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 함께 배운다는 점에서 식품공학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급식 및 외식 분야에 초점을 둔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배운다는 점에서 경영학과와 다릅니다.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당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날 저녁식사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점도 있고, 그렇기에 배우면서 더욱 재미를 느끼고, 빠져드는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Q&A

식품영양학과를 나오면 대부분 영양사가 되나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야 영양사 면허증을 딸 수 있지만, 영양사는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직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식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식품영양학의 발전이 더욱 두드러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전문화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죠. 식품회사뿐 아니라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의학연구소의 연구원이나 마케팅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고, 식약청이나 국립암센터와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일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식생활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과 학생이라면 생물이나 화학과목에 재미를 느끼고, 순수 과학 보다는 '순수 과학에 기초하여 실생활에 적용된 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과 학생들 중,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서 특히 외식 마케팅, 한식의 세계화를 비롯한 급식·외식 서비스 분야에 흥미를 느낀다면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여 자신의 능력을 무한히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영양학
영양소 대사, 생화학, 고급 영양학, 임상영양학, 영양판정, 식사요법, 인체영양학, 영양과 건강 등
- 식품학
기능성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가공 및 저장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조리 및 식품개발, 조리원리 등
- 급식 경영학
급식경영학, 외식서비스 마케팅, 단체급식관리 및 실습, 급식외식산업현장실무

졸업 후 진로

- 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
- 영양교사
-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 외식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청
- 농촌진흥청
- 한국식품연구원
- 국립암센터
- 의과대학연구소
- 영양사, 임상영양사, 태릉선수촌 영양사
- 식품전문기자, 식품전문 PD 등

Plus +

식품영양학과에서 4년을 함께 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의학저널의 영양관련 논문 등을 읽으면서 바람직한 식사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또 이를 바탕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어떠한 식생활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아, 고3 수험생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일수록 비타민 섭취가 중요합니다. 매일 과일을 챙겨먹으셔서, 더욱 힘을 내어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들 힘내세요!

실내건축학과

| 윤경하 (09학번)

INTERIOR ARCHITECTURE & BUILT

생활과학계열에는 다섯 개의 전공이 있는데, 식품영양학과와 아동가족학과를 제외한 세 개의 전공은 모두 '디자인'을 다룹니다. 실내건축학과는 디자인을 다루는 세 개의 전공 중 하나인데요, 생활소품이나 가구 등을 폭넓은 시각에서 디자인하는 생활디자인학과와, 의류디자인과 마케팅을 배우는 의류환경학과와는 달리 실내건축학과에서는 어떤 것을 디자인하고, 어떤 것을 배우며,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실내건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의식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실내건축학과는 그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 방에 놓여 있는 가구나 물건의 배치를 바꾼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소품으로 집을 꾸며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 모두 공간을 디자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러한 행위를 했나요? 기존의 물건과 가구의 배치가 불편해서, 또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겠지요. 이처럼 적절하지 못한 공간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가져다줍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올바른 디자인'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그것이 오랜 기간 사용할 집을 짓는다면 아주 큰 백화점의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라면, 즉 쉽게 바꿀 수 없거나 그 영향이 지대한 것이라면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따라서 실내건축학과에서는 '올바른 공간 디자인'을 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공간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에 '올바른' 것이 있을까요? 실내건축학은 공간을 디자인 할 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디자인합니다.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실내건축학에서도 조형적으로 의미가 있는, 즉 '멋있는' 공간 디자인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내건축학과에서는 멋있지만 사용하는 데에 불편한 공간 디자인을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실내건축학과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디자인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실내건축학은 다른 생활과학계열의 전공들과 함께 '실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은, 보다 실질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내건축학과에는 '실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습수업은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론수업과 구분되어 있는데, 실내건축학과 학생들은 공간이나 건축에 대한 이론과 사상에 대해 배우고 동시에 스튜디오 수업을 통해 공간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직접 공간을 디자인해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수업은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되고, 평소에도 자신의 공간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하며,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몸도 써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이론으로 배운 것들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사회에 나가서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실내건축학과와 건축학과는 뭐가 다른가요?

실내건축학과와 건축학과는 모두 건축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두 전공은 유사한 것을 연구하고, 유사한 것에 대해 배우며 실습을 하는 점에서도 비슷해요.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공간을 디자인할 때 건축학과는 실내건축학과보다 조금 더 '건축물'을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실내건축학과는 건축학과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인간)'를 중심으로



ENVIRONMENT

디자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졸업을 한 후의 진로를 보면 두 전공의 졸업생들은 아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실내건축학과를 나오면 무슨 일을 하나요? 집만 짓나요?

실내건축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꼭 '집'만 디자인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물을 디자인 및 설계합니다. 또, 실내건축학과를 나와서 꼭 '공간' 디자인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디자인이란 것에 경계가 없듯이, 실내건축학과를 나와도 가구나 소품 등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건축을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바라본 친구들은 생각해 볼만한 전공이에요. 건축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면 해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미적 감각이나 창의성이 돋보이는 친구들이 와도 좋아요. 건축도 디자인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보기 좋고 창의적인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아주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실내건축학과는 인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해요. 물론 멋진 건물을 짓고 싶은 친구들도 와도 좋지만,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주거공간계획론
- 실내건축디자인이론
- 실내건축구조 및 재료
- 인간공학과 디자인
- 공간환경심리학
- 디자인경영
- 조명디자인스튜디오
- 미래공간기획론

-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 기초설계제도
- 실내건축스튜디오

졸업 후 진로

- 인테리어 디자이너
- 건축설계사
- 가구 디자이너
- 부동산컨설팅
- 건축 관련 연구원 등

Plus +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결정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소한 것에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저는 고2 시험기간에 하던 SIMS라는 게임을 통해 제가 건축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 결정에 대해 실망하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너무 깊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젊은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결정이란 것 자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학생들 모두 힘내세요!

아동·가족학과

도기웅(09학번), 최지은(06학번), 이은지(08학번)

CHILD & FAMILY STUDIES

아동·가족학과가 속해 있는 단과대인 생활과학대학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학문을 배우는 곳인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영어 명칭인 Human Ecology(인간생태학)를 들으면 아~! 하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생활과학대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생태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의·식·주에 관한 의류환경학과, 식품영양학과, 실내건축학과가 있고, 전반적인 생활과 밀접한 각 디자인 분야를 다루는 생활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가족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곳이며, 어떠한 점이 인간 생태와 관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가족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인간 모두는 가족이라는 가장 친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세상을 배우고 성장하면서 일생 동안 중요한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애는 변화와 발달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동·가족학과는 인간의 성장과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발달, 영유아교육, 가족, 상담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아동이 발달해가는 과정과 인간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도록 돕는 교육, 그리고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중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전 생애 발달과정과 개인, 가족구성원, 그리고 우리 사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공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상담도 배웁니다. 또한 아동·가족학과에서는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이라는 놀이 중심의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현장과 밀접한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동·가족학과에 대해 막연하셨던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조금은 아셨나요? 이렇게 영아부터 노인까지 인간의 전 생애적인 발달과 이를 둘러싼 교육기관 및 가족, 사회 환경에 대해 배우는 곳이 바로 아동·가족학과입니다.

■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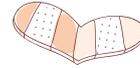
유아교육학과와 아동·가족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아교육학과의 주된 목표는 유치원교사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아교육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게 되지요. 하지만 아동·가족학과는 유아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 및 가족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교육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노년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다음과 같은 학생을 환영합니다.

- 인간과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학생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꿈이거나 영유아 및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은 학생
- 전 생애에 걸친 가족관계의 변화 및 가족의 발달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학생
- 상담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과 가족을 돕고 싶은 학생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아동·가족학과는 크게 '아동학'과 '가족학'이라는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발달, 영유아교육, 가족,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달'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의 전 생애적인 과정을 배웁니다. 이 분야의 수업을 듣고 싶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발달과정을 상세하게 돌이켜 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발달은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여러 다른 학문들과도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학문적인 관심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영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아동을 최적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여러 과목들을 배웁니다. 영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은 물론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이나 세계 빈곤 아동 교육지원, 다문화 아동 교육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교육' 분야 과목들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및 유치원 정교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분야에서는 가족 관계 및 가족 내 역할 이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성 관계, 결혼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중년기와 노년기 가족과 가족 관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또한 가족의 역동성을 거시적인 사회현상과 결부하여 바라봄으로써 기러기가족 등과 같은 사회적인 현상을 해석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상담' 분야에서는 인간 발달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배우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인과 가족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상담하고 치료함으로써 돕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공부합니다. 추후에 상담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은 아동상담, 가족상담과 같은 과목을 통해 상담의 이론적 측면과 실재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에 아동, 가족, 교육 및 발달과 관련된 연구소, 정책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국가기관, 대학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보육이나 교육계의 교사, 기관장으로 진로를 정할 수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상담 및 놀이치료,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분야로 진출하여 상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한 아동, 건강한 가족을 위해 일하는 기업, 복지기관, NGO, 아동국제기구 등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Plus+

5학기를 마친 지금,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동·가족학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토론도 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나와 가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친근한 관계의 이해'라는 수업에서는 학생들끼리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발되는 질투, 갈등과 같은 감정에 대해 배우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아동·가족학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학문입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학과, 아동·가족학과에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디자인학과

| 김경하(10학번)

HUMAN ENVIRONMENT & DESIGN

패션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정보디자인, UX디자인 등...

요즘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면 생활디자인학과는 무엇을 하는 학과일까요?

종종 미대가 아닌데 디자인을 한다는 질문과, 학과 이름만으로 생활용품 디자인하는 학과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의류환경학과와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의류환경학과에서는 의류의 생산, 유통, 관리에 대해 배운다면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까요?



■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이제는 제품의 기획과 생산을 넘어 새로운 가치와 생활문화를 만들어내는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에는 단순히 필요한 기능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문화 예술을 즐기며,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카페를 기획한다고 해볼까요? 카페의 로고, 간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실내에서의 체험적 요소를 기획하고, 이에 따른 가구, 제품, 패션에 이르기까지 고려해야 할 많은 디자인 요소가 있습니다. 통일감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치를 통합적 디자인 방법으로 전하려면 디자인은 물론이고 인문학적 이해와 자기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생활과학대학에서 통합적 시각을 가진 디자이너를 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생활디자인학과입니다.

생활디자인학과는 오늘날 복잡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요구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활, 문화를 디자인의 시각에 기반하여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디자인 크리에이티브(design creator)를 키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 조형과 디자인 이론, 전문디자인 지식, 통합디자인 기획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디자인학과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비슷한 학과와 달리 제품, 패션, 시각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어서 폭넓은 전공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분야를 더 배워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실무에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A

미술이나 디자인 교육을 전혀 받은 적 없는데 괜찮은가요?

생활디자인학과는 생활과학대학의 다른 학과들과 같이 문·이과 학생들을 절반씩 선발하므로 선행되는 미술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이 실질적인 실습 경험 없이 입학합니다.

물론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과목이 많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수업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우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의류환경학과와 생활디자인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의류환경학과는 의류산업과 상품기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면, 생활디자인학과는 패션디자인교육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기획과 실습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의류산업 분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의류환경학과를,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폭넓고 통합적인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면 생활디자인학과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디자인을 하고 싶지만 고2 때까지 실기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획일적인 미술 입시 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디자이너의 길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디자인학과의 장점은 실기 시험이나 포트폴리오 없이도 입학할 수 있고, 교양수업이나 다른 학과의 수업을 들으면서도 디자인 전문가의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다면 조금 약한 부분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디자인 기초 과목으로는 관찰과 표현, 상상과 표현, 색채조형, 디자인요소와 소재, 사용자경험과 디자인, 디자인기획, 패션일러스트레이션, 2D/3D 디지털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 후 전공 선택에는 디자인사와 트렌드에 관한 이론 과목부터 통합디자인 과목, 제품·패션·시각 디자인 과목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에는 패션디자인기초,

패션트렌드기획, 패션액세서리디자인 등이 있고, 제품디자인에는 제품디자인기초, 가구디자인, 생활용품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각디자인에는 타이포그래피, 비주얼커뮤니케이션, 광고디자인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교육계, 연구소, 디자인업체(UX디자이너, 서비스전략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MD, 제품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비주얼머천다이즈), 전공관련 언론매체(디자인전문기자, PD,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정보디자이너) 등

Plus+

저는 어려서부터 미술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미술을 하기 위해 인문계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며 '입시 미술'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현실이 싫기도 했어요.

반드시 그림 그리기 기술이 좋아야만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미대를 가는 것 외에도 디자이너가 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디자인학과는 딱 나와 같은 학생을 위한 곳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의 장점은 그저 디자인 기술자가 아닌 인문학 지식과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이자 기획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교류로 디자인의 영역에 대한 시야를 더욱 넓힐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저와 비슷한 고민으로 디자인을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과학대학

교육학전공 Education

체육교육학과 Physical Education

스포츠응용산업학과 Sport Industry Studies

교육학전공

| 권혜진(10학년)

EDUCATION

대부분 교육학과라고 하면 앞에 어떠한 과목명이 붙어있는 ○○교육학과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영어교육학과라고 하면 영어를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국어교육학과라고 하면 국어를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떠한 특정 과목과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교육학부(교육학전공)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학부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교육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여러분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막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같은 학교 내부에서의 배움과 가르침을 떠올리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교육은 학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리고 사실상 평생에 걸쳐 우리의 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등을 배울 때 항상 '교육'을 필요로 하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학은 학교 및 교실 속에서의 교육 현상에 대해 배우고 실질적인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범교육학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학은 교육에 관한 관심의 폭을 학교 내부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인 사회, 문화, 역사 등 학교 밖의 현상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시야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학문분과와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학문과 생활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부에서는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경제학, 공학, 통계학 등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성을 통해 교육 현상의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또한 교육학적 시각으로 본 역사, 사회, 문화, 행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학의 다른 학문과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학문의 특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문에 대한 소양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학부는 또한 실천적인 교육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의 생명은 교육학 이론 자체에 있지 않고 생생한 교육 현실에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실천적 힘을 지니고 있는 전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교육학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전통과 특성에 걸맞고 동시에 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교육이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여러 학문에 대한 공부를 통해 노력하고 있는 학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교육학의 연구와 실천을 아울러서, 세계의 여러 교육학 담론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그 형성에 참여하면서 세계교육문명의 진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 발 앞서 노력하고 있는 학문이 교육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Q&A

그렇다면 교육학부에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학부에 입학하면 우선 여러분의 제1전공은 교육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희망 교과목 관련 전공에 대해 복수전공을 하여 일반 사범대와 같이 교원자격증(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자격증을 획득한 다음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국립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며 혹은 소정의 공채과정을 통해서 사립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학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인가요?

아니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육학은 교육과 이와 연계된 밀접한 여러 학문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교실 내의 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일단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사범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것이 교육학의 주된 목표이자 활동이므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지요?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문을 배우는데 있어 흥미를 느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발전시켜나갈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또한 누군가에게의 전달을 통한 교육에 뿌듯함과 성취감을 크게 느끼는 학생이라면 훌륭한 교육학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교육행정
- 인적자원개발
- 교육심리학
- 교육경제학
- 한국교육사
- 교육학개론
- 교육리더

졸업 후 진로

교육학부에서는 교육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교육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교육 전문가 양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 기업체의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전문가
- 산업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컨설턴트
- 대학교수 및 교육 연구 전문가
- 중등학교 교사
- 교육행정가
- 카운슬러
- 평생교육사
- 청소년지도자
- 사회교육전문가
- 교육행정전문가
- 대안교육실천가 등

Plus+

교육학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교육에 관한 폭넓은 학문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이렇듯 교육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초 소양을 쌓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학문입니다. 또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할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의사소통에 능숙하며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혹은 한국 교육의 발전에 주체적으로 힘쓰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교육학이 적성에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전공 선택에 앞서,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후회 없는 전공 선택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교육학과

| 최보슬(07학번)

PHYSICAL EDUCATION

다른 학교와 달리, 연세대학교는 사범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연세대에서 유일하게 사범대 계열과 같은 '교육'과 관련된 단과대학이 교육과학대학인데, 그 중에서도 체육교육학과는 체육이라는 과목에 집중하는 전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 교사와 스포츠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체육교육과에서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까요?



■ 체육교육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학창시절 남학생에게는 가장 즐거웠던 시간, 여학생에게는 가장 몸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체육 시간을 이끄는 사람이 체육 선생님인 것은 당연하겠지요.

체육 선생님들은 주로 실기를 가르치지만 실제로 체육교육에서 배우는 과목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체육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인체 조직 및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근골격계구조학', 운동에 필요한 대사 작용호르몬의 작용과 면역 기능 등에 대해서 배우는 '운동생리학', 운동 선수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배우는 '스포츠심리학', 운동 중 상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재활 트레이닝에 대한 원리와 실제를 배우는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재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체육 교육 방법을 배우는 '체육교육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체육이기 때문에 실기 수업은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전문적인 체육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실기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와 더불어 어떻게 해야 미래의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됩니다.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미래의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 전공 실기와 이론을 공부하는 동시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교직 수업에는 '교육사회',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역사'와 같은 교육학 수업을 배우는데 이것이 후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에는 필수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교육과에서의 모든 과목을 성실히 이행했을 시, 임용고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인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에서 배우는 '운동역학', '생리학', '체육교육학'과 같은 과목을 심화해서 공부하거나, 이 과목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스포츠 재활치료사나 운동건강전문가 또는 스포츠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육을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고 운동에서 오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학과입니다.



Q&A

체육교육과에 진학하려면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교육과에 진학하는 데 운동이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동능력이 체육교육과에 입학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고전을 뛰는 운동부와 같은 경우는 미래의 프로 선수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순수 운동능력으로만 학교에 입학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체육교육과는 체육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바른 인성을 봅니다. 이에 따라, 실기 관련 실적만큼 내신이나 수능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인성을 보는 면접도 있으니 실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육교육과 진학에는 남자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요?

연세대학교에서는 체육교육과 선발 시 남녀의 비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기에서 남녀의 기준이 달라, 남학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녀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진학하는 성비도 다르지만 여학생들의 비율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실기·수능·내신, 이 3박자가 모두 잘 갖춰져야 하므로 운동을 더 많이 접해본 남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할 뿐이지, 여학생들에게 불리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체육교육과의 최종 목표는 체육교사, 전문적인 체육지도자, 스포츠 과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체육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체육을 정말로 즐기고,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거나 운동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알맞은 학과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근골격구조학
- 운동역학
- 운동생리학
- 농구교수법
- 육상교수법
- 체육교육론

- 운동처방
- 체육원리
- 교역사회

졸업 후 진로

- 체육교사
- 스포츠 지도자
- 스포츠 재활치료사
- 방송국 스포츠 PD, 스포츠 기자, 아나운서
- 스포츠 구단 마케팅 관련 사업
- 체육학과 교수 및 연구원 등

Plus+

한국의 대학생생활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연고전! 연고전에서 뛰는 운동선수들도 모두 체육과에 속해있답니다. 운동선수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연고전에는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축구 등 총 5종목이 있습니다. 연세대가 배출해 낸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들도 많죠. 야구의 이순철, 故 최동원, 농구의 우지원, 이상민, 축구의 허정무, 조광래 등... 연세대의 운동선수들과 친해지면서 연고전에서도 모교를 응원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응원하는 애뜻함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연고전을 제일 재미있게 즐기는 학과가 체육교육학과가 아닐까 싶네요.

스포츠응용산업학과

| 김예슬(11학번)

SPORT INDUSTRY STUDIES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에는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체육교육학과, 교육학과 이렇게 3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교육과학대학은 교육이나 체육이 학교나 교실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전래의 고답적이고 타성적인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학대학은 교육 및 체육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과 기능의 숙달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역동적인 삶의 실천이란 개념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교육을 통한 변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대학에서는 청소년 지도자, 각종 기업체의 교육 전문가, 교육 및 체육 전문 행정가, 영재 교육 및 장애인 교육 전문가, 건강 및 체육 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전문가, 스포츠레저 전문가 등 교육 및 체육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스포츠응용산업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응용산업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 및 개발 되어온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는 더욱 여유롭게, 신체적으로는 더욱 건강하게, 사회적으로는 보다 원만하게, 소위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그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다학제간 학문인 스포츠응용산업학은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철학 및 외교학, 스포츠 행정 및 경영학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다기능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을 복합적 또는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를 교육 및 양성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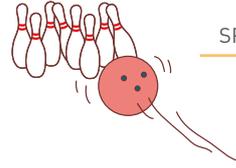
또한 그 외에도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운동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이론과 실무에 대해 연구하는 스포츠 의학, 특정 집단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특수 체육, 문화 및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스포츠 문화사, 레저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순기능 및 복합 기능을 연구하는 여가학 등의 스포츠를 응용한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 Q&A

말로만 들던 연구전!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학생들이 직접 뛰는 건가요?

연구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우리 학과 학생들 중 일반학생이 아닌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학생선수'로 불리는 체육특기자는 일반학생과 학사 커리큘럼은 다르지만, 같은 학과 학생이므로 매우 친밀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즉, 연구전은 학생선수들이 뛰고, 일반학생들은 타과 학생들과 함께 응원을 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학생들은 아마추어 연구전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체육계열이면... 운동만 잘하면 되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운동도 잘해야 합니다.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정시 전형의 경우, 내신과 수능의 비중이 85%, 실기시험이 15%를 차지합니다. 또한 실기시험은 농구 외 9종목 중에서 1종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됩니다. 입학 후 배우는 전공수업들도 이론수업이 70%, 실기수업이 30%를 차지합니다. 즉, 공부와 운동 모두 잘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오면 좋습니다. 실제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더 잘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편입니다. 또한 스포츠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들(경영, 의학, 미디어 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친구들이 온다면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이론과목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마케팅, 여가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철학, 스포츠 문화사,
스포츠 행정 및 경영, 스포츠 미디어, 특수체육,
스포츠 정책 및 법, 스포츠 투어리즘,
스포츠레저 카운셀링,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의학의 이론과 실제 등

· 실기과목

동계스포츠(스키, 스노우보드),
하계스포츠(요트, 윈드서핑, 스카우터),
수영, 골프, 배구, 태권도, 유도, 한국무용,
호신술, 볼링, 승마, 보디빌딩, 농구,
스쿼시, 댄스스포츠, 테니스,
인라인스케이팅 등

졸업 후 진로

- 체육 기관 행정가
- 체육학과 교수 및 연구원
- 스포츠 방송 관련(PD, 기자, 아나운서, 캐스터)
- 프로스포츠 구단 관련 사업
- 스포츠 마케팅 관련 사업
- 스포츠 의학 관련 사업 등

Plus+

체육계열(스포츠응용산업학과, 체육교육학과) 내에는 다양한 학회(학생회, 언론매체반, 교지팀) 그리고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트, 조정, 리크로스, 수영, 야구, 스키·스노우보드, 축구(남·녀), 농구(남·녀), 배구 등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종목들의 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후배, 동기들과 취미를 공유하며 즐길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대학교 내 중앙동아리 및 대외활동을 참여한다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에는 캠퍼스 내 복수전공,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다양한 학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 전공인 스포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융합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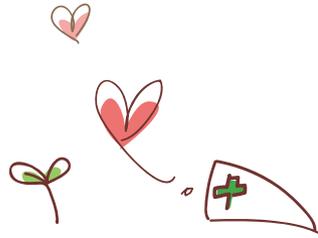
간호학과 Nursing

간호학과

| 정이랑(07학번)

NURSING

백의의 천사라는 말을 들으면 딱 생각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건강을 수호하는 간호사입니다.
이런 백의의 천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간호학'이라는 전공과 그 진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간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간호학'이란 간호의 대상자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이해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공이다 보니 이론 과목 이외에도 실습과 컨퍼런스(실습 때의 케이스를 토론하는 수업)가 있는 것이 특징적인 면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cure(치료)보다 대상자 자체에 대한 care(돌봄)의 측면에서 대상자에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의학과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 Q&A

간호학과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타 과에 비해 비교적 많은 수업과 함께 상당의 비중의 실습, 컨퍼런스 등이 병행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자체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에 따른 전반적인 치료 방법과 그에 따른 간호 신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영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학습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학습 영역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실습은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체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호사는 3년제(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의 의미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별도의 입학 시험 없이 1년간의 수업을 거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간호사를 보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문간호사란 '간호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 이후에 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상급실무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동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중앙전문간호사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며, 이 또한 대학원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전문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들입니다.

남학생은 얼마나 있나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5~30% 정도 남학생들이 있는 실정이며, 그 비율은 해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남학생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군(軍)의 높은 수요로 인해 간호장교, 의무병, 부사관 등 다양한 병역 기회가 있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먼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있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생물학과 화학에 대한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간호의 대상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문과, 이과 모두 망설이지 마세요! (거의 모든 학교가 문/이과 분할 모집 또는 자유로운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근성, 체력과 지구력, 창의력을 가진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우선 1학년에는 간호학개론(간호이론, 간호철학, 간호역사학 및 기 간호에 관한 입문 과목)과 함께 생물학, 화학, 사회학, 영어 등 다양한 교양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기초를 쌓은 이후에 2학년 무렵에는 건강사정, 병태생리학, 약리학, 보건통계학 등의 본격 간호학 이전에 바탕이 되는 학문을 배웁니다. 또한 주사, 무균술, 도뇨, 혈압, CPR 등의 실습을 동반한 기본간호학을 학습합니다.

이후 3, 4학년에는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간호연구론 등의 이론 수업을 듣습니다. 그와 함께 병원, 지역사회(기업, 학교, 보건소 등)에서 실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과목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접한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소수의 학생과 교수님간의 토론식 수업인 컨퍼런스로 실무 감각도 익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노인간호학, 중환자간호학, 응급간호학, 간호정보학, 영적간호, 영양과 식이 등의 과목들도 선택하여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졸업 직전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국가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여 비로소 의료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병원간호사가 가장 대표적인 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 간호사는 병원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투석실, 외래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이외에도 보건간호사(공무원)나 보건진료원,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교직이수를 통한 보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4년제 간호학과 졸업 후) 전문사관으로의 지원을 통한 간호장교, 보험심사간호사, 싱홈(요양시설) 경영자, 가정간호사도 가능한 진로입니다. 박사 과정까지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한 이후에 대학교수가 되거나, 분만 영역의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후 추가적인 면허시험에 합격해 통해 조산사(助産師) 등의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Plus+

간호사는 3H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이야기 되곤 합니다. Head, Hand, Heart. 대상자를 위한 풍부한 지식(Head)과 빠르고 정확한 기술실력(Hand)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자를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며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Heart) 말입니다.

점차 고령층이 두터워지고 웰빙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진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의 역할에 더 많은 발전적이고 폭넓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래 유망직업으로 항상 등장할 만큼 간호학과는 도전적이고 의미있는 전공이라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간호사'의 활동에 더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라는 책과 KBS '다큐멘터리 3일'의 96화 『나이팅게일 다이어리 - 소아병동 간호사의 72시간』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훗날 선후배 간호사로 만나길 기대할게요!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언더우드국제대학

언더우드계열 Underwood Field

언더우드학부 Underwood Division

융합인문사회계열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Field

아시아학부 Asian Studies Division

테크노아트학부 Techno-Art Division

융합사회과학부 Integrated Social Sciences Division

융합과학공학계열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융합과학공학부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언더우드국제대학

UNDERWOOD INTERNATIONAL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의 교육 철학

언더우드국제대학은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는 4년제 Liberal Arts College로 한국 최고의 사립대학인 연세대학교의 인프라와 교수진이 세계 유수 대학의 학부교육철학에 기반한 엘리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UIC 학생들은 국내외 석학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폭넓은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며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벽을 허물고 여러 분야의 학생과 교수진이 공통교육과정에 참여해 활발한 지식교류와 학제간 사고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UIC의 장점입니다. 세계 일류 대학에서 초청한 교수진이 가르치는 융복합적 UIC Common Curriculum은 현대 학문의 복잡한 지적 지형도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지적 체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UIC는 다양한 국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 학생들이 미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창의성으로 무장하여 보편적 사고의 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훈련합니다.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

관용과 겸손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 있는 국내외 공공분야의 인재로 양성합니다.

세계시민사회의 리더

국제 이슈에 대한 해박하고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추도록 교육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수고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동아시아, 한국과 세계 간 연대 구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Liberal Arts College 교육의 핵심 : UIC Common Curriculum

모든 UIC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UIC Common Curriculum을 수강합니다. Liberal Arts College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UIC Common Curriculum을 통해 학생들은 융합적 관점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하고 학습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 흥미, 강점을 발견하도록 해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리더로 성장하는데 바탕이 됩니다. UIC Common Curriculum은 비판적 사고, 동서양의 문명, 세계 문학, 역사, 철학, 연구방법설계 및 정량조사연구방법론, 신입생을 위한 고급영작세미나 그리고 상급생을 위한 UIC 세미나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UIC 학생들이 전공 지식 외에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현대 학문의 복잡한 지적 지형을 탐색할 능력을 갖춘 인재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UIC Common Curriculum에 깔려 있는 융복합적 접근 방법은 학생들이 본인의 학술적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는데 다양한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COLLEGE

언더우드국제대학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언더우드계열

Underwood Field

언더우드학부

Underwood Division

- 비교문학과문화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CLC)
- 경제학 Economics (ECON)
- 국제학 International Studies (IS)
- 정치외교학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SIR)
- 생명과학공학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LSBT)

융합인문사회계열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HASS) Field

아시아학부

Asian Studies Division

- 아시아학 Asian Studies (AS)

테크노아트학부

Techno-Art Division

- 문화디자인경영
Culture and Design Management (CDM)
- 정보·인터랙션디자인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IID)
- 창의기술경영
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CTM)

융합사회과학부

Integrated Social Sciences Division

- 사회정의리더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JCL)
- 계량위험관리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QRM)
- 과학기술정책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STP)
- 지속개발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융합과학공학계열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ISE) Field

융합과학공학부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 나노과학공학
Nano Science and Engineering (NSE)
- 에너지환경융합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EESE)
- 바이오융합
Bio-Convergence (BC)

언더우드계열

UNDERWOOD FIELD

언더우드학부 UNDERWOOD DIVISION

■ 비교문학과문화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21세기 최대의 화두는 '문화'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이 자국의 문화를 선양하여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선포한 바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한류 열풍에 힘입어 명실공히 세계의 열강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섭'과 '융합'의 시대적 정신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지난 세기가 학문 및 사회 제반 영역에서의 전문화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였다면, 오늘 날의 사회는 학문의 탈경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비교문학과문화 전공은 이렇게 학문 간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 문학과 철학, 순수와 응용 등 인접 학문 상호 간의 연계와 통섭을 통해 신학문적 패러다임의 도출을 적극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최대의 경쟁력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비교문학과문화 전공이 지향하는 가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문학과문화 전공은 중국어, 불어, 서반어 등의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국제무대에서 각국의 두뇌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지도자급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제학

Economics

경제학 전공 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경제학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중요한 경제 문제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제반 현실 경제적 문제들과 경제와 관련된 공공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그에 기반해 전문적인 경제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학문의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에서는 장래 경제학자를 희망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관련된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학생들 모두에게 철저하고 수준 높은 경제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전공 학생들은 대안경제시스템, 제도비교분석, 계량경제학, 경제발전론, 경제성장론, 경제사, 산업조직론, 국제무역론, 노동경제학,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금융경제학, 금융공학이론, 게임과 계약이론, 법경제학, 재정학 등 경제학의 여러 세부 분야를 두루 섭렵하게 됩니다.

■ 국제학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기구, 정부기관, 다국적 기업에서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것은 기술의 진보, 문화 및 경제의 융합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제학 전공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고전적인 분과학문들의 좁은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세 가지 핵심이 되는 학문들(국제관계론, 경제, 국제법)의 장점들을 모두 아우르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오늘날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UC의 국제학 전공에서 학생들은 동아시아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통해 해당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정치외교학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 전공은 장차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국내외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배울 뿐 아니라, 국내외 공공분야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준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치외교학의 교육과정은 주로 학생들이 전세계 정치 시스템상 나타나는 정치적인 규범, 제도 그리고 과정과 행동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과 도구를 가르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생명과학공학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

생명과학공학 전공은 21세기 국내외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및 산업을 창의적이며 선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생화학, 세포생물학, 면역학, 유전체학, 발생학, 분자생물학, 단백질학, 미생물학, 생물의학 분야의 최신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적 학문을 토대로 의학, 생명공학 등의 응용학문분야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전자, 단백질, 세포와 기관들의 다양한 기능과 질병을 지닌 동물모델을 이용한 질병 메커니즘 규명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대 생물학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배아 및 성체 줄기 세포 연구와 동물 복제뿐 아니라, 분자적 수준에서 장기들에 대한 핵심 개념을 배울 수 있게 기초단계와 심화 단계의 수업을 모두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생명, 의학, 생물공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과학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융합인문사회계열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FIELD

융합인문사회(HASS)계열은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 그리고 가장 최근 신설된 융합사회과학부를 포함하며 지역학, 예술, 경영, 사회과학, 인문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접근의 시너지가 중요한 교육의 근간이 됩니다.

학생들은 각 영역에 전문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 학문을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공공분야, 다국적 기업, NGO, 학계 등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유연한 대처 능력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시아학부 ASIAN STUDIES DIVISION

■ 아시아학 Asian Studies

아시아학부는 인문학에 바탕을 두고 UIC Common Curriculum과 지역학을 접목시킨 융합전공입니다. 아시아학 전공 학생들은 1학년 때 UIC Common Curriculum을 이수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 전공 수업과정을 듣게 됩니다. 학문과 국가의 경계를 아우르는 아시아학부 커리큘럼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시각을 길러주는 한편, TWR(Critical Thinking, Writing and Reading) 프로그램을 통해 비판적 사고, 작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학부 전공자들은 고학년으로 진급하면 듣게 되는 아시아 L - H - P series(Literature-History-Philosophy) 전공 과목을 통해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관계를 국가가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시적 안목을 기르게 됩니다.

테크노아트학부 TECHNO-ART DIVISION

■ 문화디자인경영 Culture and Design Management

문화디자인경영 전공은 문화, 디자인, 기술, 그리고 경영을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및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가 및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전공의 학제간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문화 산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졸업생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직종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1) 제품 기획자, 디자인 컨설턴트, 문화 관련 기업의 매니저 2) 크리에이티브디렉터, 게임 프로듀서, IT 회사의 아티스트/디자이너 3) 브랜드 마케터, 패션 MD, 아트 큐레이터 등 본 전공의 유연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매니저, 디자이너, 혹은 기업가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정보·인터랙션디자인

Information and Interaction Design

정보·인터랙션디자인 전공의 목표는 혁신적인 정보, 제품,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본 전공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 및 관련 기술과 인간 행동 방식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제간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 및 생활 환경에 다양한 혁신들을 실현할 수 있는 뛰어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졸업생들의 진로는 크게 1) 기술 제품 디자인 관련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 인터랙션/경험 디자이너 2) 광고 영상 관련 또는 게임 회사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 3) 신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창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서비스, 제품 기획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거나 실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등을 수행하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창의기술경영

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창의기술경영 전공은 UC에서 지향 하고 있는 최고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전공자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역량 및 문제 해결 방법, 다양한 IT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영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의 학생은 창의적 리더십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기업경영관리 역량, 전략적 비즈니스 기획관리 능력 등을 두루 익히게 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창의적 기업가정신(Creative Entrepreneurship)을 갖고 있는 최고의 차세대 경영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론과 병행하여 실무적인 지식 및 경험을 습득하게 됩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1) 창의적 융합산업 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2)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디지털미디어, 융합방송통신, 게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신사업 전략 기획 전문가 3)금융 분야 분석가 또는 벤처기업 분석가, 연구원 4)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을 자문하는 경영전략컨설턴트 5) 공공기관의 산업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합사회과학부 INTEGRATED SOCIAL SCIENCES DIVISION

융합사회과학부에서는 현대사회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적용하기 위한 융합적이며 학제적인(學際的) 접근법이 제시됩니다. 융합사회과학부 학생들은 시민사회, 금융, 공공정책, 개발과 경제발전, 그리고 기술에 걸친 상호작용들에 대해 연구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넘나드는 균형 잡힌 관점과 현장과 이론을 접목할 수 있는 사고적 틀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며, 융합사회과학부는 바로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부입니다.

융합인문사회계열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FIELD

■ 사회정의리더십

Justice and Civil Leadership

사회정의리더십 전공은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전문성을 겸비하여 국내외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정의리더십 전공은 학생들에게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인간의 삶과 공동체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 가치정향을 체득하게 합니다. 또한 법철학, 법사회학 등 법학적 인식론과 방법론과 기본적 지식체계를 연마시켜 인문사회적 현상들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공적 소통과정에서 공공문제로 전환되어 해결되는 과정을 주도하는 시민적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규범적 분석력, 판단력, 정책기획력, 창의적 실천력 등을 기르는데 교육목표를 둡니다.

■ 계량위험관리

Quantitative Risk Management

최근의 금융위기, 더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상품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합이 되어가는 금융시스템 등으로 인해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금융위험의 측정과 관리는 금융권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계량위험관리 전공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위험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해하며 관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계량위험관리 전공은 과거 분리되어 왔던 관련 학문분야들(경제학, 통계학, 금융공학, 보험계리학 등)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금융위험들을 계량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융합전공입니다. 학생들은 거시적인 경제학적 안목과 함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거기에 내재된 위험의 수리 모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로 양성될 것입니다.

■ 과학기술정책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과학기술정책 전공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 공학을 한데 아우르는 학제적 학문으로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의 이해와 이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수행에 초점을 둡니다. 과학기술정책 전공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 해석할 수 있는 생각의 열개와 이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력의 배양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전공생들은 분과학문들의 단절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학문을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방식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지속개발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지속개발협력 전공은 국제개발 관련 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속가능 경제성장, 환경보전, 빈곤 퇴치, 불평등, 인권, 보건, 교육과 같은 폭넓은 개발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경험을 여러 학문 간의 융합 교육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개발협력 전공 학생들은 경제학, 정치학, 인류학, 역사학 등 여러 학문 관점에서 다양각색의 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개념적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향후 개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융합과학공학계열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

융합과학공학(ISE)계열은 순수과학과 공학 분야 쪽으로 장래를 희망하는 학생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순수과학 또는 공학 학부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학제간의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융합 계열입니다. 소속 학생들은 심도 깊은 이론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랩에서 직접 실험을 수행하면서 학설들을 적용해 봄으로써 생명, 에너지환경, 나노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사회나 정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융합과학공학부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 나노과학공학

Nano Science and Engineering

나노과학공학 전공은 나노학문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물리, 화학 등 기초 학문 분야와 다양한 나노응용분야를 포괄하는 경쟁력 있는 융합형 교육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노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 나노바이오, 나노전자와 같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나노과학공학 전공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 최고의 교수진이 제공하는 나노기반 교과목과 나노스케일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원리 및 창의적인 응용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부에서부터 체계적인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기초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에너지환경융합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에너지환경융합 전공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기후변화, 물 문제의 기술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환경융합 전공은 에너지·환경 기술 분야의 연구 및 정책결정을 위한 미래 세대를 키우고, 다양한 분야와 협력이 가능한 융합 리더를 배출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국제교류를 통하여 에너지·환경 분야의 Asian Hub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바이오융합

Bio-Convergence

바이오융합 전공은 제약, 생명공학, 화장품과 같은 생명산업을 선도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새로운 리더를 키우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융합 전공은 자연과학,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약과학을 중심으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응용하여 인류의 삶의 질의 향상에 공헌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다학제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연구기회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기술의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한 분야(과학정책과 산업의 결과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제도와 규제, 사회적인 영향력 평가)와 시장분석 및 가치평가 분야의 지식을 얻으면서, 생명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를 다면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Global Leadership Division

Going





to the



WORLD

글로벌인재학부

글로벌인재학부 Global Leadership Division

글로벌인재학부

GLOBAL LEADERSHIP DIVISION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글로벌인재학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학생을 위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글로벌인재학부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인재학부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품, 자본, 노동, 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환경에 걸맞은 ‘인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언어 구사능력 및 의사소통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또는 국제관계 등을 이해하고 실제 사안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인재학부는 외국인 유학생, 해외에서 초중등교육과정 모두를 이수한 학생,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등 대한민국보다 주로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신이 지닌 국제적인 경험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글로벌인재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제통상’ 또는 ‘한국문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상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전공의 경우 한국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유례(類例) 없이 단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근현대 한국의 언어, 문학, 문화, 역사 전반에 걸친 사회적 맥락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진학 이전부터 이미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해 온 학생들이 글로벌인재학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언어 등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Q&A

글로벌인재학부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초·중·고교 전 교육 과정 해외이수자
-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국제계열)

글로벌인재학부에 지원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로벌인재학부는 2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업역량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과 관용적 자세, 미래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글로벌인재학부 학생을 선발합니다.

글로벌인재학부도 신촌캠퍼스에서 공부하나요?

네, 글로벌인재학부 학생들도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에서 1년 간 RC 교육을 받은 후 2학년부서는 신촌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글로벌인재학부 입학 시기는 언제인가요?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국제계열 지원자는 3월 입학만 가능하며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들은 매해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입학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데도 입학이 가능한가요?

네,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에는 국제캠퍼스 한국어학당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며 한국어교육과정 이수결과는 최대 9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한국의 언어, 사회, 경제 및 문화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국제 NGO, 다국적 기업, 외교부 등 향후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은 학생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글로벌인재학부 전공은 크게 '한국문화'와 '국제통상'으로 나뉩니다. '한국문화'의 경우 언어, 역사, 철학, 문화를, '국제통상'의 경우 경제, 경영, 국제정치 및 국제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기설계전공' 제도를 통하여(의·치·간, UIC, 음악대학 등 일부 특수 단과대학 또는 전공을 제외) 연세대학교 개설학과 또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기에 캠퍼스 내 복수전공 제도까지 이용한다면 학생들은 두 개의 학위, 세 개의 전공까지도 취득이 가능하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졸업 후 진로

글로벌인재학부 학생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문화 또는 국제통상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설계전공 또는 복수전공 제도를 통해 본인이 관심 있는 학문 영역에 대하여 추가로 전공지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진출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다국적 기업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현재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국제기구, 국제 NGO 등에 관심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 모의 UN대회에 참가하는 등 실력과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재학생 경험담

Wongxiang Yi Melissa[Raffles Institution(Junior College)]

고교 진학지도교사에게 한국대학에 대한 저의 관심을 상의하면서 글로벌인재학부 안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글로벌인재학부가 제공하는 폭넓은 교육프로그램에 매력을 느낀 저는 2015년 9월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하와이, 일본, 인도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고 사려 깊고 헌신적인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저의 학업 및 한국어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저는 연세와 글로벌인재학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여진[長野県諏訪清陵高等学校]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재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께서 한국 유학을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글로벌인재학부에 들어온 것은 하나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진학하고 싶은 전공과 다른 학부로 접수가 되어 매우 상심했었지만, 지금은 그때 실수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글로벌인재학부에서 저의 시야와 사고방식이 넓어졌습니다. 자기설계전공과 복수전공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세대학교의 다양한 전공을 탐색할 수 있으므로 입학하기 전 진로를 미리 선택하는 것보다 글로벌인재학부에서 여러 가지를 배워 가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저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Plus+

아직까지 낯설지만, 현재를 보기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라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 스스로를 무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글로벌인재학부입니다. 내가 속한 경계를 넘어, 더 넓은 곳을 향해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글로벌인재학부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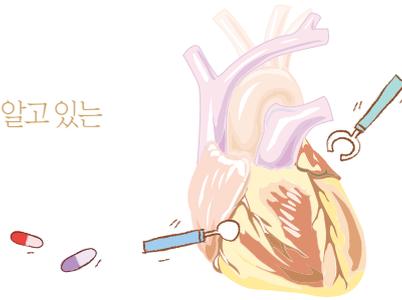


의과대학

의학과 Medicine

많은 친구들이 의대에 오고 싶어 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싶어서, 의사라는 직업이 멋있어 보여서 혹은 그저 가족들이 원해서,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의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의대는 어떤 곳일까요?



■ 의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의대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꼭 법대를 나올 필요는 없지만, 의사가 되려면 꼭 의대를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의과대학은 단과대학의 이름이고 여러분이 입학하게 될 과는 의예과입니다. 의대에 입학하면 의예과 2년과 의학과 4년으로 총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의예과(예과)에서는 의학과(본과)에서 배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초적인 수학과 과학, 그리고 영어와 교양 등의 과목들을 배우며 2년을 보내게 됩니다. 본과에 오기 위해 필요한 과목들을 다 들으면 이제 본과에 오게 되는데, 본과 1학년 때는 기초의학, 2학년 때에는 임상 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임상 의학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무슨무슨 과라고 하는 것들이예요. 내과, 외과, 소아과 같은 과목들이 있지요. 기초의학은 이 임상 의학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약리학 등의 과목을 말합니다.

본과 3학년부터는 병원에서 실습을 돌게 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직업이 아니고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과 3학년 때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그리고 기타 다른 과 일부를 돌게 되고, 본과 4학년 때 나머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돌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의대에서는 사람의 몸의 정상구조, 이상구조와 그 치료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A

무슨 과 선택하고 싶어요?

의대생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느 과를 선택할 것인지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자신의 전공 분야를 결정하는 것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까지 마친 후, 레지던트가 될 때입니다.

의예과 1학년이라면 앞으로 6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1년간의 인턴을 마친 후, 즉 7년 뒤에야 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확고하게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 혹은 병원에서 실습을 해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어느 과를 갈까 고민하는 것처럼 의대생들도 나중에 무슨 과를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한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1) 인간의 몸에 대한 호기심

의대는 사람의 몸에 대해 배우고 그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공부하는 것이 재미없겠죠? 더구나 의대는 공부량이 많은 전공입니다. 공부할 것이 많은데 재미도 없다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2) 자기희생정신과 환자에 대한 애정

의사라는 직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환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진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인 지금 단계에서는 주변에 있는 친구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3) 냉철한 판단력과 책임감

의사는 다양한 환자를 보게 되므로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진단과 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의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공과목

예과에서는 다른 이학계열 학생들과 비슷하게 수업을 듣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미적 등의 전공 기초과목과 세포생물학, 유전학, 유기화학 등의 전공과목들을 듣게 됩니다.

본과에 오면 우선 몸의 정상에 대해 배웁니다. 몸의 구조에 대해 배우는 해부학, 우리 몸의 조직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배우는 조직학,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배우는 생리학 등을 기본으로 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용하는지 배우는 약리학,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는 병리학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과 2학년이 되면 몸의 비정상에 대해 배웁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등 각 임상과목별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등의 계통별로 나타나는 질환과 그 치료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졸업 후 진로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봐서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진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에 종사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초의학을 하면 주로 연구를 하게 되고, 임상 의학을 하면 대학교수로 남거나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와 임상 의학은 학교에서 몇 년 더 수련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인턴과 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인턴은 여러 과를 돌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고, 레지던트는 과를 정해서 3년, 혹은 4년간 더 수련을 받는 것입니다.

인문의학이라고 해서 의학의 역사, 의료법윤리, 의학교육 등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법조인, 보건행정 공무원, 의료전문기자, WHO 등 국제기구 직원 등 생각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Plus+

의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요즘은 사람의 생명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돈과 명예만을 바라보고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실습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의대에 가야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College of Dentistry



치의학과

| 황동민(08학번)

DENTISTRY

치의학은 단순히 우리 몸에 있는 치아뿐만이 아니라 구강전체 그리고 넓게는 악안면부위(턱과 얼굴)까지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의학과 의학이 왜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그 배경설명과 함께 치의학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치의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치의학의 뿌리는 외과와 함께 이발외과의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과와 의학이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중세에 이르러 교회의 사제학(내과)을 담당하였고 외과적인 치료들은 '이발외과의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러한 유래로 현재 우리나라는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과대학과 같이 6년제를 택하고 있으며 의과대학과 함께 다른 학과는 조금 다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의 조금 다르고, 특별한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강의와 함께 임상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도록 실습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목에 실습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하루 일과의 절반 정도는 실습을 하면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치의학과 마지막 1년은 실제로 치과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과는 다르게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미리 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쌓습니다. 외래교수님들의 철저한 지도하에서 충치치료부터 신경치료까지 치과의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치료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진단에서부터 환자와의 소통과 치료계획, 실제적인 치료까지 진료를 위한 통합적인 과정들을 익히면서 치과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 Q&A

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대학생활은 어떠한가요?

치의예과 교육이 시작되면 학교생활이 힘이 들지만 치의예과 2년 동안엔 폭넓은 경험을 해보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과에 비해 그때의 생활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동안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거나 취미생활에 정진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여행을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또 다른 매력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신체 중 구강과 턱, 안면부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 싶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오는 것이 좋겠지요.

위의 내용과 더불어서 많은 치과적 진료는 약물에 의한



치료보다는 치과의사에 의한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의학을 전공함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과목들은 모두 실습시간이 있어서 실제로 틀니를 만들어 보고, 교정장치를 접어보고, 발치된 자연치를 구하여 실제로 신경치료를 해보는 등 많은 시간을 실습으로 보내게 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재주'가 중요하게 됩니다. 실습시간에는 항상 실습과제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이러한 과제들에 손이 익숙하지 못한 친구들은 평일밤 늦게까지 혹은 주말에 따라 나와서 과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치의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중 '나는 어렸을 적부터 손으로 무엇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재밌어 하였다'는 친구들이 온다면 자신의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치과대학은 치의예과 2년과 치의학과 4년 총 6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치의예과 2년 동안은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교양과목과 생물학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치의예과 2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치의학과 1학년이 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인체에 관련된 내용을 배웁니다. 치의학과 1학년 때에는 사람의 몸에 대하여 배우는 '해부학', 약물의 작용원리에 대하여 배우는 '약리학', 몸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에 대하여 배우는 '조직학',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하여 배우는 '미생물학' 등 열 가지가 넘는 기초학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치의학과 2학년부턴 턱과 안면부위의 수술에 대하여 배우는 '구강외과학', 치아의 이동에 대하여 배우는 '교정학', 틀니에 대하여 배우는 '보철학', 신경치료와 충치치료에 대하여 배우는 '보존학' 등 실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문들을 배우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목 이외에도 '소아치과학', '방사선학', '구강내과학' 등 단순히 치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진단, 치료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배웁니다.

졸업 후 진로

많은 사람들이 졸업하면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가 됩니다. 하지만 치과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모두 의사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분야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기초학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Plus+

치의예과에서 치의학과로 진학하고 난 후의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시절과 참 비슷해요.

수업시간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해져서 나오게 되고, 한 강의실에서 60~7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모두들 자기 자리가 있고 교수님만 바퀴죠.

수업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점심시간도 딱 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보는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이러한 생활이 고등학교의 연장선상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때로 낙오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등학생시절에 한번은 신중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YONSEI All-Ways+

약학대학

약학과 Pharmacy

약학과

PHARMACY

그 동안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기대되는 신약개발이 주로 외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최근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도 성공적인 신약개발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래시대로 가면서 점점 더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약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가 되기 위해서 약대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약사 및 약과학자로서 어떠한 소양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약학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기존의 4년제 약학대학은 6년제, 정확히 말해서 2+4년제로 변경되었습니다. 6년제 약학대학 체계 하에서 약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혹은 외국의 대학에서 전공에 상관없이 2년 이상 수료하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 대학교마다 일부 선수과목, 공인영어성적 등 추가적인 지원 자격을 요구합니다.

약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아우르는 융합학문입니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으로는, 약이라는 물질을 이해하기 위한 화학 분야(유기화학, 의약품합성학, 의약품제조화학, 생화학 등), 약물을 적용하는 인간의 몸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생물 및 의학 분야(미생물학, 면역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약물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한 약리과학 분야(약물학 등),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제형과 약물전달시스템을 연구하는 약제학 분야, 약물을 개별 환자에게

적용하는 임상약학 분야(약물치료학 등),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약사 및 약물의 역할과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사회약학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약학대학생들은 이론수업, 실험실 실습, 병원, 제약회사, 보건소, 약국 등에서의 현장실무실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학문분야를 학습함으로써, 약사는 궁극적으로 창약(創藥), 제약(製藥), 용약(用藥)과 관련된 업무 및 연구를 하게 됩니다. 창약은 새로운 약물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신약개발 연구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수십만명,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하여 인류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제약은 약물의 제형(경구제, 주사제 등)을 개발하고 균일한 품질의 약물을 생산하는 일과 관련있습니다. 용약은 창약과 제약의 과정을 거쳐 생산된 약물을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약사가 조제, 복약지도, 안전사용관리 등을 하는 업무 및 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

약학을 공부한 약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지식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전문가로서 실력을 유지하는 자세, 환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개인의 이익보다 환자 및 공중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도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소통기술

약사는 약료현장에서 동료약사, 의사, 간호사, 환자,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고, 팀을 구성하여 학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따라서 친화적이고 의사소통기술이 우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창의성 및 인내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수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수 백만명 혹은 그 이상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 인류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성, 그리고,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공과목이 궁금해요

- **생명약학 분야** : 생화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면역학, 생리학, 해부학 등
- **합성 및 천연물화학 분야** : 핵심유기화학, 의약품합성학, 의약품제조화학, 생약학 등
- **약리과학 분야** : 약리학, 병리학, 독성학 등
- **약제과학 분야** : 약제학, 물리약학, 생물약제학, 의약품제조 품질관리학 등
- **임상약학 분야** : 임상약학, 임상약동학, 약물치료학 등
- **사회약학 분야** : 보건의료체계와 약사, 의약품행정학, 의약품 경제성평가 등

졸업 후 진로

약학대학 졸업 후 진로는 크게 연구약사, 산업약사, 임상약사, 보건사회약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구약사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신약개발을 비롯하여 창약, 제약, 용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여 대학교수,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화장품회사 등 산업계 연구실, 정부기관 연구실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산업약사는 국내 및 외국계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화장품회사 등에 취업하여 개발, 품질 및 제조관리, 마케팅, 영업, 인허가, 마케팅세스 등의 다양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임상약사는 병원에 취업하여 병원약사 혹은 임상약사 업무를 하거나 지역약국 약사로 일하는 약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회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와 같은 국가행정기관에서 의약품의 허가, 보험등재, 안전사용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CRO(임상시험수탁기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약사, 변리사, 법조인, 기자 등 약사 출신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약사의 또 다른 전문성을 펼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Plus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사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미래사회에 약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에 공헌을 할 큰 꿈을 갖고 준비하십시오.

RC PROGRAM

연세 레지덴셜 칼리지 Yonsei Residential College, RC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은,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 우수한 학생의 선발과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충, 그리고 선진 명문형 교육 모델인 연세 레지덴셜 칼리지(Yonsei 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1학년 레지덴셜 칼리지(RC): “학습과 생활의 통합” Integration of Living & Learning

- | 소통 능력 Communication
- | 창의력 Creativity
- | 융·복합 능력 Convergence
- |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 | 크리스천 리더십 Christian Leadership

01 RC란 무엇인가?

| 연세 교육 모델 구현 연세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재 양성의 토대 마련
글로벌 핵심역량 함양의 장

| 학습과 생활의 통합 거주형 학습 생활공동체, 전인교육·전일교육 시스템

| 문화공동체 음악, 미술, 스포츠 포함 문화예술활동, 사회봉사 프로그램
풍부한 인문 교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북돋아 주는 촉매제

| 학생 자치활동 학생들이 캠퍼스에 24시간 머물러 있음으로써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선후배 네트워크 활성화

| 글로벌 리더십 교육 다양한 성장 배경,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존중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체득, 글로벌 리더십 교육 현장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한국 대학교육에 새로이 제시하는 명문형 교육 모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옥스퍼드 등 세계 명문 대학 RC운영

02 RC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RC 프로그램은 학습과 생활의 통합을 통해서 국제화 교육, 전인교육, 창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명문형 교육 모델이다. RC 프로그램은 글로벌 인재의 핵심 역량인 소통 능력(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융·복합 능력(Convergence),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크리스천 리더십(Christian Leadership)의 5C를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선진 명문형 교육 모델 글로벌 인재의 역량(5C) 함양

전인교육	문화·예술·체육·봉사활동	공동체 활동
	지성, 덕성, 영성 함양	연세정신 함양

국제화 교육	글로벌 리더십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외국어 능력 강화	소통 능력 함양

창의 교육	창의적 융·복합 교육
	교과·비교과 통합 교육
	현장 체험형 탐구 프로젝트
	거주형 학습 생활공동체 활성화

03 RC 교육 대상은 왜 1학년인가?

발달론적 측면에서 생애 전환기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중요한 시기

|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대학 1학년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점이며 생애 목표를 정립하기 시작한다. 또한 대학 1학년 과정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초석을 세우고, 나아가서 내일의 큰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엘리트로 성장하는 꿈을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 RC는 대학 1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과 대학문화에 적응하며 4년간의 대학 생활을 설계하도록 한다. 학습활동의 장과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성장배경과 교육경험을 지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 대학 1학년 학생들이 미래를 주도할 교양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C의 전인 교육을 통해 대학교육의 이상과 위업을 실현한다.

04 RC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나?

RC 교육의 구성 요소



RC 교육의 특성

교과 교육 Formal Teaching

전인 교육	성김의 리더십, 교양인의 자질 함양 사회봉사(1학점) 인천시와 연계한 초·중·고 멘토링 "연인프로젝트"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 외국학생 특화 봉사 프로그램 문화예술(1학점)	체육(1학점) 스퀘시 스포츠댄싱 Year Book 공연예술 Creative Art 온라인 미술관 농구 필라테스 합창 디지털 미디어 아트 풋살 수영 음악감상 사진 펜싱 몸짱 프로젝트
	글로벌 리더십 교육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해외 석학 초청 특강 외국어 집중 교육 대학영어 + 영어인증제 대학영어 I, II(4학점), 영어 졸업 인증 획득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제2외국어 교육 강화	영어 튜터링 서비스 CETS College English Tutoring Service 1:1 맞춤 영어 글쓰기 첨삭지도 영어강의 과제준비 및 수업 도움 제공
국제화 교육	창의적 융복합 교육 필수교양 핵심 교과목 신진국형 교수법 (2시간 대형강의 + 1시간 소규모 RC Section 토론) 책 읽기 및 토론 교육 RC 독서와 토론 Great Books & Debate	Creative Community Program peer learning 지원
교양의		

개별 지원 Personal Support

학생지도
 | 삼중 학생지도 시스템:
 전공교수-학사지도교수-
 RM 교수

비교과 학습* Informal Learning

학술제	RC 특강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 초청 특강 RC 학술제 독서 및 프리젠테이션 대회 RC Newsletter RC 생활과 프로그램 활동을 담은 웹진
	RC 공연 연주자, 음악대학, 동아리 초청 공연 RC 공모전 RC 생활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발휘와 사례공유를 위한 공모전 REC(RC Year-End Concert) 음악팀 중 하나인 합창팀을 전채 RC로 확대하여 하우스 연합 활동/ 개인, 단체, 밴드, 중창, 합창 등
문화 / 예술제	RC 올림픽 하우스별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리그/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피구 등 송도 마라톤대회 송도에서 개최되는 마라톤대회 참여 자전거(글리셈) 프로그램 글리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전거 활용/ 자전거 세계여행, 자전거 조립 및 정비, 라이딩에 관한 강연/ 그린 카페 조성/ 자전거 투어 및 대어 프로그램
체육제	

* 그 외 각 하우스가 추구하는 테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05 RC는 어떻게 운영되나?

전공교수

- | 1학년 담당 전공교수
- | 전공에 대한 소속감 함양, 전공 멘토 연결
- |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지도

학사지도교수

- | 1학년 담당 지도교수
- | 1학년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 1학년 세미나 운영
- | 인생설계에 따른 학업 계획 수립
- | 1학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지도

Residential Master(RM) 교수

- | House 총괄 책임자
- | House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인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 RC 조교(RA) 교육 및 관리

|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인천 국제캠퍼스 RC 교육환경에서 맞춤형·밀착형 **삼중 학생지도 시스템**의 지도를 받는다.

| "전공교수 - 학사지도교수 - RM 교수"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신입생 지도를 제공한다.

| **학습과 생활의 통합**(Integration of Living and Learning)이 이루어지는 RC 교육환경에서의 밀착형 학생지도도를 통해 대학생활 부적응 위험군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Early Warning System) 전문적 지도를 제공한다.

RC 교육원

- | RC 운영 총괄

English Residential Fellow(ERF)

- | RC 영어 생활환경 조성
- | RC 영어 프로그램 운영

Residential Master(RM) 교수

- | House별 책임자
- | RC 프로그램 기획·운영

학사지도교수

- | 하우스 내 생활지도
- | 하우스 학생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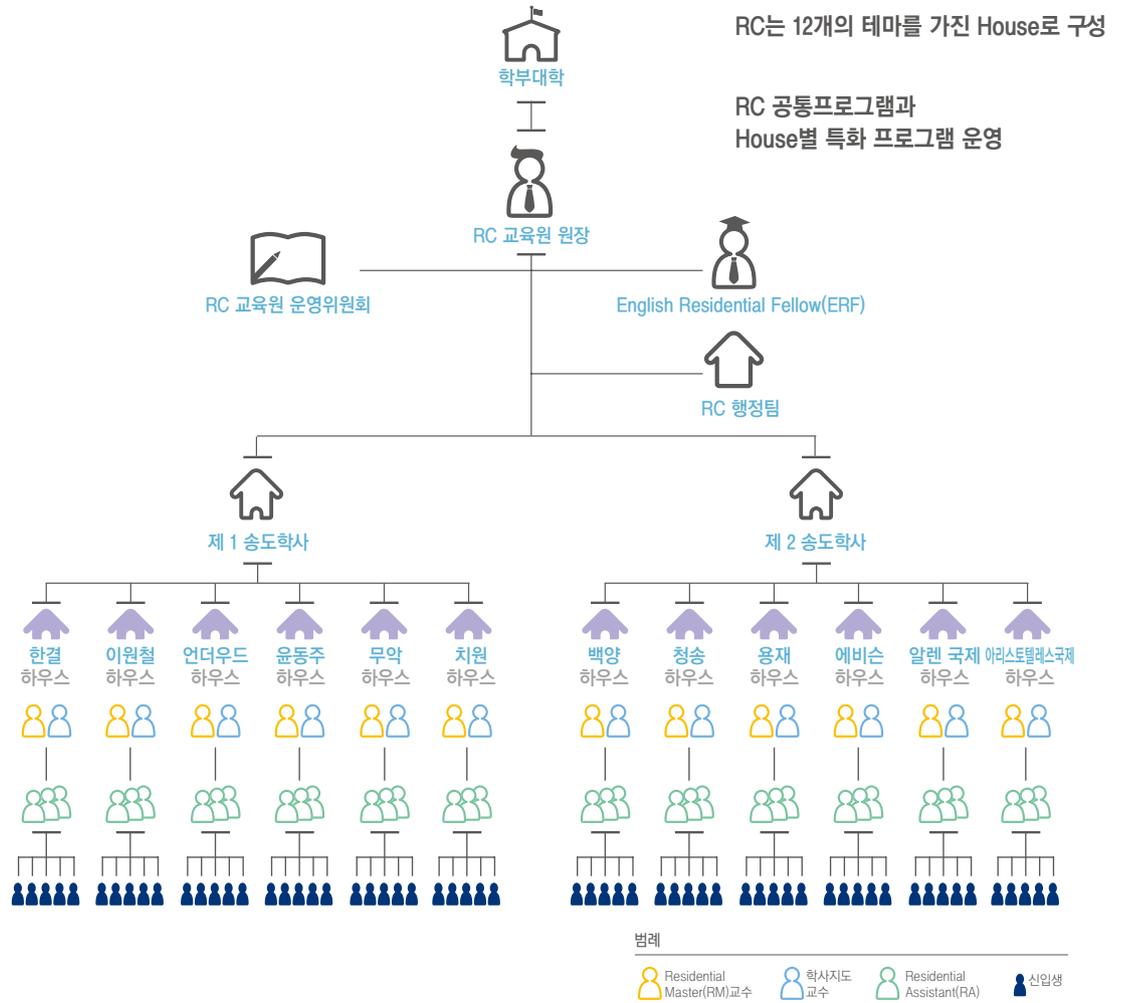
Residential Assistant(RA)

- | 담당 학생들의 멘토
- | 공동체생활 지도 및 학습지원
- | RC 프로그램 지원

RC PROGRAM

연세 레지덴셜 칼리지

06 RC조직도



07 RC는 어떻게 추진되나?

|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캠퍼스** (Yonsei International Campus, YIC)는 지난 2011년 첫 새내기들을 맞았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내기들을 맞이하고 있다.

| 국제캠퍼스의 RC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RC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2014년부터는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1년간 RC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향후 **새로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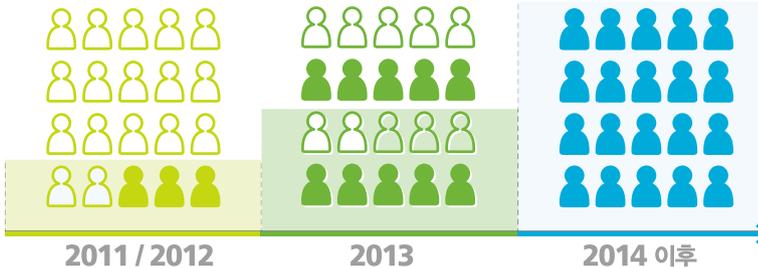


| RC 교육 프로그램 연도별 추진 계획

| **일부 학사단위 1년 과정**
자유 전공, UIC, 의예과,
치예과, 글로벌 융합 공학부
| 일부 학생 600명 교육

| **1학년 전체 (한 학기)**
| 한 학기 2,000명

| **1학년 전체 (1년)**
| 1년 4,000명



08 RC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 열 가지

| **전인교육을 강화한다.** 전문 지식만이 아닌 지성과 덕성, 영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한국 대학교육의 시스템을 기존의 '학원형'에서 다양한 생활체험 교육을 통해서 '전인교육형'으로 선진화하는 시스템이다.

| **학문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연계한다.** 9 to 9의 교육방식. 강의실에서의 이론을 방과 후 비교과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을 현실에 접목시키고 심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융합적 사고, 유연한 사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한다.** 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문 간의 벽을 넘어서 토론, 융·복합 교과목, 소규모 토론 강의와 그룹 활동을 확대한다.

| **글로벌 역량을 기른다.** 외국의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석학들을 초빙 국제적 수준의 지식을 배운다. 국제적인 소통 능력을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응용,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세계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배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에티켓을 체험을 통해 배운다.

| **공동체 의식, 협업 정신을 함양한다.** 생활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자랑스러운 연세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동료들 간의 유대감, 책임감을 체험한다. 그룹 활동, 소규모 토론, 각종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리더십과 소통의 능력을 함양한다.** 리더십 포럼, 토론, 연설, 발표와 같은 비교과 활동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끈다.

| **창조적,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조적 리더십을 함양한다.** 1인 1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음악, 미술,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공간 어디서나 직접 발표하게 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와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정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배운다.** 형제자매가 많지 않아서 혼자 살아온 학생들이 타인들과 어울려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며 수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체험을 토대로 앞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한다.

|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기른다.** 신체를 단련하는 체육 교육을 통하여 육체적 건강은 물론, 협업정신과 자신감, 도전 의식을 키운다.

학사제도

캠퍼스내 복수전공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처음 선택한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제2전공, 제3전공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학계열에 속한 학생이 기계공학을 전공으로 정한 후 경영계열의 경영학을 제2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융합공학, 건축학(5년제), 법과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고, 언더우드국제대학내 전공(제2전공 포함)은 언더우드국제대학 입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가지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재적 기간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게 되어 졸업장에는 제1전공과 함께 제2전공(제3전공)이 함께 표기된다.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미리 관심 있는 전공의 교과목을 한두 과목 수강하여 자신의 적성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캠퍼스간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서울캠퍼스 소속 재학생이 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에 한해 원주캠퍼스의 전공을 선택하여 전공하는 제도이다. 단, 소속은 제1전공이며, 상호 없는 학과(전공)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 ↔ 원주캠퍼스간 복수전공이 가능한 학과 및 전공

서울캠퍼스		원주캠퍼스
대 학	학 과 (전공)	학 부(과) 명
문과대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인문과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법학부, 보건행정학과, 자연과학부, 응용과학부, 디자인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	
신과대학	신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 천문우주학, 대기과학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생명공학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 전기전자공학, 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환경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컴퓨터과학, 정보산업공학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 식품영양학, 실내건축학, 생활디자인학, 아동가족학	

학사제도

- 캠퍼스내 복수전공
- 캠퍼스간 복수전공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교직
- 소속 변경

글로벌 프로그램

- ESP
- VSP
- SAP
- GIP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연세대학교를 졸업 예정인 학생이 원하는 전공에 진입해 최소 3학기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 복수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단, 글로벌융합공학, 건축학(5년제), 법과대학, 음악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원주의과대학은 제외이다.

부전공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전공은 교내 모든 전공/학과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전공에 따라서는 부전공 학생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여 재학중 21학점(전공에 따라 전공에서 정한 전공기초, 전공필수 포함조건이 있을 수 있음) 이상의 전공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신청시 부전공을 신청하여 학과의 심사에 따라 부전공자격 인정을 받으면 졸업장에 부전공이 표기된다.

연계전공

web.yonsei.ac.kr/yonjei

연계전공은 학문의 영역간 유기적 통합과 다변화, 다양화를 기조로 전개될 21세기 사회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여러 학과 및 전공이 연합, 실용성을 강화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자신의 희망전공과 잘 부합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전공을 알아보도록 하자.

개설 연계전공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유럽지역학, 미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벤처학, 리더십, 동아시아학, 비교문학, 문화비평학, 과학기술과사회
유의사항	연계전공은 제1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제2전공으로 이수가능하다

- **한국학** 한국의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교육, 사회, 정치, 과학기술, 경제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연구 심화,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이 목적이다.
- **중국학** 중국의 고대와 현대 문학, 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의 방법론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본학** 건전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비판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사제도

- **유럽지역학** 서양문명을 주도했고 지금은 EU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연구, 국제 교육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국제학 대학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다.
- **미국학** 국제사회 속의 강자 미국을 잘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현 교과과정에 산재해 있는 미국관련 제반 학문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디지털예술학** 최근 국가 기간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상산업을 위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전문인력들을 배출하고자 한다.
- **외교통상학** 국가간 외교 및 통상관계, NGO 등 국제적 관계에서 통상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 외교 통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와 통상기구로의 진출에 도움이 된다.
- **인지과학** 인간의 마음이 행하는 복합적 정보처리 과정을 마음, 두뇌,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 기초, 인간의 심리현상을 기술하는 이론 개발에 공헌한다.
- **벤처학** 벤처기업 발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적 지식에 바탕을 둔 창의적 벤처 정신과 첨단적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벤처현장 실습, 벤처기업 세미나, 제품 개발론 등 경영학, 공학, 법학 그리고 관련 산업 분야의 전공 과정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 **리더십** 리더십은 지도자의 판단 능력과 그 판단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 연계전공의 교육 목표는 공공성, 규범성, 합리성을 갖춘 올바른 판단 능력의 배양과 설득력의 함양에 두고 있다.
- **동아시아학** 동아시아(동북아와 동남아) 각국의 사회·문화적 비교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의 토착적 사유에 입각한 보편적 학문의 토대를 구축한다.
- **비교문학** 비교문학은 각 문학 분과들이 상호간 생산적 만남을 수행할 수 있는 통로이며, 그러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연구와 교육의 장을 창출해내는 촉매로 작용한다.
- **문화비평학** 다양한 문화현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질 <문화비평학> 연계전공의 가장 근본적인 창립목적은 개별 영역의 지식이나 관점을 서로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통합적 공간>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 **과학기술과사회학** 현대산업사회와 미래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사회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과학과 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통합적 통찰력을 갖는 과학기술 정책 및 관리학, 과학기술 윤리 및 사회학 등 유관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사제도

- 캠퍼스내 복수전공
- 캠퍼스간 복수전공
-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 부전공

·연계전공

- 교직
- 소속 변경

글로벌 프로그램

- ESP
- VSP
- SAP
- GIP

교직

web.yonsei.ac.kr/teacher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직에 선발되기까지 과정이 그리 녹록지않은 않다. 실력도 쌓아야 할 뿐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 위한 인품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으로 교사가 되길 원한다면 도전해 보자.

대학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대학	학과(전공)	자격종별	표시과목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국어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생물
	중어중문학		중국어		생화학		생물
	영어영문학		영어		공통과학(연계)		공통과학
	독어독문학		독일어	신과대학	신학		종교
	불어불문학		프랑스어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일반사회
	노어노문학		러시아어		공통사회(연계)		공통사회
	사학		역사	음악대학	성악		음악
	철학		철학		피아노		음악
	심리학	전문상담교사(2급)	관현악		음악		
	문헌정보학	사서교사(2급)	작곡		음악		
이과대학	수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수학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의상
	물리		물리		식품영양학		영양교사(2급)
	화학		화학		아동가족학		유치원정교사(2급)
	지구시스템과학		지구과학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교육학
	공통과학(연계)		공통과학		체육교육학		체육
공과대학	컴퓨터과학	중등학교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간호대학	간호학	보건교사(2급)	

소속 변경

소속변경은 재학생의 소속을 학문특성 및 전공을 개인적성에 맞도록 변경하여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재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학과(전공) 학생이 의학·치의학·간호학과 및 예·체능계열, 약학, 글로벌융합공학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예·체능계열 입학자는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다.

자격기준을 갖춘 지원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변경여부가 결정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실기 및 필기시험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절차나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학사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

글로벌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Exchange Student Program, ESP)

본교와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해외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파견되어, 그 파견기간 동안 수학하면서 상대국가의 언어, 문화 등을 배우고 돌아와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고, 수업은 해외 교환대학에서 수강하며 상대교의 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2015년 9월 현재 70개국 660개 이상 대학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 **학기 및 학점인정** 파견기간 동안 본교 및 파견대학에서 재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귀국 후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비용** 파견기간 동안 파견대학의 등록금이 아닌 본교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기숙사비, 식비, 생활비, 보험비 등의 경비는 파견대학 기준으로 학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 **다양한 경험** 해외대학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인적 교류를 넓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폭넓은 파견기회** 매년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 자격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 **조건** 본교와 학생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으로만 파견 가능하고 본교와 파견학교와의 학생교환 수 균형(Balance)이 맞아야 파견 가능합니다.

방문학생 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Program, VSP)

본교와 방문학생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해외대학에서 수학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한 학기 동안 해외대학에서 수학 후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학생으로 파견되는 학생들은 본교와 파견대학 양쪽 모두에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방문학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본교에서 등록금의 일부를 방문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기 및 학점인정** 교환학생과 마찬가지로 파견기간 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되고,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학기 및 학점이 모두 인정됩니다.
- **효율적인 비용** 본교 방문학생 장학금(VSP 장학금, 등록금의 8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VSP 장학금은 교내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다양한 경험** 해외대학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사고의 폭과 인적 교류를 넓힐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파견기회 확대** 교환 발란스와 관계없이 한 학교에 많은 학생이 파견될 수 있습니다.
- **조건** 학부생만 지원 가능하고, 의·치·간호대학 학생 및 대학원생은 방문학생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합니다.

Study Abroad Program (SAP)

Study Abroad Program은 학생들이 학교 대 학교간, 혹은 학교 대 기관으로 맺은 협정을 통해 해외대학으로 파견되는 제도로서, 본교에서 휴학상태로 파견되어 파견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파견대학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 **기회 확대** 교환 발란스 및 수학학기과 관계 없이 해외대학에서 수학이 가능하므로 학기제한에 따른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확대됩니다.
- **학점인정**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Global Internship Program (GIP)

Global Internship Program은 국제 비즈니스 실무 경험,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 문화 체험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와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GIP는 보편화된 어학연수와는 차별화된 국제실무 능력 향상의 기회로 각광 받고 있으며, 실제 급변하는 기업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앞으로의 학업 계획과 졸업 이후의 경력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의 인턴십을 수료한 후 본교에서 학기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Global Internship Program

- 실무 중심의 학습
-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
- 국제 경쟁력 제고
- 외국어 능력 향상과 문화 습득의 기회
- 향후 경력 개발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서울캠퍼스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입학처 02)2123-4131
[http:// admission.yonsei.ac.kr](http://admission.yonsei.ac.kr)